

〈총론〉

2022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시범적용 연구

연구책임자 | 이 승 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 승 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공동집필

최 호 성 (경남대학교/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

류 지 영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손 영 은 (발명영재교육연구원)

박 지 은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 연구참여

김 은 양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정 윤 경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김 선 명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연구조원

최 소 연 (건국대학교)

이 영 하 (서울대학교)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예술영재교육 기관 현황	4
1. 개요	4
2. 2022년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7
3. 2022년 시도별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10
4. 2022년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11
III. KRIGA 중장기 발전 전략 및 과제 (2차년도 연구 요약)	13
1.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타당성 조사·분석	13
2. KRIGA 중장기 발전 방안 2차년도 수정(안)	16
3. 추진시기별 세부과제 실행계획(안)	18
IV. 2022년 KRIGA 연구·사업 추진 현황	26
1. 예술영재성 발달 및 성장에 관한 중단연구: 1차년도 중단연구 설계 ...	28
2. 상위수준 음악영재 특성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원생을 중심으로 ...	31
3.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연구	33
4. 융합예술영재교육 핵심역량 탐색 연구	34
5. 2022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35
6. 전문학술지 「예술영재교육」 발간 사업	36
7. KRIGA 학술 심포지엄	37
8.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보화 플랫폼 운영	38

V.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HUB로서 KRIGA 발전방안	39
1. 국가 문화예술영재교육연구 중추기관으로서의 KRIGA 비전과 역할	40
2.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과 발전과제	59
3. 예술분야 소외영재 발굴 및 육성 방안	76
4. 잠재적 예술영재 교육참여 기회 확대 방안	94
VI. 논의 및 제언	115
참고문헌	117
부록	119
1. KRIGA 비전 체계 및 세부과제	121
2. KRIGA 기관로고 브랜딩	136

표 목 차

〈표 I -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3
〈표 II -1〉 2022년 영재교육기관 유형별 현황	6
〈표 II -2〉 2022년 예술영재교육기관 및 학생 수 현황	7
〈표 II -3〉 2022년 분야별 영재교육대상자 현황	7
〈표 II -4〉 2022년 유형별 예술영재교육기관 비율	8
〈표 II -5〉 2022년 예술영재교육기관 세부 현황	8
〈표 II -6〉 분야별 예술영재교육 학급 수 및 학생 수 현황	9
〈표 II -7〉 시도별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10
〈표 II -8〉 2022년 전국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11
〈표 III -1〉 2차년도 연구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14
〈표 III -2〉 1차년도 KRIGA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5
〈표 III -3〉 4대 추진영역 및 15개 중점과제(2021년 수정안)	17
〈표 III -4〉 추진 시기별 KRIGA의 중장기 발전방안 실행계획(안)(2022-2031년)	19
〈표 IV -1〉 2022년 KRIGA 주요 연구·사업 현황	26
〈표 IV -2〉 예술영재교육 종단연구 중장기 추진 방안(2022-2053)	28
〈표 IV -3〉 2022년도 KRIGA 연수 운영 현황	35
〈표 IV -4〉 전문학술지 「예술영재교육」 발간 현황	36
〈표 IV -5〉 2022 KRIGA 학술심포지엄 세부 일정	37
〈표 V -1〉 개별면담 및 원고집필 참여 전문가 목록	39
〈표 V -2〉 설문응답자 현황	61
〈표 V -3〉 예술분야 설문응답자 현황	62
〈표 V -4〉 대상자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 차이	63
〈표 V -5〉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의 부정적 인식 이유	65
〈표 V -6〉 예술영재교육 수혜 학생들의 배경 정보	66
〈표 V -7〉 예술영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배경 정보	67
〈표 V -8〉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들의 배경 정보	70

〈표 V-9〉 교원 영재교육 경력 정보	70
〈표 V-10〉 창의발명연구실 주요 업무 영역	96
〈표 V-11〉 발명교육센터 기관별 세부 업무	99
〈표 V-12〉 발명교육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22년)	100
〈표 V-13〉 발명교육센터 지역별 인력 운영 현황	101
〈표 V-14〉 센터 담당교원 전담교원 비율	101
〈표 V-15〉 교육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2005-2021)	104

그림 목차

[그림 II-1] 대한민국 영재교육 추진 체계	5
[그림 II-2] 영재교육기관 분류 체계	5
[그림 II-3] 영재교육기관 수 추이	6
[그림 III-1] KRIGA 비전 체계도(2021년 수정안)	16
[그림 V-1] 2022학년도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수(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a)	60
[그림 V-2] 예술영재 선발 개선 사항(예술영재 학부모 288명)	69
[그림 V-3] 예술영재 선발 개선 사항(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69명)	71
[그림 V-4] 발명(영재)교육 추진 체계	95
[그림 V-5] 발명(영재)교육 대상 사업별 추진 맵	97
[그림 V-6] 발명교육센터 추진 체계	99
[그림 V-7] 발명교육센터 시·도 지역별 설치 현황	102
[그림 V-8] 미술교과 활동과 발명활동 연계 사례	111
[그림 V-9] 빛의 주제로 STEAMIE 지식과 발명활동 연계 사례	112
[그림 V-10] 미국 Henry Ford재단 Model I	11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이하 KRIGA)은 성공적인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HUB가 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2005년 8월 관련 법령¹⁾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김춘미 외, 2006; 이승진, 강병직, 2020; 2021).

지난 20여년간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국가 차원의 법령과 제도적 틀 안에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예술분야 영재교육은 아직까지도 전체 영재교육대상자 수의 5.1%에 불과한 매우 제한된 범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GED통계, 2022).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전문가들은 ‘예술영재교육을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콘트를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이승진, 강병직, 2020), 이는 설립 초기 KRIGA가 부여 받은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HUB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승진, 강병직, 2021).

이에 KRIGA는 설립 15주년이 되던 2020년도에 그 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앞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예술분야 영재교육연구기관으로서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재정립하였다. 이어서 2021년에는 1차년도 연구에서 수립된 비전체계와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화 및 정교화 과정을 거쳐 단기·중기·장기 추진시기별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3차년도 시범적용을 위한 연구로, 이전 연구(이승진, 강병직, 2020; 2021)에서 수립된 추진시기별 중장기 발전방안 실천 로드맵을 기반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과 다른 새롭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그 성과를 기반으로 차년도 수행 과제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 「영재교육진흥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2022년도 예술영재교육 기관 현황 조사·분석

2022년도를 기준으로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이하 GED)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시도별 현황, 대학부설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나. KRIGA 중장기 발전 전략 및 과제(2차년도 연구 요약)

2021년 2차년도 연구결과 도출된 KRIGA 중장기 발전방안 세부과제 실행계획 수정(안)과 단기(2022-2024년), 중기(2025-2028년), 장기(2029-2031년) 사업으로 구분된 추진시기별 실천 로드맵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다. 2022년도 KRIGA 연구·사업 추진 성과 분석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시된 추진시기별 중장기 발전방안 실천 로드맵을 기반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 2022년 KRIGA 주요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라.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HUB로서 KRIGA 발전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중점과제 3-3. 부처 및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해 우리 기관의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핵심 키워드인 KRIGA 비전과 역할,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소외영재 발굴 및 육성, 잠재적 예술영재 교육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주제별 집필을 의뢰하였다. 이는 향후 중기(2025-2028년), 장기(2029-2031년) 실천 과제 수행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연구내용을 문헌 및 자료 분석, 정책자료 분석, 심층면담,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원고집필 참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1. 2022년도 예술영재교육 기관 현황 분석 가.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나. 시도별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다.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 GED 통계자료 조사·분석 - 문헌자료 분석
2. KRIGA 중장기 발전 전략 및 과제(2차년도 연구 요약) 가. KRIGA 비전체계 수정안(2021년) 나. 추진영역 및 중점과제 수정안(2021년) 다. 추진 시기별 중장기 발전 방안	문헌 및 자료 분석
3. 2022년도 KRIGA 연구·사업 추진 성과 분석 가. 예술영재성 발달 및 성장에 관한 중단연구:1차년도 중단연구 설계 나. 상위수준 음악영재 특성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원생을 중심으로 다.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연구 라. 융합예술영재교육 핵심역량 탐색 연구 마. 2022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바. 전문학술지 「예술영재교육」발간 사업 사. KRIGA 학술 심포지엄 아.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보화 플랫폼 운영 사업	- 정책자료분석 - 심층면담 - 성과자료분석 - 만족도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4.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HUB로서 KRIGA 발전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가. 국가 문화예술영재교육연구 중추기관으로서의 KRIGA 비전과 역할 나.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다. 예술 분야 소외영재 발굴 및 육성 방안 라. 잠재적 예술영재 교육참여기회 확대 방안	- 문헌연구 - 전문가협의회 - 주제 별 전문가 원고 집필

II. 예술영재교육 기관 현황

1. 개요

대한민국 영재교육은 지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영재교육진흥법」 입법을 주도했던 전문가들은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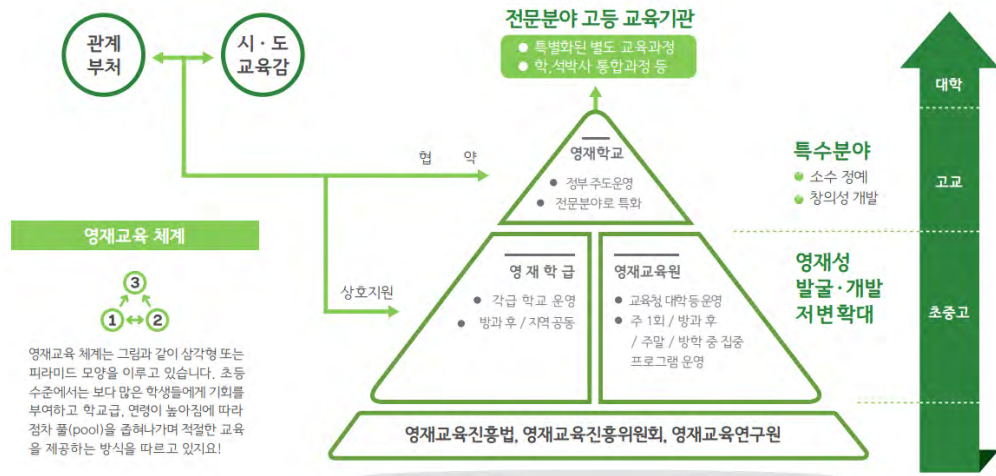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우리 헌법의 교육기본권에 충실하고, 그 결과 우수한 인재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다(조석희, 2004, p10.)”

다시 말해, 영재교육은 능력이라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²⁾」에 따라 다양한 재능계발의 기회제공이라는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큰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기관을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영재학급)** 「영재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급
-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시도교육청,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설치된 비전일제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일제 영재교육기관으로 2022년 현재 8개의 고등학교급 영재학교 운영

2)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II. 예술영재교육 기관 현황



출처 : 대한민국 영재교육(2015)

[그림 II-1] 대한민국 영재교육 추진 체계

영재학교, 과학고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전국 8개 영재학교 운영
		과학고		• 「초·중등교육법」 전국 20개 과학고등학교 운영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시·도교육청		• 교육청이 관할하는 영재교육원 - 고등학교에 설치된 영재교육원 (일부는 교육지원청 관할) - 연구기관, 교육청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 등
		지역교육지원청		• 지역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영재교육원 - 통상 교육지원청당 1개씩 존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북은 다수의 협력 학교에서 분리 운영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 교육부에서 승인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 - 대학부설과학영재교육원 27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3개 (분원2기관 신설.2021)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에서 승인
영재학급		지역공동		• 이웃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치운영된 영재학급
		단위학교		•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도록 승인된 영재학급

출처 : 2022 영재교육 통계연보

[그림 II-2] 영재교육기관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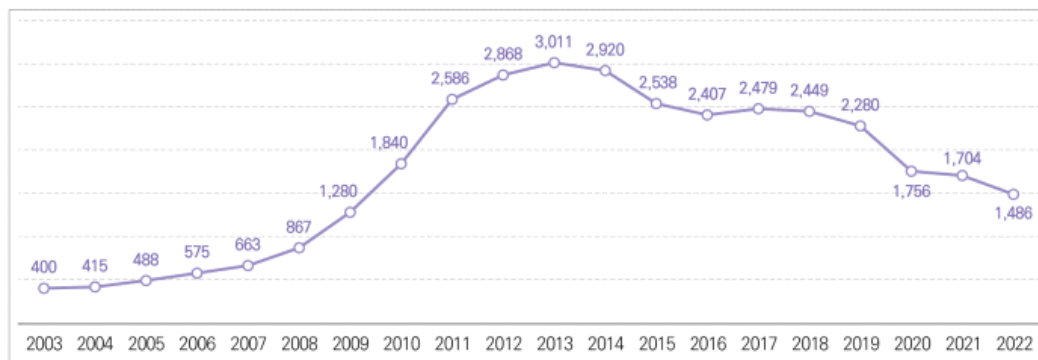
2022년 영재교육기관 유형별 기관 수를 살펴보면 영재학교 8개, 과학고³⁾ 20개, 교육청 영재교육원 250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90개, 영재학급 1,118개로 전국에 1,486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GED, 2022).

<표 II -1> 2022년 영재교육기관 유형별 현황

영재학교	과학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계
		교육청	대학부설		
8	20	250	90	1,118	1,486

출처 : GED 통계(2022)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재교육기관 수	663	867	1,280	1,840	2,586	2,868	3,011	2,920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영재교육기관 수	2,538	2,407	2,479	2,449	2,280	1,756	1,704	1,486



출처 : 2022 영재교육통계연보

[그림 II -3] 영재교육기관 수 추이

3)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는 아니지만 2008년부터 영재교육통계에 관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GED, 2022)

2. 2022년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이하 GED)에 등록된 예술영재교육기관 및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체 영재교육기관 1,486개 중 예술영재교육기관은 불과 103개(6.93%)만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수 또한 전체 영재교육대상자 수의 5.14%에 불과하다<표 II-2>.

<표 II-2> 2022년 예술영재교육기관 및 학생 수 현황

구분	전체 영재교육기관	예술영재교육기관	비율(%)
기관 수	1,486개	103개	6.93
학생 수	72,518명	3,729명	5.14

출처 : GED 통계(2022)

분야별 영재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과학 분야가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학(14.7%), 융합(14.1%), 수학(11.6%)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분야에 해당하는 음악, 미술은 전체 학생 수의 4.5%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2022년 분야별 영재교육대상자 현황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발명	정보과학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인문사회	융합	기타
학급수	542	772	7,581	225	345	83	102	144	28	143	1,120	94
학생수	8,380	10,675	26,659	3,520	4,777	1,231	1,644	1,581	423	2,204	10,225	1,199
비율(%)	11.6	14.7	36.8	4.9	6.6	1.7	2.3	2.2	0.6	3.0	14.1	1.7

출처 : GED 통계(2022)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영재교육기관 수 대비 예술영재교육기관 수의 비율을 기관유형별로 나타내면 <표 II-4>와 같다. 기관유형별로 봤을 때, 대

4) GED 통계에서는 예술분야를 미술, 음악으로만 구분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표 II-4>에 제시된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II-4>에 제시된 통계 수치는 체육 분야로 분류된 무용과 기타 분야로 분류된 영상미디어, 연극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학부설에서 운영하는 예술영재교육원이 18.89%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 영재교육원 18.80%, 영재학급 2.68%, 영재학교 0.00% 순으로 나타났다. 수·과학분야는 영재학교 8개교, 과학고 20개교나 운영 중인 반면 예술분야는 아직까지 전일제로 운영되는 영재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예술분야로 개설된 영재학급 수가 전체 영재학급 수의 2.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술분야 특성상 전문교·강사 수급 및 예술교육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영재학급 단위의 기관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II-4〉 2022년 유형별 예술영재교육기관 비율

기관유형	전체 영재교육기관 수	예술영재교육기관 수	비율(%)
영재학급	1,118	37	3.31
영재교육원	교육청	48	19.20
	대학부설	18	20.00
영재학교·과학고	28	-	0.00
합계	1,486	103	6.33

출처 : GED 통계(2022)

〈표 II-5〉 2022년 예술영재교육기관 세부 현황

운영기관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영재학교	-	-	-	-
영재교육원	교육청	108	1,517	699
	대학부설	119	1,241	603
영재학급	단위학교	11	176	40
	지역공동	49	795	258
합계	103	287	3,729	1,600

출처 : GED 통계(2022)

분야별 예술영재교육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현황은 〈표 II-6〉과 같다.

〈표 II -6〉 분야별 예술영재교육 학급 수 및 학생 수 현황

분야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음악	109	37.98	1,353	36.28	693	43.31
전통음악(국악)	34	11.85	271	7.27	114	7.13
미술	99	34.49	1,543	41.38	610	38.13
전통미술	3	1.05	23	0.62	7	0.44
만화창작	4	1.39	70	1.88	16	1.00
무용(발레)	20	6.97	228	6.11	93	5.81
전통무용	5	1.74	20	0.54	14	0.88
영상미디어	7	2.44	127	3.41	34	2.13
연극/영화	6	2.09	94	2.52	19	1.19
합계	287	100	3,729	100	1,600	100

출처 : GED 통계(2022)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뮤지컬, 실용음악, 오케스트라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음악 분야는 학급 수 109개(37.98%), 학생 수 1,353명(36.28%)으로 나타났고, 미술 분야는 학급 수 99개(34.49%), 학생 수 1,543명(41.38%)으로 나타났다. 개설된 학급 수는 음악 분야가 더 많지만, 학생 수는 미술 분야가 더 많은 것은 음악 분야는 미술 분야보다 더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술분야 전체에서 미술과 음악분야가 전체의 77.66%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전통음악(국악), 전통미술, 만화창작, 무용(발레), 영상미디어, 연극/영화 학급 수는 7% 미만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2022년 시도별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예술영재교육기관 시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03개 기관 중 약 53% 이상이 서울(30.10%)과 경북(23.30%)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경기 7.77%, 경남은 5.83%, 울산·충북·전남·제주 3.88%, 전북 2.91%, 부산·대구·인천·광주·강원·충남·세종 1.94%, 대전 0.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탁월한 예술적 재능이 발굴되더라도 해당 지역 내에서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7〉 시도별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시도	기관 수	비율(%)
서울	31	30.10
부산	2	1.94
대구	2	1.94
인천	2	1.94
광주	2	1.94
대전	1	0.97
울산	4	3.88
경기	8	7.77
강원	2	1.94
충북	4	3.88
충남	2	1.94
전북	3	2.91
전남	4	3.88
경북	24	23.30
경남	6	5.83
제주	4	3.88
세종	2	1.94
합계	103	100.00

출처 : GED 통계(2022)

4. 2022년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2022년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8〉 2022년 전국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 현황

시도	기관	대상학년	학급수	영역	학생수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원(서울본원)	초3~고3	25	음악, 무용, 전통, 융합	174
서울	건국대 음악영재교육원	초3~고3	2	음악	100
서울	서경대 음악영재교육원	중3~고2	1	음악	17
서울	서울교대 음악영재교육원	초3~초6	1	음악	48
서울	서울교대 미술영재교육원	초3~고2	6	미술	90
서울	서울대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초4~초6	3	미술	51
서울	숙명여대 음악영재교육원	초1~초6	4	음악	50
서울	한양대 미술영재교육원	초3~고1	10	미술	130
부산	부산대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초4~중3	6	미술,음악	110
대구	대구교대 영재교육원(대구)	초3~초6	2	미술	40
광주	광주교대 영재교육원	초3~초6	2	미술	25
세종	한국예술영재교육원(세종캠퍼스)	초4~고3	16	음악, 무용, 전통, 융합	49
세종	청주교대 부설 미술영재교육원(세종)	초1~초4	2	미술	30
경기	가천대 예술영재교육원	초4~중3	10	미술,음악	87
경기	강남대 부설 음악영재교육원	초4~중3	4	음악	32
충북	청주교대 부설 미술영재교육원(충북)	초1~초6	6	미술	90
경북	대구교대 영재교육원(경북)	초3~초6	3	미술	54
경남	한국예술영재교육원(경남통영캠퍼스)	초3~고3	16	음악, 무용, 전통, 융합	64
합계	18기관	초1~고3	119	-	1,241

출처 : GED 통계(2022)

제시된 <표 II-8>과 같이 전국에 총 18개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이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8), 경기(2), 부산(1), 대구(1), 광주(1), 세종(2), 충북(1), 경북(1), 경남(1)에 개설되어 있다. 그 외 지역인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는 아직까지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예술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영재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물리적인 기본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 **(음악)** 방음시설이 구비된 실기실, 다양한 악기, 미디 장비 등
- **(미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장비, 협업할 수 있는 넓은 공간
- **(연극/뮤지컬)** 무대, 마루와 거울을 갖춘 넓은 연습실 등
- **(영상)** 수준 높은 영상 제작을 위한 첨단 장비, 편집을 위한 실습실 등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 비해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의 확보가 용이하며 이는 수준 높은 예술영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별 최소한 1개 이상의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III. KRIGA 중장기 발전 전략 및 과제 (2차년도 연구 요약)⁵⁾

2020년 1차년도에는 KRIGA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2021년 2차년도부터 수립된 방안을 기반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예술영재교육 기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2021년도 KRIGA 연구사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2020년도 1차년도 연구에서 수립된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및 실행방법 각 항목들의 대한 타당성 및 정교화 과정을 거쳐 수립된 KRIGA 중장기 발전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타당성 조사·분석

가. 조사대상

KRIGA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예술영재교육 관련 연구, 행정, 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가운데 9명은 1차년도 KRIGA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과정에 전문가 자문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KRIGA 전임원장, KRIGA 담당주무관 등 KRIGA의 연구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고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자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KRIGA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17인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본 장은 이승진, 강병직(2021) 연구내용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표 III-1〉 2차년도 연구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번호	소속	직위	분야
1	목원대학교(KRIGA 전임연구원)	교수	미술
2	전북대학교(KRIGA 전임연구원)	교수	음악
3	공주교육대학교(KRIGA 연수 강사)	교수	음악
4	전남대학교(학술지 편집위원)	교수	음악
5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과학영재
6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영재교육
7	고촌고(前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교감	영재교육
8	세종과학고(前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장	영재교육
9	서울서초초등학교(KRIGA 연수 강사)	교사	초등교육
10	한국예술종합학교(KRIGA 전임원장)	교수	영상
11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
12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과장	-
13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담당주무관	-
14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예술철학
15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음악
16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술
17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사업팀장	예술경영

출처 : 이승진, 강병직(2021). p48, 재구성

나. 조사내용 및 방법

2020년 1차년도 연구에서 수립된 KRIGA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세부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1차년도 연구에서 수립된 ‘4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를 Likert 5점 척도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설문조사지에 대해서는 SPSS를 통해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2> 1차년도 KRIGA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4대 추진전략		18개 추진과제
1	Think-Tank 기능 강화	1-1. 예술영재교육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1-2. 미래지향적 연구과제 수행 1-3.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학술사업 다각화 1-4.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2	국가 예술영재교육 HUB 역할 강화	2-1.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보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2-2. 예술영재교육 현장과의 소통·지원 강화 2-3. 일반 예술교육과의 연계성 확보 2-4. 예술영재교육 연계성 확보
3	예술영재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3-1.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체계화 및 전문화 3-2. 국가 차원의 예술영재교육 강사 양성 체계 구축 3-3.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멘토 양성 프로그램 도입 3-4. 협력 관계자 대상 예술영재교육 연수 체계화 3-5. 예술영재교육 원격교육 시스템 고도화 및 활성화
4	예술영재교육 협력 기반 구축	4-1. 부처 및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 4-2. 문화예술정책 내 연계협력 강화 4-3.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 4-4. 예술영재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4-5.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출처 : 이승진, 강병직(2021). p49~50에서 재인용

다.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4대 추진전략에 따른 18개 추진과제, 추진과제에 배치된 세부 과제, 그리고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한 빈도분석과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본문에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해석하였으며, 각 문항의 선정은 표준값을 기준으로 ‘동의하다’의 기준값인 4.0 이상을 획득한 항목에 한해 이루어졌다. 다만, 4.0 이하의 항목 중에서 내용의 특수성과 정책적 방향, 미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장기 발전 방안 추진과제로 포함하였다.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에 따라 단기 사업(2022-2024년), 중기 사업(2025-2028년), 장기 사업(2029-2031)으로 구분하였는데, 4.30 이상의 항목은 단기 사업으로, 4.11~4.29는 중기 사업으로, 그리고 4.10 이하는 장기 사업으로 구분하

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4대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및 실행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할 시기를 배치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성과 환류의 타당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KRIGA 중장기 발전 방안 2차년도 수정(안)

가. KRIGA 비전 체계 수정안(2021년)

전년도에 수립된 비전체계와 비교했을 때, 미션, 비전 및 목표, 핵심가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진전략’이 ‘추진영역’으로 변경되고 추진영역 4개 항목의 배치순서가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변경되었다.



출처 : 이승진, 강병직(2021). p66에서 재인용

[그림 III-1] KRIGA 비전 체계도(2021년 수정안)

나. 추진영역 및 중점과제 수정안(2021년)

먼저, ‘추진전략-추진과제-세부과제-실행방법’으로 구분된 분류 명칭이 사업간 위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다소 모호함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분류명칭을 ‘추진영역-중점과제-추진과제-세부과제’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1차년도에서 수립된 18개 중점과제 중에서 타당성 조사 평균값이 4.0이하로 나타난 3개 과제는 삭제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의 평균값이 높은 순서로 4개의 추진영역과 15개 중점과제를 재배치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3〉 4대 추진영역 및 15개 중점과제(2021년 수정안)

추진영역		중점과제
1	Think-Tank 기능 강화	1-1.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학술사업 다각화
		1-2. 미래지향적 연구과제 수행
		1-3. 예술영재교육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1-4.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2	예술영재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2-1.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체계화 및 전문화
		2-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멘토 양성 프로그램 도입
		2-3. 예술영재교육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2-4. 국가 차원의 예술영재교육 강사 양성 체계 구축
3	예술영재교육 협력 기반 구축	3-1.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
		3-2.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3-3. 부처 및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
		3-4. 예술영재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3-5. 문화예술정책 내 연계협력 강화
4	국가 예술영재교육 HUB 역할 강화	4-1.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보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4-2. 예술영재교육 현장과의 소통·지원 강화

출처 : 이승진, 강병직(2021). p67, 재구성

3. 추진시기별 세부과제 실행계획(안)

KRIGA의 중장기 발전 방안은 향후 10년 동안(2022-2031년) 추진할 연구 및 사업을 중심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4개 추진 영역, 15개 중점과제, 35개 추진과제, 66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추진 시기를 3단계 즉, 단기(3년), 중기(4년), 장기(3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기, 중기, 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추진사업 선정(2022년-2024년, 3년)

단기 추진과제는 시기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할 사업이자 향후 사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에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동의수준이 4.30 이상을 획득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각 추진 영역에서 최소 1개의 대표적 중점 과제가 추진되도록 할 때 그 기준점수가 4.3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기 추진사업 선정(2025년-2028년, 4년)

중기 추진과제는 단기 과제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전문가의 동의수준이 4.13-4.29의 범위에 속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과제들은 비교적 동의수준이 높으면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장기 추진과제에 선행되는 성격을 지닌다.

셋째, 장기 추진사업 선정(2029년-2031, 3년)

장기 추진과제는 단기와 중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발전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전문가들의 동의수준이 비교적 약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시대적 변화와 상황, 요구 등을 점진적으로 고려하고 수정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의 동의수준 4.12 이하의 항목을 장기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2차년도에 수립한 추진시기별 세부과제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 추진 시기별 KRIGA의 중장기 발전방안 실행계획(안)(2022-2031년)

추진영역(4)	중점 과제(15)	추진과제(35)	세부과제(66)	추진 시기
1. Think-Tank 기능 강화	1-1.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학술사업 다각화	1-1-1. 학술지 예술영재교육의 사업 정착 및 활성화	1-1-1-1. KCI등재 학술지 자격 획득을 위한 체계 구축	단기
			1-1-1-2. KRIGA의 예술영재교육연구 플랫폼으로 예술영재교육 활용	단기
		1-1-2. 예술영재교육 학술 사업의 다양화	1-1-2-1. 국내외 예술영재교육 전문가 초청 학술 대회 개최	중기
			1-1-2-2. 한예종 내 부설기관(예술연구소, 융합센터 등) 및 외부 대학(기관) 등과 연계한 연구 및 교육, 포럼 운영	중기
			1-1-2-3. 교육 정책 및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예술영재교육 포럼 운영	중기
			1-1-2-4. 예술영재교육, 예술융합, 인문학과 연계한 특강 시리즈 운영	중기
	1-2. 미래지향적 연구과제 수행	1-2-1. KRIGA만이 수행 가능한 전문 연구 과제 발굴	1-2-1-1. 한국의 예술영재교육 종단 연구 추진(예술 영재의 발달 및 교육의 중장기적 영향과 성과 분석 등)	단기
			1-2-1-2. 성공한 예술가, 예술 영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실증 연구	단기
		1-2-2.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예술영재교육 연구 과제 수행	1-2-2-1. 인공지능 시대와 연계된 예술영재교육 연구	중기
			1-2-2-2. 예술융합교육 관련 연구 수행	장기

추진영역(4)	중점 과제(15)	추진과제(35)	세부과제(66)	추진 시기
1-3. 예술영재교육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1-3-1. 예술영재교육 인지도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1-3-1-1. 카드뉴스, SNS 채널을 통한 KRIGA의 주요 연구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강화	중기
			1-3-1-2. 정기적으로 예술영재교육 웹진을 발간, 배포(관련 전문가, 현장 교강사, 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 대상)	중기
			1-3-1-3. 언론 방송사를 대상으로 예술영재관련 이슈 및 바로 알기 등의 홍보 강화	장기
	1-3-2. 예술영재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술영재교육에 관한 인식 제고		1-3-2-1. 정책/예산 결정의 핵심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재교육 관련 부처 관계자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등 운영	단기
			1-3-2-2. 예술영재교육 정책의 올바른 담론 형성과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 정례화	중기
1-4.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1-4-1. 다양한 예술 분야 연구 인력 확보		1-4-1-1. 상시과제가 아닌 경우, 연구과제별 위촉 연구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등 개선	단기
			1-4-1-2. 전통음악, 미술, 영화, 연극, 융합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연구 인력 확보	중기
	1-4-2. 국가예술영재교육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담 부서와 인력 확보		1-4-2-1. 정기적 예술영재교육 관련 통계 조사 및 분석	중기

추진영역(4)	중점 과제(15)	추진과제(35)	세부과제(66)	추진 시기
2. 예술영재 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2-1. 예술영재교육 연수 체계화 및 전문화	2-1-1.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	2-1-1-1. 예술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체계적 연수 운영	단기
			2-1-1-2. 전문성 지속을 위한 정기적 보수 교육 실시	단기
		2-1-2. 예술영재교육 선도 교원 운영	2-1-2-1. 기초-심화-전문 과정을 이수한 교원 중에서 예술영재교육 선도 교원 위촉	단기
			2-1-2-2. 예술영재교육 및 일반 학교예술교육 지원 및 KRIGA 연구 사업 참여	장기
		2-1-3.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확대	2-1-3-1. 교장(감) 대상 참여형 예술영재교육 연수 확대(현장 탐방, 워크숍 등)	중기
		2-1-4. 예술영재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	2-1-4-1. 예술영재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예술영재 가장 지원 등)	중기
	2-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지원 활성화	2-2-1. 사회적 배려 대상 예술영재의 맞춤형 지원 체계 운영	2-2-1-1. 사회적 배려 대상 예술영재 지원을 위한 멘토풀 확보	단기
			2-2-1-2. 멘토를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교육 지원	단기
		2-2-2. 사회적 배려 대상 예술영재 지원을 위한 코칭 아티스트 아카데미 운영	2-2-2-1. 코칭 아티스트 아카데미 이수자에게 멘토 인증제 부여 및 활동 지원	중기
			2-2-2-2. 예술영재교육 기초 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코칭 아티스트 아카데미 운영	장기

추진영역(4)	중점 과제(15)	추진과제(35)	세부과제(66)	추진 시기
2-3. 예술영재교육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2-2-3. 문화예술 소외 계층 사업과 연계한 예술 잠재성 발굴 확대	2-2-3-1. 문화예술 소외 계층 사업과 연계한 예술 잠재성 발굴 확대	장기
		2-3-1.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신규 개발 및 도입	2-3-1-1. 오프라인과 연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단기
		2-3-2. 온·오프 연수를 활용한 KRIGA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2-3-2-1. 교육방법, 대상, 주제에 따른 KRIGA 아카데미 과정 체계화	중기
		2-3-3. 예술영재교육 원격 연수 시스템 고도화 및 선진화	2-3-3-1. 원격연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단기
			2-3-3-2. 한예종 대학 연수 시스템 연계 및 개선	중기
2-4. 국가 차원의 예술영재교육 강사 양성 체계 구축		2-4-1.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티칭 아티스트 아카데미 운영	2-4-1-1.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갖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영재교육 강사로 양성	단기
			2-4-1-2. 티칭 아티스트 아카데미 운영 방안 연구 추진	장기
		2-4-2. 예술영재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2-4-2-1. 예술영재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 기반 심화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단기
			2-4-2-2. 분야별 예술영재교육 강사의 역량 도출	중기
		2-4-3. 예술영재교육강사 질 관리 및 인력풀 체계 구축	2-4-3-1. 예술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예술강사의 예술영재교육기관 인력 풀 제공	중기

III. KRIGA 중장기 발전 전략 및 과제(2차년도 연구 요약)

추진영역(4)	중점 과제(15)	추진과제(35)	세부과제(66)	추진 시기
3. 예술영재교육 협력 기반 구축	3-1. 한국예술종합학교 와의 연계협력 강화	3-1-1. 한예중 및 부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 사업 추진	3-1-1-1. 한예중의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과의 협력 연구, 사업 운영	단기
			3-1-1-2. 한국예술연구소, 융합예술센터, 공연전시 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예술과젠더연구소 등과의 협력 연구, 사업 운영	단기
		3-1-2. 한예중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연구 사업 운영	3-1-2-1. 한예중-KRIGA-문체부의 상호협력 관계 구축	단기
			3-1-2-2. 한예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 수행	단기
		3-1-3. KRIGA의 연구 사업 성과가 한예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1-2-3. 한예중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연구 사업 발굴	중기
			3-1-3-1. KRIGA의 연구 사업 성과가 문체부, 한예중의 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단기
	3-2.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3-2-1.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예술영재 교육 인적, 물적 인프라 확보	3-1-3-2. 교내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KRIGA 운영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기
			3-2-1-1. 지역 예술가를 예술영재교육 전문가 풀로 활용	중기
			3-2-1-2. 교육청 및 대학 주도로 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영재교육 운영 지원	장기
			3-2-1-3. 지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문화 예술교육자원 지도 구축 및 활용도 제고	장기

추진영역(4)	중점 과제(15)	추진과제(35)	세부과제(66)	추진 시기
3-3. 부처 및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		3-3-1.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3-3-1-1. 영재교육을 위한 정부 부처별 정기 협의회 운영	중기
			3-3-1-2. 문체부(문화예술교육과)에 예술영재교육 전담 인력 배치	장기
		3-3-2.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협력 체계 강화	3-3-2-1. 국가영재교육연구기관 간 연구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단기
3-4. 예술영재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3-4-1. 전국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3-4-1-1. 전국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과 협력 연구, 사업 추진	중기
			3-4-1-2. 전국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기관 간 프로그램 교류 및 보급	중기
			3-4-1-3. 전국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 기관 실무 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장기
		3-4-2. 과학예술영재학교와의 협력 체계 구축	3-4-2-1. KRIGA와 과학예술영재학교 간 예술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운영	장기
			3-4-2-2.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예술융합 교과 전문가 풀 지원	장기
3-5. 문화예술정책 내 연계협력 강화		3-5-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추진(예술영재조항 신설)	3-5-1-1.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예술인재육성 조항 신설	중기

III. KRIGA 중장기 발전 전략 및 과제(2차년도 연구 요약)

추진영역(4)	중점 과제(15)	추진과제(35)	세부과제(66)	추진 시기
4. 국가 예술영재 교육 HUB 역할 강화	4-1.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보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4-1-1. 예술영재교육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발굴, 관리	4-1-1-1. 국가 예술영재교육의 HUB로서 KRIGA 지정	단기
			4-1-1-2. 국내외 예술영재교육 관련 인력, 교육, 운영 등 정보 종합 및 관리	단기
		4-1-2. 국가 차원의 예술영재교육 종합 포털 시스템 구축, 운영	4-1-2-1. 예술영재교육의 총체적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	중기
			4-1-2-2. 국가 예술영재교육 종합 포털 사이트 개발	장기
	4-2. 예술영재교육 현장과의 소통· 지원 강화	4-2-1. 예술영재교육 관련 수업 혁신 모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4-2-1-1. KRIGA 연구 및 연수 결과물의 교수학습 자료 활용성 강화	단기
			4-2-1-2. 예술 분야별, 학년별, 수준별로 현장 활용 성이 높은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확산(시청각 자료)	중기
		4-2-2.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협의회 구성	4-2-2-1. 협의회를 통한 각 시도별 예술영재교육 현황 및 성과 공유,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중기
		4-2-3. KRIGA와 예술영재교육 현장 교원 간 소통 사업 다각화	4-2-3-1. 전국의 예술영재교육 교사 연구회 지원 및 성과 공유(학술지 게재 등)	중기
			4-2-3-2. 예술영재 교강사 한마당 운영을 통한 시상 및 성과 확산	장기

출처 : 이승진, 강병직(2021). p86-91에서 재인용

Ⅳ. 2022년 KRIGA 연구·사업 추진 현황

KRIGA는 2021년에 수정·보완된 추진 시기별 세부계획 실행방안에 기반하여 2022년도에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주요 연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 IV-1>와 같다.

<표 IV-1> 2022년 KRIGA 주요 연구·사업 현황

구분	과제명	수행기간	KRIGA중장기 세부과제	구분
연구	2022 KRIGA 중장기 발전방안 시범적용 연구	4월~'23년 2월	3-3-2-1. 국가영재교육연구기관 간 연구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단기
	예술영재성 발달 및 성장에 관한 종단연구: 1차년도 종단연구 설계	3월~'23년 2월	1-2-1-1. 한국의 예술영재교육 종단 연구 추진	단기
	상위수준 음악영재 특성 연구	3월~'23년 2월	1-2-1-2. 성공한 예술가, 예술 영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실증 연구	단기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연구	3월~'23년 2월	1-2-1-2. 성공한 예술가, 예술 영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실증 연구	단기
	융합예술영재교육 핵심역량 탐색연구	3월~'23년 2월	1-2-2-2. 예술융합교육 관련 연구 수행	장기
	미술분야 융합예술꿈나무 프로그램 개발	5월~'23년 2월	1-2-2-2. 예술융합교육 관련 연구 수행	장기

구분	과제명	수행기간	KRIGA중장기 세부과제	구분
연수	직무연수 기초과정	12월	2-1-1-1. 예술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체계적 연수 운영	단기
	재능탐색 연수	5월	2-1-1-1. 예술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체계적 연수 운영	단기
학술	전문학술지 발간	4월/10월	1-1-1-1. KCI등재 학술지 자격 획득을 위한 체계 구축 1-1-1-2. KRIGA의 예술영재교육연구 플랫폼으로 예술영재교육 활용	단기 단기
	학술 심포지엄	9월	1-1-2-1. 국내외 예술영재교육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단기
			1-1-2-3. 교육 정책 및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예술영재교육 포럼 운영	단기
정보화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보화 플랫폼 운영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도입 - 시스템 유지보수 - 교사연구회 - 교수학습자료경진대회	5월~'23년 2월	2-1-2-1. 기초-심화-전문 과정을 이수한 교원 중에서 예술영재교육 선도 교원 위촉	단기
			2-3-1-1. 오프라인과 연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단기
			4-2-1-1. KRIGA 연구 및 연수 결과물의 교수학습자료 활용성 강화	단기
			4-2-3-1. 전국의 예술영재교육 교사 연구회 지원 및 성과 공유(학술지 게재 등)	중기
기금운영	- 지역예술꿈나무 발굴사업 운영·평가	5월~'23년 2월	2. 예술영재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중장기

1. 예술영재성 발달 및 성장에 관한 종단연구: 1차년도 종단연구 설계

□ 배경 및 필요성

- 예술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인들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 필요
- 예술영재교육을 통해 발굴·교육된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대한 장기적·과학적·심층적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예술영재교육 질 제고
- 데이터에 근거한 예술영재교육 정책 결정 및 예산확보의 준거 제시

〈표 IV-2〉 예술영재교육 종단연구 중장기 추진 방안(2022-2053)

(1단계) 기초연구·예비조사	(2단계) 본 조사					(3단계) 종합분석
2022년 ~ 2023년	1주기 (6년)	2주기 (6년)	3주기 (6년)	4주기 (6년)	5주기 (6년)	2053년
▪ ('22) 예술분야별 특성 변인 탐색, 종단연구 조사 모형 수립 ▪ ('23) 조사도구 선정 및 개발, 타당도 검증. 예비조사	▪ 1주기 6년 단위 계획 수립 ▪ 양적(질적) 데이터 조사 및 분석 ▪ 종단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패널관리 및 운영 ▪ 예술영재교육종단 학술대회 운영					▪ 년도별-주기별 결과 종합 분석 ▪ 예술영재교육 경험을 통한 양적(질적) 성과 분석 ▪ 연구성과 종합 분석 ▪ 후속 연구 설계

□ 1차년도 연구 개요(종단연구 설계)

- (연구목적)
 - 목적, 대상, 내용, 방법, 지원체계 등의 기본 수행 계획이 포함된 조사모형(안) 수립
- (연구과제)
 - 선행연구 분석 및 개념 정의
 - 2013-2022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재원생 현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종단연구 방법론 탐색
 - 분야별 예술영재 특성 요인 탐색

□ 국가 예술영재 성장·발달 중단연구 조사 모형(안) 수립

○ 목적 및 필요성

- 예술영재성 발달 및 성장과정에 대한 심층 이해
- 예술영재교육대상자 개인별 성장과정의 중단적 기록·분석
- 예술영재교육대상자 교육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 제시
- 후속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적 연구데이터 제공

○ 조사 대상(모집정원 525명)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서울, 세종, 경남통영, 광주)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분야 재원생

분야	모집정원				세부전공(37)
	서울		지역**		
	일반	사매자	일반	사매자	
음악	100	10	93	28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클라리넷, 하프, 리코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타악기, 성악, 작곡
무용	34	3	45	13	발레
전통예술	38	4	57	17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타악, 민요, 판소리, 정가, 가야금병창, 무용, 연희
융합	40	4	30	9	감각, 영상
소계	212	21	225	67	
합계	총 525명				

○ 조사 방법

- (양적조사) 설문지, 표준화 검사, 신체측정 등
- (질적조사) 개인면담, FGI, 참여관찰 등

○ 패널구성 절차와 방법



○ 조사내용

- 예술영재성 발현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인에 대한 포괄적 데이터 수집

고정요인 (1차년도 조사)	시계열적 가변요인 (종단적 조사)	
배경요인 - 성 - 연령 - 출생지 - 거주지 - 가족구성 - 혈액형 입학 전 일반경험 - 교육경험(일반) - 예외 교육경험(일반) - 학교성적 - 또래관계 - 장래희망 - 관심 교과목 - 취미활동 - 식습관 입학 전 예술경험 - 전공 최초 시작시기 - 전공선택 동기 - 결정경험 - 연습시간 - 교육경험(예술) - 예외 교육경험(예술) - 예술에 대한 인식 - 예술관련 가족, 친·인척 현황 - 무대경험 - 타예술분야에 대한 관심	가정·부모 [환경] - 동거가족 - 부모학력·직업 - 부모 양육태도 - 가계소득 - 교육비 지출현황 - 기초생활수급여부 [자녀교육 지원] - 부모의 교육지원 - 부모의 성취기대 - 가족유대감 - 학부모의 교육정보 원천 - 교사-학부모 관계 학교·교사 [환경] - 학교급 및 학년 - 학교소재지 - 학교생활 태도 - 교사의 심리적 지지 - 학생-교사 간 관계 - 교사 일반 교직경력 - 교사 영재 지도경력 - 교사 영재 연수경험 유무 - 교사의 예술 관련 인식 - 학교 교원의 영향력 (관리자, 담임교사, 전공교사) [기타] - 개인레슨 교사 유무 - 개인레슨 교사 지도경력 - 방과 후 활동	학 생 [예술] - 예술영재성 - 예술창의성 - 예술테크닉 - 연습시간 - 신체능력·체격 - 예술교육만족도(영재교육원) - 예술성취(수상내역 등) - 전공 몰입·열정 [일반] - 지능 - 일반창의성 - 성격 - 자기주도성 - 학습전략 - 행동전략 - 학교성적 - 리더십 [심리] - 자아존중감 - 자기개념 - 정체감 - 권력주의 성향 - 포부수준 - 목표의식 - 사회적 효능감 - 주관적 안녕감 - 실패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계] - 교우관계 - 예술조력자 - 고민상담자 - 교사와의 관계 - 교육원 지도교수 - 교육원 지도강사 - 개인레슨 강사 - 학교담임교사

○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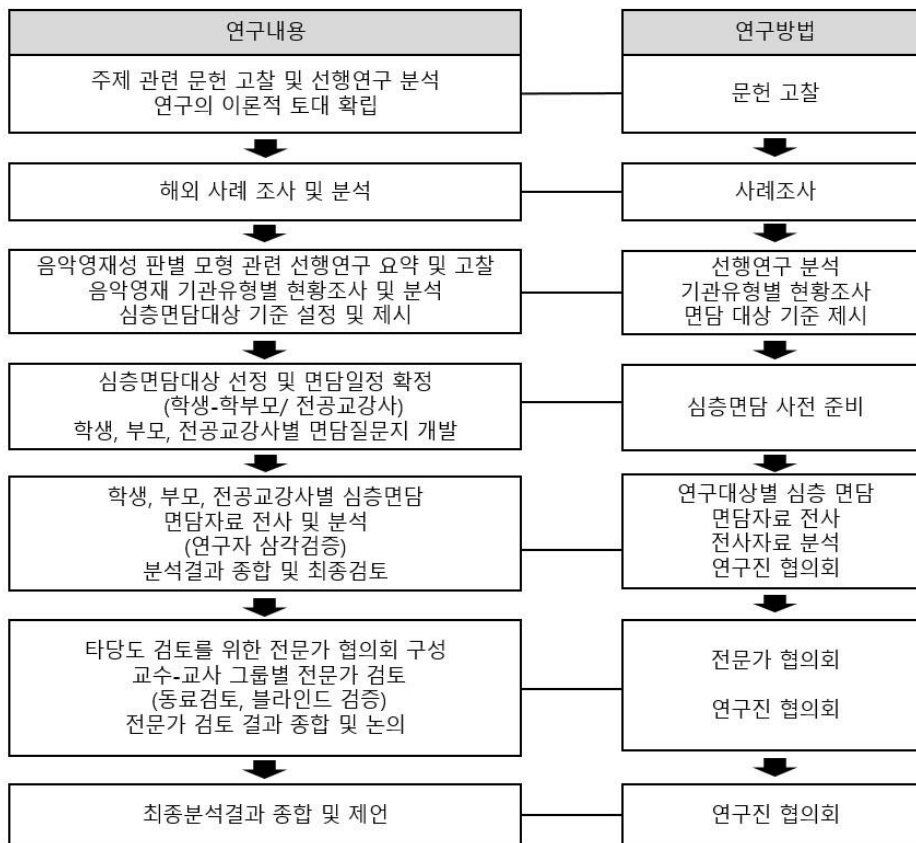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방안
- 텍스트, 이미지, 영상, 사진, 음성, 사운드 등 비정형데이터 수집·분석 방안
- 장기간 패널 유지를 위한 멤버십 방식의 커뮤니티 운영 방안

2. 상위수준 음악영재 특성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원생을 중심으로

□ 목적 및 필요성

- 예술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대상 특성 및 요구 파악
- 예술영재교육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음악영재 수준별 특성 탐색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재학생 대상 상위수준 음악영재 특성 종합 탐색

□ 연구내용 및 방법



□ 분석방법

-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 분석 선택
-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에 따른 분석
- 상위수준 음악영재 대상 학생-부모-교강사 다각적 관점에서의 분석
- 개별면담 전사, 분석(1,2,3차 코딩)
- 연구진 삼각검증, 분석결과 전문가 타당도 검토 등

□ 결론 및 제언

- 상위수준 음악영재 특성에 대한 질적 탐색
- 상위수준 음악영재 교육기관 운영 시 유의사항 제시
- 예술영재 종단연구(음악분야) 조사설계시 유의사항 제시

개인적 요소: 영재일반특성

- 타고난 능력 - 일상생활에서의 빠른 이해와 습득력/ 뛰어난 기억력과 암기력
- 과제집착력 - 강한몰입/강한집중력/강한의지, 강한지적호기심/자기주도성, 끈기/집념/인내/성실/완벽주의, 강한 승부욕과 도전정신
- 높은 수준의 자기이해 능력 -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

개인적 요소: 음악적 특성

- 독창적 음악추구: 나만의 음악을 만들고자하는 의지
- 음악열정: 음악을 사랑하는 태도
- 빠른 음악 습득력과 표현력, 빠른 암기력
- 연주에 적합한 타고난 신체조건
- 타고난 음감 및 예민한 청감
- 음악적 슬럼프에 대한 심리적 양상

환경적 요소: 부모, 선생님, 또래집단, 교육환경

- 부모의 영향: 부모의 음악적 환경 지원, 심리적·경제적 지원
- 선생님의 영향: 초기 선생님의 역할(전공선택의 안내자), 전공교수의 음악적 지원, 심리적 지원, 다수의 전공교강사 지도 영향
- 또래집단의 영향: 동료의 영향, 선배의 영향
- 교육환경의 영향: 전공결정 요인 또는 성장의 기회 - 무대경험의 의미, 콩쿨경험의 의미

3.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연구

□ 목적 및 필요성

- 예술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상위수준 무용영재 특성 및 요구 파악
- 무용영재 교강사 및 졸업생 경험에 근거한 무용영재성 발현과정 탐색

□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및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졸업생
- 상위수준 무용영재(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강사진

□ 연구내용 및 방법

무용영재성 개념 고찰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탐색
-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무용영재 선발기준 탐색 - 전문가 FGI를 통한 요인 탐색	- 상위수준 무용영재 인식 빈도분석 - 상위수준 무용영재 요구도(필요 수준 차이) Borich, t-검정 분석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강사진 및 출신 예술가 심층인터뷰

□ 결론 및 제언

무용분야 고도영재성					
무용고도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재능이 무용영재에 비해 질적으로 월등히 뛰어나며 무용영재 구성요인 중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능력수준이 매우 우수하여 무용수준을 최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자					
무용분야 고도영재 영역					
신체적영역 체격 체력		무용수행영역	신체지능영역	심리적영역	환경영역
무용분야 고도영재성 영역별 하위요인					
신체비율 턴아웃 발의 형태 고관절가동 신체형태 관절유연성	근지구력 회전력 도약력 점프력 순발력	관객소통능력 무대존재감 (장악력) 연기력 표현력 음악성	조화력 (수행간협응) 이해력 습득력 즉흥능력 동작재현능력 분석력 무용창의력 응용력 해석력	동기 열정 과제집착력 자기통제력 집중력 불안조절능력 동료경쟁심 대담함 자신감	수준별교육 교육환경 지도자의열정 지도자와교류 지도자의역량 무대경험 영재교육지지 가정의지지 국가정책 예산지원

4. 융합예술영재교육 핵심역량 탐색 연구

☐ 목적 및 필요성

- 융합예술영재교육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
- 기관, 지역, 학습자별 융합예술영재교육 기준 개발을 위한 핵심역량 탐색
-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시

☐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 분석, 문헌자료 고찰
- (현황조사) 교육현황 조사, 종합 및 분석
- (해외사례분석) 사례조사 및 분석, 시사점 도출
- (핵심역량탐색) 분야별 핵심역량 종합, 융합예술영재 핵심역량 도출(안)

☐ 기대효과

- 융합예술 분야 대상자 선발 기준의 근거 자료로 활용
- 융합 분야 교육과정 개발 시 기초데이터 활용
- 핵심역량별 타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 제시

5. 2022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예술영재교육 교·강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예술영재교육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추진 현황

- 예술영재교육 담당 교·강사대상 직무연수 개설 및 운영

〈표 IV-3〉 2022년도 KRIGA 연수 운영 현황

연수명	구분	기간	대상	목적
기초연수	직무 연수	‘22.06. ~ ‘23.02.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기초 전문성 강화
교사연구회 연수	자율 연수	‘22.10. ~ ‘23.02.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일반교원	예술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현장 연구 활성화 및 프로그램 공유·확산

* 예술사/전문사 재학생 대상 예비교원 연수와 연계

□ 향후 계획

- KRIGA 아카데미 체계 구축 연구 수행 - 예술영재교육담당교원, 전문예술 강사, 학부모, 예술가, 예비교사, 관리자 등 연수대상 확대
- 효과적인 BL(Blended Learning) 과정 운영을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 확보

6. 전문학술지 「예술영재교육」 발간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원 싱크탱크 역할 강화를 위한 예술영재교육연구 플랫폼으로 활용
- 예술영재교육 연구 성과 확산·공유를 위한 학술사업 다각화 추진

□ 추진 현황

- (2019년) 4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 발간
- (2021년) 한국연구재단 신규평가 결과 등재후보지 선정
- (2022년) 예술영재교육 분야 다양성 및 인적·물적 저변확대 추진

〈표 IV-4〉 전문학술지 「예술영재교육」 발간 현황

권호사항	제목	저자(소속)
제7권 (4.30.)	사회취약계층 음악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분석	김진수(숙명여대) 최나영(한국예술연구소)
	미술영재 판별을 위한 초등학생용 미술소양검사 개발 연구	강병직(청주교대)
	Art Thinking on Data and AI	김영희(홍익대)
제8권 (10.30.)	Paradigm Shift: Artificial Intelligence, Contemporary Art, and Implications for Gifted Arts Education	송보림 (이스트캐롤라이나대) 구아란 (캘리포니아주립대)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 고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문화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선(한국교원대) 손민정(한국교원대)
	무용영재교육 현황 분석	정윤경(KRIGA) 이진효(이화여대) 오유진(중앙대)
	인공지능의 예술적 창의성 개념 재고찰	한광택(충북대)

□ 향후 계획

- 202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을 위한 학술지 발간 시스템 체계화
- 예술영재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학술 아카이빙 구축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7. KRIGA 학술 심포지엄

□ 주제

세계무대를 휩쓴 한국의 예술영재, 예술영재교육 성과를 다시 묻다

□ 추진 개요

- (일시) 2022년 8월 31일 (수) 14:00 ~ 18:00
-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로캠퍼스 1층
- (참석인원) 예술영재교육 교강사 및 전문가 100명 이내

〈표 IV-5〉 2022 KRIGA 학술심포지엄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강연자
13:00~14:00	등 록	
14:00~14:10	환영사	조주현 (KRIGA 원장)
14:10~15:10	[기조강연] 한국예술영재교육의 발전과 과제 - 도제교육의 역할 분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주성혜 (한예종 음악원)
15:10~16:40	[주제발표1]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예술영재성 고찰	태진미 (숭실대)
	[주제발표2] 미술, 재능과 교육	박경종 (미술 작가)
16:40~17:00	휴 식	
17:00~17:50	[종합토론] 토론자/ 류지영(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손영은(KIPA 창의발명교육연구실)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좌장 / 강병직 (청주교대)
17:50~18:00	폐회 및 사진촬영	

8.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보화 플랫폼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예술영재교육을 총괄 지원하는 KRIGA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 학술지를 Think-Tank 기능 강화를 위한 예술영재교육연구 플랫폼으로 활용

□ 사업내용

- 교육대상별 원격연수 콘텐츠 선정 및 목록화/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 수요자 중심 예술영재교육 현장지원 사업
 - 2022 KRIGA 교사연구회 운영
 - 2022 KRIGA 교수학습자료 경진대회 운영



□ 논의 및 제언

- 조사 결과 외부 기관 콘텐츠 도입/임대 방식 보다는 신규 제작 필요
- 블렌디드(Blended) 러닝이 가능하도록 학습관리시스템(LMS) 개편 필요
- 실제 운영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교사연구회’ 메뉴 개편
- 시범운영 결과, 향후 교수학습자료경진대회는 중단하고 교사연구회는 확대 운영
- 교사연구회는 연구회원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원간 네트워크 강화

V.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HUB로서 KRIGA 발전방안

본 장의 연구과제는 KRIGA 중장기 발전방안「중점과제 3-3. 부처 및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제이다. 선정된 전문가들은 최고 의결기구인 교육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 소속 전문가로서 지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재교육 체계의 수립하고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영재교육을 이끌어 온 국내 최고의 영재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전문가간담회와 개별면담을 통해 KRIGA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중·장기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4가지 핵심 키워드 △KRIGA 비전과 역할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소외영재 발굴 및 육성 △잠재적 예술영재 교육참여기회 확대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국내 최고의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해안이 담긴 본 자료는 KRIGA가 향후 추진해야 할 중기(2025-2028년), 장기(2029-2031년) 과제 실천을 위한 전략 도출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면담 및 원고집필에 참여한 전문가 목록은 <표 V-1>과 같다.

<표 V-1> 개별면담 및 원고집필 참여 전문가 목록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최호성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부위원장	경남대 부총장
박지은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현장지원 총괄	
류지영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센터장	
손영은	특허청 창의발명연구실	전문수석연구위원	

국가 문화예술영재교육연구 중추기관으로서의 KRIGA 비전과 역할

최 호 성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부위원장)

1. 영재교육과 글로벌 창의 인재의 육성

인류는 에너지·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및 전염병 확산 등 범지구적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기술, 안보 분야에서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국가별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과 지역간·계층간 양극화의 사회 불평등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오픈AI사의 챗GPT가 단연코 화제의 중심에 있다. 아직 인간의 자연지능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후 공개된 GPT-4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한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6만 4,000개의 단어를 변환), 사람의 언어와 소통하는 능력을 목격하면서, 레이 커즈와일(R. Kurzweil)의 2005년 저서에서 언급된 특이점(singularity)이 더 빨리 다가오는 듯하다. 그 어느 때 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고 창조적 혁신을 선도할 인간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957년, 구(舊)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국가적 대(大)반성을 거쳐 내린 결론은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 육성을 서두르는 것이었다. 지난 1998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었다. 벼랑 끝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우리사회는, 국제 경쟁력을 지닌 우수 인재 육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을 특별 제정하고, 2002년 동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소수 엘리트 교육이라 홀대 받았던 영재교육이 공교육 체제 속에 자리 잡았다. 사회가 극도의 불안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1명의 영재가 수십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구호는 그만큼 호소력이 강해진다. 순식간에 국가 인재교육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소수 영재들 뿐 만 아니라, 초·중등 정규 학교의 교수-학습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일반학교에서도 학생의 재능을 발굴·탐색하는 교육활동들이 활발해졌고, 창의성, 토론과 탐구, 프로젝트 수행 학습 등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발달시키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영재교육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3년에 12만 1천명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영재교육대상자 수가 2022년에는 7만 2천명에 불과했다. 영재교육 기관수나 참여 교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의 상황과는 역주행하는 현상이다. 최근의 한국 사회는 과학·문화·예술 부문을 막론하고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정책에 대해 극히 소극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최호성, 2023).

디지털 전환시대를 개척해 갈 키메라(chimera)형 영재야말로 국가 생존과 안보를 지켜낼 소중한 천연자원이다. 분야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래를 선도할 융합형 창의 인재들이 절실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영재교육은 갈수록 축소 위기에 내몰려 왔다. 특히, 최근의 블록화 국가 경쟁 체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탁월한 창의 인재 육성은 필연적인 것이다.

한국은 공학·의학 등 이공계 산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적 스포츠 스타 배출과 함께, 문학·음악·미술·영화 등에서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의 확산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문화예술영재교육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K-컬처가 세계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2.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과 국가 예술영재교육 추진 방안

교육부는 지난 3.20일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까지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감소해 왔으며, 영재교육기관의 내실화·특성화 운영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개인의 영재성 수준과 특성에 따른 체계적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더군다나 ‘영재교육은 소수 엘리트 교육’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예술영재교육 관련 추진 방안을 살펴본다.

가.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중점 실천 전략

1) 잠재력 있는 ‘숨은 인재 발굴’로 영재교육 사각지대의 해소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누구나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표방하였다. 그럼에도 ‘고도영재’(profoundly exceptional gifted)나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 수준의 (가칭)고도영재 전문영재교육원을 설치하여 그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맞춤형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1단계 각종 표준화 검사 결과와 장기적 행동 관찰, 대회 수상실적 및 다양한 추천경로를 활용하여 ‘숨은 고도영재’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렇게 발굴된 고도영재들은 전문가팀의 1:1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분야별로 10-11학년 고도영재들을 발굴,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당 분야 멘토와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지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다문화·탈북 학생 포함)이나 성별·신체적 장애로 불리한 처지에 속한 소외계층 영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소외계층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선발방법을 적용하고, 온라인 교육이나 예비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先)교육 후(後)선발’ 방식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영재들과 학교 밖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특히, 초4 단계에 발굴하여 고3 단계까지 성장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영재키

움 프로젝트'를 내실화해 소외계층 영재들이 단절 없는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선행학습으로 '미리 만들어진 영재'가 아닌 잠재력 뛰어난 '숨은 인재'들의 영재교육 접근성이 훨씬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분야의 다양화와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형 영재교육 모델 확산

디지털 전환 시대는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형 창의 인재를 요청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수·과학 분야 프로그램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문화예술, 발명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인재를 조기에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원 부설의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영재학교와 과학고 교육과정에 SW·AI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권역별로 정보 분야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K-컬처를 선도할 예술·문화 분야 영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설치를 지원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서울 이외에 세종·경남·광주 등에서 예술영재 지역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발명·기업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을 확대하는 한편,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IP-R&E 프로그램'이라는 미래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연구자 양성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일반학교의 정규교육이 전혀 별개의 시스템은 아니다. 그 동안 영재교육은 일반학교 학생들의 재능 탐색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수업 등에서 개인별 맞춤형 심화학습 기회를 갖는다면, 그만큼 학생들은 재능 계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50개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능 탐색 선도학교를 초·중학교(200개교)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지역 재능개발 거점학교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미래형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학교의 숨은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용이해지고, 영재교육과의 연계성과 통합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영재교육 기관 내실화·특성화로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 유지

한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재학교 등으로 연계되어 있다. 영재교육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과 인식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내실 있고 특색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영재학급과 교육원은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블랜디드 수업을 활성화하며,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과 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특색 있는 ‘거점 영재교육원’을 지정하여 영재교육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역의 제한된 영재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돕는다.

한편,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도 강화해야 한다. 이공계 진로·진학, 과기특성화대학과의 AP(대학 학점 선이수제도)과목 연계 교육, 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달리, 영재학교의 사교육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 ‘입학전형 영향평가’와 ‘학교경영 성과평가 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과학고의 경우, 조기졸업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단 ‘과학고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과 ‘자율학교’ 지정 등으로 탄력적인 교육과정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영재학교·과학고의 학교 경영 재량권을 확대하면서도,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더욱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책무성을 높이려 했다.

4) 유능하고 행복한 영재교육 담당 교원 확충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영재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재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교원들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영재 담당 교원의 경력별 연수 체계를 기초(필수 30시간)·심화(60시간)·전문(120시간)·선도(1~6개월) 과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영재교육원에 전담인력(교육전문직, 파견교사, 실무사 등)을 배치한다.

전국·권역 단위 영재교육 선도 교사 네트워크와 전문 학습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 하는 한편, 영재교육 분야별 거점 연수기관과 모듈형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담당 교원의 개별화·맞춤형 연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유능한 영재 담당 교원이 보람을 갖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업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 시·도별 영재교육을 선도할 교사들에게는 수개월 이상의 중장기 연수는 물론이고,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행 시·도별 ‘학습연구년제’에 영재교육을 추가하거나 교과연구 분야와 연계하는 방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연구비와 수당, 승진·전보 또는 전문직 선발전형에서의 가산점 제공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5) 법·제도 개선과 적정 교육환경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영재교육 기반 마련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국가 창의 인재 육성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는 제거해야 하며 관련 법·제도는 시대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과학영재학교의 ‘사교육 영향 평가’와 ‘학교 경영성과 평가’의 법적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영재교육 이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도 고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교육 과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수 내용 일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영재의 성장·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그들의 선발과 교육 전반에 관한 종합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고도화해 영재교육 참여자의 지속적인 발달 기록은 물론이고, ‘교육기관 알리미’와 ‘영재교육 통계서비스’와 ‘영재교육 자료 공유 플랫폼’을 확충하게 된다. 또한, 국가창의인재관리 시스템에서는 영재학생에 대한 중단연구와 학업실적 및 진로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기록된다. 또한, 첨단 에듀테크를 적용하여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AR·VR·메타버스 등 새로

은 소통과 창작 및 공유의 영재교육 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 영재교육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지난 20년 이상 동안 수·과학 영역 중심의 영재교육 편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영재교육은 초창기부터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언어, 예·체능, 발명영역 등 영재교육 분야가 확대되어 오기는 하였지만, 2022년 현재까지도 수·과학 영역의 영재교육이 전체의 약 65%를 차지할 만큼 편중되어 있다. 물론 수학 및 과학이 학문적 탐구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지식의 전이와 응용 범위가 크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능 영역의 교육콘텐츠를 확장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예술영재교육은 영재교육의 큰 틀에서 수·과학 뿐만 아니라 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재교육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02년부터 국가차원의 예술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예술분야에서는 예술영재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예술적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예술인으로 키워낸다는 목적으로 예술중고등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2022)에 등록된 예술영재교육기관 및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체 영재교육기관 1,486개 중 예술영재교육기관은 불과 ??개(?? %)만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수 또한 수·과학분야가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학(14.7%), 수학(11.6%)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약 63%가 수·과학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 분야에 속하는 음악, 미술 영재교육대상자 수는 전체의 4.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이 분야의 영재교육 서비스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고도 영재, 소외계층 영재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하고, 영재성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 고도 영재의 발굴과 지원 체계 마련

이러한 노력은 수·과학 분야와 같은 교과지식 영재도 그렇지만, 음악·미술·공연 등 비교과지식의 예술 분야에서는 더 시급하다. 조기에 고도 영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예술영재를 육성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의 고도 영재 판별 기준과 영재 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6조에는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RIGA는 국가 수준의 고도영재 전문영재교육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영재교육기관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예술영재들을 1단계 표준화 검사와 이후 장기적 행동 관찰 결과나 비공식적 활동 실적, 수상 실적 등의 검토와 오디션 및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고도 영재를 판별해 낼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고도 영재는 정규 학급 규모와 같은 다인수 학습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야별 예술인들로부터 사사고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고도 예술 영재를 위한 사사고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예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그들에게 알맞은 특별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2) 소외 계층 영재교육 기회의 확대

예술분야의 경우 소외 계층 영재들의 영재교육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KRIGA는 소외 계층 자녀들의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지리적·경제적·신체적 이유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 영재들이 적지 않다. 서울교육청이 중위 소득 미만 가정의 예술영재들을 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에 위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박○○(16세)는 '22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최연소자로 입학하였다. 이와 같이, KRIGA는 소외 계층 예술영재교육의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조사 연구는 물론이고, 정규 학교 혹은 학교 밖 소외 계층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수년 전 부터 교육부는 '영재 키움 프로젝트'를 운

영하여 수·과학 분야의 소외계층 영재들을 선발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단계에 이르기까지 1:1 멘토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3) 영재교육 분야의 다양화

정부는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래의 수·과학 중심 영재교육을 확대하여 분야별 영재교육을 다양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보(SW·AI)분야의 영재교육을 비롯하여, 특히 예술·문화 분야의 영재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예술영재교육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로 인프라가 구축된 대학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설치·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22년 현재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을 8개 시·도에서 15개로 확대하고 '27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1개 이상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원이 '21년부터 세종, 경남 및 광주시에 지역캠퍼스를 개설하여 음악, 무용, 전통예술 중심의 영재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를 여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통적인 음악, 미술 분야 외에도 영상 미디어, 연극/영화, 만화창작 등 학생들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영재교육 영역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한편, 앞으로 영재교육은 일반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유리된 채 더 이상 운영되어선 곤란하다. 일반학교 내 재능 탐색 기회를 확대하여 초·중등학교의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KRIGA)의 비전과 역할

2005년 국가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된 이래,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예술영재의 발굴과 판별, 영재교육연구 및 교원 연수 등에서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수행해 왔다.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예술영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들의 영재교육 역량을 제고하는 기초 및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오고 있다. 국가 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1) 예술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예술영재교육 정책연구 및 예술영재관별에 관한 연구·개발, 3) 예술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과 예술영재교육 지원 시스템 연구 개발, 4) 교원 연수 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등의 핵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렇지만, 개원 2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국내 유일한 문화예술영재 교육연구원으로서의 책무성과 가능성을 성찰해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기관의 비전과 목표와 발전전략을 재검토하게 될 뿐만 아니라,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KEDI의 영재교육센터 및 부산영재교육진흥원 등 여타 국가 지정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상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지원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현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이 실천하고 있는 기관 미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향후의 미래 발전 방안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비전 체계의 재구성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국가 지정 연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2020년에 KRIGA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시범 적용 연구 결과를 토대로, KRIGA의 발전 방안을 단기사업(2022~2024년), 중기 사업(2025~2028년), 장기 사업(2029~2031) 등으로 구분 배치한 바 있다. 이 추진 계획에 나타난 바를 보면, KRIGA는“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예술 창의 융합 인재 발굴·육성”을 기본 미션으로 삼으면서 “성공적인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HUB가 되는 전문 연구기관”의 비전을 갖고 “KRIGA의 재도약-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KRIGA는 “Think-Tank 기능 강화, 예술영재교

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국가 예술영재교육 HUB 역할 강화, 예술영재교육 협력 기반 구축”등의 4개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각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15개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KRIGA는 국가 예술영재교육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인력 양성의 역할과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펼쳐 보자면, KRIGA는‘A·R·T·E’, 즉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선발 시스템 개발’(Assessment & Academy), ‘예술영재교육 연구’(Research), ‘예술영재교육 전문 인력 양성·연수’(Teacher Training), ‘예술영재교육 환경 및 네트워크 조성’(Environment) 등 네 가지의 핵심 전략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에, KRIGA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예술영재교육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ARTE 중심으로 집약하여, 전략간 추진과제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전략별 특성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KRIGA의 미션은‘디지털 전환 시대의 융합형 문화예술 창의 인재의 발굴·육성’으로 설정하여, 종래의 ‘새로운 미래’라는 막연한 표현을 ‘디지털 전환 시대’로 특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예술창의융합인재’를 ‘융합형 문화예술 창의 인재’로 수정하여 예술을 문화예술로 확장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KRIGA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 예술영재교육연구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포함하면서, KRIGA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적 소통·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A·R·T·E 2030 : 월드 클래스 국가 예술영재교육 연구의 허브’로 재진술했다. 세계적 수준의 예술영재교육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KRIGA의 의지와 방향을 2030 발전전략으로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그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은 예술영재발굴·판별(A), 예술영재교육 연구(R), 예술영재교육 전문 교원 연수(T), 그리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술영재교육의 기반 환경 조성(E) 등의 4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설정·실행해 간다는 것이다.

나.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발전전략의 4대 핵심 영역 및 실천 과제

KRIGA는 예술영재교육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연구원으로서 예술영재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예술영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 수준의 예술영재교육을

견인하는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구심점이자 허브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서는 KRIGA의 발전 전략인 4대 핵심영역을 A·R·T·E로 구분하고, 향후 2030년까지 영역별 실천 과제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예술 영재의 발굴·판별 및 교육 모형 개발(Assessment & Academy)

지속가능한 예술영재교육 체계는 영재의 조기 발굴과 판별에서부터 시작한다. 과학적·체계적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여 예술영재를 발굴하게 되면, 영재의 특성과 수준에 최적한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교육으로 전 생애에 걸쳐 영재성 혹은 재능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예술영재교육 연구의 중추 기관인 KRIGA는 예술영재의 발굴 및 판별, 예술영재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교육모형의 개발 등을 주도해야 한다. 즉, 영재의 조기 발굴과 선발이 요구되는 예술영재교육 영역의 경우, 적절한 영재성 측정 및 판별 시기와 적절한 교육적 개입 시기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KRIGA는 이러한 예술영재교육 현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 예술영재의 판별 절차와 도구 개발 및 표준화

예술영재는 조기에 발굴하는 게 중요하며, 단순히 인지 능력만이 아니라 해당 예술 분야에서의 학습이력, 수상경력, 정의적 특성(끈기와 열정 및 노력 습관 등), 실기 수행 능력 및 산출물, 교사나 멘토의 추천 등 다양한 재능 포트폴리오를 참조하여 판별해야 한다. KRIGA는 음악, 미술, 영상,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고 신뢰로운 예술영재 판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예술영재 발굴·판별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방법은 물론이고 정의적 특성의 표준화 심리검사나 각종 조사지 등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술영재교육 분야별 차별화·특성화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보급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과 판별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일이다. 정규 학급의 일반 학생 간에 목격되는 개인차보다 영재들 간에 관찰할 수 있는 개인차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만큼 개별화·특성화·차별화의 맞춤형 예술영재교육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KRIGA는 예술교육의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근간으로 개인·소규모 학습집단 중심의 예술영재교육 방법론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 예술인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겠지만, 영재의 제반 특성에 알맞은 효과적 교육 방법론을 전문적으로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상담, 영재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한 수업기술, 영재아의 진학 및 진로 개발에 대한 지도 등 영재교육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모형화하여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예술영재의 성장·발달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영재교육에서 영재의 조기 발굴·선발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재아의 성장과 발달 변화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국 혹은 지역 차원에서 발굴한 예술영재에 관한 개인적·교육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영재들이 예술영재교육기관 혹은 사사고정 등으로 경험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영재에 대한 종단적인 발달 추적 연구나 GED와 같은 영재교육종합데이터 베이스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종단연구가 수·과학 영재에 국한되는 만큼, KRIGA는 국가 차원의 (가칭) 예술영재교육 종합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술영재의 발달과정과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종단 추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GED와 연계하여 예술영재교육기관, 대상자, 교원, 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정보를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 예술영재교육 학술·정책 연구의 수행(Research)

KRIGA는 국내 유일한 국가 지정 예술영재교육 연구기관이다. 무엇보다 예술영재교육의 연구 활동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예술영재교육 연구는 예술영재의 인물 연구, 예술영재 발굴·판별 연구, 예술영재교육 모형 연구, 예술영재교육 연구 활성화 사업(학술지 발간), 예술영재교육 진흥 정책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예술영재 인물 특성 및 생애 탐구

예술영재교육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가 예술영재이며, 그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저명한 예술가(eminent artist)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KRIGA는 예술영재 특성에 관한 학술 연구는 물론이고, 저명한 예술가의 교육경험과 삶의 가치 등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유년 시절부터 예술영재로서 어떠한 교육 경험을 거쳐 왔으며, 저명한 예술가가 되기까지의 절망과 좌절, 도전과 성취 등에 대한 내러티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술 분야별 저명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문헌조사, 인터뷰, 산출물 분석 등 질적 연구 접근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예술영재 판별 및 맞춤형 영재교육 모형 개발 연구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술영재판별 절차와 도구가 필요하다. KRIGA에서는 영재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요인에 대한 판별 방법은 물론이고, 수·과학영재와는 다른 예술영재의 고유한 인지적·정의적·신체운동적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또한, 예술영재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영재교육모형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예술영재교육의 분야 특성에 따라 영재의 집단 활동 혹은 개인 활동 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최종 산출물의 유형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성 교육, 정의적 특성 발달, 연기·연주·실기능력의 배양, 인성 및 리더십 함양 등 영재교육의 핵심역량을 중심으

로 다양한 교육모형을 개발·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여 개선해 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예술영재교육 연구 활성화

KRIGA는 국내·외 예술영재교육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예술영재교육 전문 학술지, ‘예술영재교육’을 국내 최고 수준의 예술영재교육 학술지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영재학회를 포함한 영재교육관련 전문 학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예술교육계 전문 학술단체와 협업하여, 예술영재교육 포럼, 세미나 및 정기 학술대회 등을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유관 단체와 주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 예술영재교육 학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KRIGA의 예술영재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정책연구 수행

KRIGA의 예술영재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교육현장의 실효성 있는 영재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인재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예술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자적으로 문화예술영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거나 교육부 종합계획의 일부를 문화예술영재교육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한편, KRIGA는 국가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한 일종의 교육허브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영재학교 형태처럼, 전일제 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고, 정시제 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여 기존 예술고등학교들 중 희망하는 학교와 공동학위제(joint-diploma system)를 운영(예술고 학생 대상 2학년 편입학 제도와 같이)하거나, 주중 특정 요일이나 주말수업을 제공할 수도(미국의 주지사 학교(governor's school 형태 참조) 있다. 이러한 예술영재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밝히고, 효과적인 학교 운영 모형을 기획하는 정책 연구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3) 예술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Teacher Training)

예술영재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역량 있는 교·강사 자원의 수요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현재 전국 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워크숍이나 연수 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횟수나 규모가 미흡한 실정이다.

■ 예술영재교육 내용·방법·평가·환경 표준안 개발과 연수 프로그램 운영

KRIGA는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대로, 학교나 교육청의 예술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기초·심화·전문연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예술영재교육의 특성상 학교 바깥에서 진행되는 비정규 예술영재교육이나 사교육 프로그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영재교육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은 영재의 이해나 영재교육 기초에 대한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 이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절실하며 유익하다. 학교 안에서의 예술영재교육과 학교 바깥에서의 그것이 상호 연계성을 지니게 되면 그만큼 예술영재교육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교육 현장의 지도자들의 교육 수요와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확산함과 동시에 수업 혁신 모형을 모색해 가야 한다.

■ 예술영재교육 현장 밀착형 협업 네트워크 구축

예술영재의 조기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예술영재교육 현장의 노력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RIGA는 (가칭) 전국 예술영재교육 네트워크(교육자 연합회)를 통해 예술영재교육 담당 지도자들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예술영재교육 인력 풀을 확대하며 유능한 예술영재교육 지도자를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재교육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영재교육 우수 교원의 연수와 연찬을 지원하여 국가 차원의 역량있는 예술영재교육 강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KRIGA와 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의 느슨한 연합 혹은 통합으로 예술영재교육연구와 예술영재교육 현장실천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논의도 추진해 가야 한다.

■ 예술영재교육의 또 다른 지도자로서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예술영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원은 물론이고 가정의 학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심리적·문화적 환경은 예술영재의 재능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술영재의 조기발굴과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국 혹은 지역 단위로 예술영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술영재의 특성과 교육 프로그램, 예술영재의 진학·진로·상담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신장하여, 학부모들이 영재교육 현장의 교원들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이에, KRIGA는 예술영재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단기교육을 지원해 가야 한다.

4) 지속성장 가능한 예술영재교육 기반 환경의 조성(Environment)

한국의 예술영재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 환경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최근 세계적으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속에서, 국가 문화예술영재교육을 개별 영재교육기관의 헌신적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문화예술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와 문화예술친화형 사회 여건 조성

예술영재교육은 수·과학영재교육처럼 단기적인 성과나 산출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만큼 예술영재교육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언론, 교육기관,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에서도 문화예술영재 육성을 위해 부처 합동의 협의와 협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언론에서도 대중예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예술영재의 삶과 스토리를 집중 조명하여 미래의 예술영재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 줘야 한다.

한편, 어릴 때부터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역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친화형 사회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기에 예술 활동을 체험하고 참여할 기회를 대폭 늘려줘야 한다. 이러한 사회 변

화는 예술영재의 조기발굴은 물론이고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KRIGA는 예술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업 아젠다의 기획, 예술영재교육 현장이나 영재의 삶을 주제로 한 영상물 제작·보급 등에 노력함으로써,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누구나 쉽게 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예술영재교육 연구·교육 경험의 국제 교류와 K-예술영재교육 브랜드 형성

KRIGA는 한국의 예술영재교육 시스템과 콘텐츠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국제적인 예술영재교육기관과의 학술·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한국만의 독특한 예술영재교육 모형을 글로벌 교육 표준과 연계함으로써 한국형 교육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KRIGA는 예술영재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한국 예술영재교육의 노하우 공유, 예술영재교육 전문가 워크숍이나 학술교류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교육이 추진해 온 STEAM형 융합교육 모형은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예술이 예술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수·과학을 포함해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들과 융합하여 보다 창의적 예술 활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한국형 예술영재교육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4. 예술영재교육의 연구와 실천,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 발굴·선발에서부터 법·제도 개선 및 교육 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모든 계획은 실행에 옮겨질 때 그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숭한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다.

무엇보다, 영재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협된 시각과 오해를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한다. 영재는 극소수의 신동(神童)이나 천재(天才)만 지칭하는 게 아니며, 영

재교육 또한 명문학교 진학용 사다리를 잇는 반(反)평등적 수월성 교육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기여할 교육전사(戰士)를 양성하는 도구주의적 기능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영재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게 돕는 인본주의적 실천 행위 그 자체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정부는 국가 영재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해 가야 한다. 비록 교육부가 국가 영재교육진흥의 총괄 부처이긴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유관 부처들이 수평적 협력체계를 형성해 함께 나서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 부처는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및 각종 영재교육기관들과 수직적 연계성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교육현장에 무리 없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천체물리학자 닐 타이슨(N. Tyson)은 「스페이스 크로니컬」에서 인류의 우주를 향한 모험과 개척 사건들을 여럿 설명해 준 바 있다. 왜 우리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우주에 수십조의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는가? 목전의 성과에 집착한다면 당장 그만 뒤야 할 일이다. 현실에 갇혀 있으면 미래의 진전이 없다. 우주의 신비를 벗기고 인류의 신(新)정착지를 개척하려는 희망과 이상이 있어 가치 있는 일이었다. 새로 발표된 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남다른 기대와 희망을 가져 본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 교육부.
- 최호성 (2023). 한국의 영재교육, 상승곡선으로 반등할 타이밍: 5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과제.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2023.3.30.).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 이승진, 강병직 (2020).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시범적용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과 발전과제

박 지 은(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1. 서론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적인 혁신을 주도할 국가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를 비전으로 한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이 공표되었다(교육부, 2023). 특히, 최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디지털 사회화에 따라 예술, 인문·사회, SW 분야 등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과 영상미디어, 만화 창작, 공연 예술 등 예술 분야 영역의 다양화가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급진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계발을 지원하는 영재교육의 역할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최수진 등,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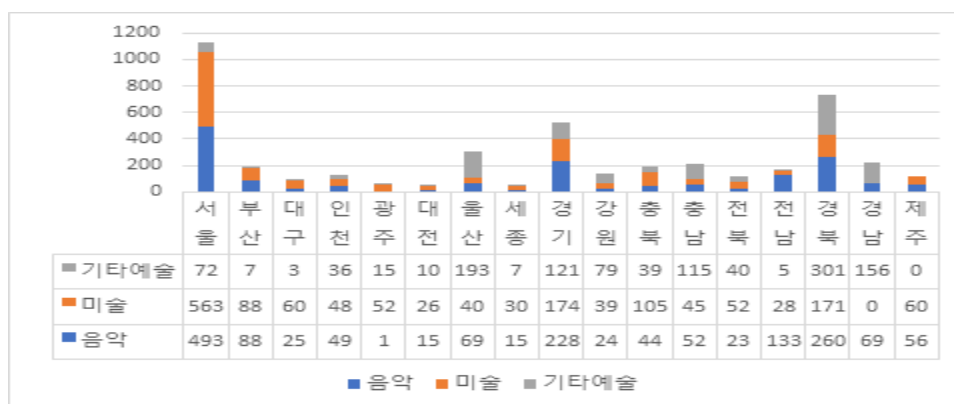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0년 「영재교육 진흥법」과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2003년 19,974명(0.59%)에서 2022년 72,518명(1.37%)로 20여년 동안 영재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오면서 예술영재교육은 전체 영재교육대상자 가운데 음악 2.3%, 미술 2.2%, 연극, 영화, 미디어 등 기타 1.7%로 확대되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a). 이는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다양한 재능 계발 패러다임에 따라 예술 분야의 영재교육기관이 신설 확대되는 등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영재교육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최나영 등(2019)에 따르면 그동안의 영재교육 정책은 예술영재교육의 구조나 생태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분야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예술영재교육에 적절한 실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예술영재교육의 실제적인 방안 도출을 위하여 출발점(Baseline)인 예술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재 선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술영재교육 관계자들(특히, 예술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예술 영재를 둔 학부모, 그리고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교육청별 영재교육을 기획·관리하는 담당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등 전문직)의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이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예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및 실태

국가 통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a)에 따르면 2022학년도 예술영재교육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400여명(음악 1,644명, 미술 1,581명, 연극, 영화, 미디어 등 기타예술 1,199명)으로 전체 영재교육대상자의 6%까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7개 시·도별로 예술영재교육 기회 제공의 편차가 너무나 커서 지역 간 혹은 지역 내에서 예술영재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영재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혜자 대비 가장 적은 수혜자를 비교해보면, 음악의 경우 490배, 미술의 경우 560배, 기타예술의 경우 300배로 학창시절에 (예술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서는) 지리적 요인에 의하여 예술영재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 모습이다.



[그림 V-1] 2022학년도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수(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a)

3. 예술영재교육 관계자들의 선발에 대한 인식

가. 설문조사 개요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영재교육기관의 학생과 수혜 학부모, 영재교육 담당교사 및 담당 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박지은 등, 2022). 조사 방법은 KEDI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이용하여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은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초 분석을 하고, 대상 집단 간 차이는 F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범주형 자료는 교차 및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대상별로 배경 정보, 사교육 경험, 영재교육기관 지원 목적, 영재교육기관 선발 방법,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선발전형에 대한 의견 및 선발 방법 개선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예술분야 관계자들의 시각에서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및 학부모, 예술영재교육 지도교원 및 담당전문직의 조사 결과만을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나. 설문참여자 현황 및 특징

설문조사 참여자는 전국 17개 시도 10,618명으로 학생 3,904명(36.8%), 학부모 4,897명(46.1%), 교사 1,745명(16.4%), 시도교육청 영재교육담당 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는 72명(0.7%)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예술분야 관계자는 7.1%(754명)에 해당한다.

〈표 V-2〉 설문응답자 현황

구분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직	참여자수(%)
설문 참여현황	3,904(36.8)	4,897(46.1)	1,745(16.4)	72(0.7)	10,618(100.0)
예술분야	269(6.9)	331(6.8)	82(4.7)	72(100)	754(7.1)

17개 시도교육청별 예술영재교육 관계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754명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7.6%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15.9%), 서울(12.3%), 경북(11.0%) 순으로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 비율이 저조한 교육청은 [그림 1]에서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적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3〉 예술분야 설문응답자 현황

교육청	학생(N=269)	학부모(N=331)	교원(N=82)	전문직(N=72)	참여자수(N=754)(%)
서울	37(13.8)	29(8.8)	21(25.6)	6(8.3)	93(12.3)
부산	70(26.0)	45(13.6)	-	5(6.9)	120(15.9)
대구	18(6.7)	11(3.3)	3(3.7)	6(8.3)	38(5.0)
인천	26(9.7)	27(8.2)	11(13.4)	5(6.9)	69(9.2)
광주	-	-	1(1.2)	3(4.2)	4(0.5)
대전	3(1.1)	9(2.7)	1(1.2)	2(2.8)	15(2.0)
울산	18(6.7)	17(5.1)	-	2(2.8)	37(4.9)
세종	1(0.4)	2(0.6)	-	1(1.4)	4(0.5)
경기	38(14.1)	76(23.0)	17(20.7)	2(2.8)	133(17.6)
강원	17(6.3)	19(5.7)	-	5(6.9)	41(5.4)
충북	1(0.4)	32(9.7)	6(7.3)	4(5.6)	43(5.7)
충남	-	-	-	5(6.9)	5(0.7)
전북	1(0.4)	4(1.2)	4(4.9)	3(4.2)	12(1.6)
전남	1(0.4)	5(1.5)	-	4(5.6)	10(1.3)
경북	20(7.4)	37(11.2)	16(19.5)	10(13.9)	83(11.0)
경남	5(1.9)	8(2.4)	-	8(11.1)	21(2.8)
제주	13(4.8)	10(3.0)	2(2.4)	1(1.4)	26(3.4)

다.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 결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표3>과 같이(박지은 등, 2022) 대표적인 10개 항목에 대하여 5점 리커트척도로 조사하였다. 영재 학부모 및 영재교육 담당교원과 전문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영재교육

취지에 맞는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라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의 영재교육 관계자들은 “영재성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특수재능, 학문적성, 사고력, 창의성, 동기 등)하는 선발도구를 사용하고 있다.”에 대하여 가장 낮은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예술영재교육 관계자들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절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예술영재 학부모 집단에서 3.48점의 가장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집단에서는 예술영재를 위한 전국단위의 검사도구가 보급되지 않고 있어 “전국 공통 전형일에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활용도가 높고 편리하여 만족한다.”에 대한 평가가 3.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예술영재의 경우 실기평가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영재아들의 공통적인 특징 및 예술영재 발굴을 위하여 잠재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영재교육대상자로서 선발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 받는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 -4〉 대상자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 차이

문항	학부모(M)		교원(M)		전문직(M)	F
	전체	예술	전체	예술		
• 영재교육 취지에 맞는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3.62	3.81	3.59	3.79	3.49	1.720
• 영재성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특수재능, 사고력, 창의성, 동기 등)하는 선발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3.52	3.66	3.60	3.77	3.60	6.348*
• 선발도구에 대한 채점 결과는 신뢰성이 높다.	3.59	3.72	3.91	4.07	3.89	104.284*
•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영재교육대상자로서 선발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3.71	3.85	4.20	4.13	4.29	192.588*
•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일반학생들과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	3.71	3.65	4.19	4.07	4.40	183.950*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절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3.52	3.48	4.26	3.94	4.35	428.910*

문항	학부모(M)		교원(M)		전문직(M)	F
	전체	예술	전체	예술		
• 교사의 관찰추천 선발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도, 편의성 면에서 만족한다.	3.57	3.52	3.73	3.61	3.92	23.763*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해 전국 공통 전형일에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활용도가 높고 편리하여 만족한다.	3.59	3.55	4.00	3.59	4.25	160.481*
• 우리 지역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식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66	3.73	4.11	4.01	4.33	216.086*
• 우리 지역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식은 초·중·고 학교급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62	3.64	3.90	3.84	4.07	71.422*

* $p < .05$

라.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이유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학부모 집단의 주관식 답변을 분석한 결과, ‘선발 과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이 27.3%로 가장 높았다. ‘선발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부족’이 21.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계성 및 지속성 부족’ 및 ‘영재교육의 질 및 진학에 도움 되지 않아서’와 관련된 의견이 12.7%이다(<표 V-5> 참조). 대표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한 학부모는 ‘무용영재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로 인해 지원인원 미달로 모두 합격하여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학부모는 ‘평소 교사의 관찰이 정확하고 믿음직한지가 의문’이며 학교별 격차도 생각해야한다면서 ‘퇴색되고 있는 교사추천서 대신 본인추천 등 자기소개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학부모는 미술영재 선발의 ‘포트폴리오 평가는 대다수의 학생이 학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답변하였다.

교사 집단에서 답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주관식 문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선발 시기에 대한 홍보’와 ‘실기평가 위주의 선발에 대한 타당

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일반 영재와 추천 시기가 다를 경우 지원시기를 놓친 학부모들의 연락을 많이 받는다면 각 학교의 영재담당 교사에게라도 인지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어떤 기관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일반학생들을 구분하지 않고 실기평가를 진행한 후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순위에서 선발하고 있어 공정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재교육 담당 전문직인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예술영재의 경우, 교사가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음악영재교육 담당교사라 할지라도 특별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거나 해당 학생의 공연을 직접 보아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영재 특성만을 관찰 평가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다양한 한계사항에 대해 지적하였다.

<표 V -5>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의 부정적 인식 이유

예술영재 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유	학부모 (N=55)	교사 (N=13)	전문직 (N=15)
• 선발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 부족	12(21.8)	1(7.7)	3(20.0)
• 선발 시기 및 방법 관련 타당성 및 편의성 부족	1(1.8)	8(61.5)	5(33.3)
• 선발 과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	15(27.3)	1(7.7)	3(20.0)
• 대안적 선발 방식 및 다양화 필요	4(7.3)	-	-
• 사교육이나 학원(과외)교사의 높은 의존도	3(5.5)	-	-
• 학교나 담임교사의 관심 부족 및 교사의 실력 차이	5(9.1)	-	-
• 초중고 연계 및 지속성 부족	7(12.7)	1(7.7)	2(13.3)
• 영재교육의 질 및 진학에 도움되지 않아서	7(12.7)	1(7.7)	-
• 기타 영재라고 보기 어려워서, 과중한 업무 등	1(1.8)	1(7.7)	2(13.3)

4. 예술영재교육 관계자들의 선발에 대한 요구

가. 예술영재교육 수혜 학생들의 의견

설문조사에 참여한 예술영재교육 수혜 학생은 269명이다. 남학생 16.4%와 여학생 83%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음악 31.2%, 미술 47.2%, 공연·창작 17.8%, 무용발레 2.2%, 목공 등 기타 1.5%이다. 영재교육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14.9%, 교육청 영재교육원 45.4%, 영재학급 39.8%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비율은 초, 중, 고에서 각각 37.6%, 55.8%, 6.7%로 집계되었다. 영재교육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88.5%, 2년 이상인 경우는 11.5%로 나타났다.

〈표 V -6〉 예술영재교육 수혜 학생들의 배경 정보

구분	성별		기관유형			학교급			영재교육 영역				영재교육 기간		학생 총계(%)	
	남자	여자	대학 영재 교육원	교육청 영재 교육원	영재 학급	초	중	고	음악	미술	공연 창작	무용 발레	목공 등	2년 미만		2년 이상
합계 (%)	44 (16.4)	225 (83.6)	40 (14.9)	122 (45.4)	107 (39.8)	101 (37.6)	150 (55.8)	18 (6.7)	84 (31.2)	127 (47.2)	48 (17.8)	6 (2.2)	4 (1.5)	238 (88.5)	31 (11.5)	269 (100)

예술영재 학생 39.4%(106명)는 대표적으로 예술영재교육기관 입학에 위해서 반드시 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타고난 재능만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레슨을 받고 문제점을 찾아 연습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당연히 사교육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예술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 치러질 실기평가를 위해서는 지정곡이나 자유곡을 완벽하게 준비해야하는데 학교에서는 리코더, 우크렐레, 오카리나 같은 악기의 기초 정도만 알려주고 있어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주장하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악기 실력을 갖춘 후 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60.6%(163명)의 학생들은 사교육이 불필요하며 혼자

연습한 실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했고, 창의성과 배우고자하는 의지를 높게 평가해서 합격한 것 같으며 입학 후에도 충분히 기술적인 습득은 가능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예술영재 선발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합격 커트라인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예술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따르면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뛰어난 실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진정한 영재들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하였다. 더불어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불합격한 이유에 대한 피드백을 희망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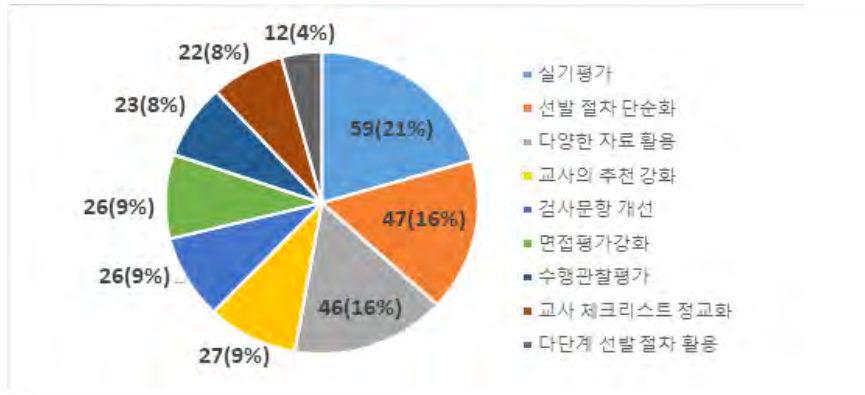
나. 예술영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의견

예술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의 학부모들 중 설문조사 응답자는 331명으로 음악 29.6%, 미술 50.5%, 공연예술 14.8%, 무용발레 4.2%, 애니메이션 0.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19.6%, 교육청 영재교육원 49.2%, 영재학급 재학생이 31.1%이고, 초등학생 52%, 중학생 46.5%, 고등학생 1.5%에 해당한다. 응답자 85.2%는 2년차 이내였으며, 14.8%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예술영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7〉 예술영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배경 정보

구분	성별		기관유형			학교급			영재교육 영역					영재교육 기간		학부모 총계 (%)
	남자	여자	대학 영재 교육원	교육청 영재 교육원	영재 학급	초	중	고	음악	미술	공연 창작	무용 발레	애니 메이션	2년 미만	2년 이상	
합계	38	293	65	163	103	172	154	5	98	167	49	14	3	282	49	331
(%)	(11.5)	(88.5)	(19.6)	(49.2)	(31.1)	(52.0)	(46.5)	(1.5)	(29.6)	(50.5)	(14.8)	(4.2)	(0.9)	(85.2)	(14.8)	(100)

예술영재 선발과정 중 개선사항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43명을 제외한 288명의 학부모는 [그림 V-2]의 항목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먼저 21%(59명)는 실기평가에 대하여 대부분 한 번의 평가보다는 몇 차례에 걸친 좀 더 세밀한 오디션 과정이 있어야 하며, 여러 방면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미술 분야의 경우 소묘가 아닌 여러 분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질도 있어야하지만 개성과 창의성을 볼 수 있는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학원의 도움 여부에 따라 차등 선별을 하되 현장발표회 등으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학생과 같은 의견으로 정원미달의 경쟁률이라도 실기평가가 미흡한 학생은 선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음으로 16%(47명)의 학부모는 선발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접수절차의 간편화 및 선발 홈페이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며 교사추천 없이 간편해졌으면 하는 의견이다. ‘서류전형에서 준비해야할 것이 복잡해서 대부분 학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하였다. 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 지원 후 발표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고, 물리적·심적인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다. 실기고사와 면접을 일원화하거나 선발보다는 예술영재교육 기회 자체가 없으므로 교육하면서 태도나 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인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16%(46명)의 학부모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학생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 재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재성 입증에 위한 자료 제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과제 수행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잠재력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리는 단순 실기시험은 입시와 같은 형식의 평가가 영재교육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각 8~9%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교사의 추천 강화, 검사문항 개선, 면접평가 강화 등은 학교 교사의 관심을 요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추천과 체크리스트 평가, 장래희망만 물어보는 형식 면접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V -2] 예술영재 선발 개선 사항(예술영재 학부모 288명)

예술영재 선발에 대한 학부모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소수정예로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모집 정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과 반대로 장거리 통학의 어려움으로 예술영재교육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비대면 평가의 경우에는 조건제시가 필수적인데 누구는 스튜디오에서 좋은 음향 기계로 녹음 후 전문가의 손길이 있는 것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제출하는 학생 간의 공정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생 수준의 편차가 심하므로 공정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었는데, 합격을 하고서도 탈락자가 없어 엄격하게 선발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며 체계적인 예술영재의 선발과 학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의견

예술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설문조사 응답자는 82명이다. 예술영재교육을 운영하거나 지도하는 교원으로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35.7%, 교육청 영재교육원 56.1%, 영재학급 31.7%로 나타났다. 담당하는 학교급은 초등학교 46.3%, 중학생 51.2%, 고등학생 14.6%로 나타났으며, 지도영역은 음악 54.9%, 미술 51.2%, 공연예술 및 발레 각 1.2%이다.

〈표 V-8〉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들의 배경 정보

구분	성별		기관유형			학교급*			영재교육 영역*				영재교육 경력기간		교원 총계(%)
	남자	여자	대학 영재 교육원	교육청 영재 교육원	영재 학급	초	중	고	음악	미술	공연 창작	무용 발레	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7	55	10	46	26	38	55	12	45	42	1	1	48	34	82
(%)	(32.9)	(67.1)	(35.7)	(56.1)	(31.7)	(46.3)	(67.1)	(14.6)	(54.9)	(51.2)	(1.2)	(1.2)	(58.5)	(41.5)	(100)

* 중복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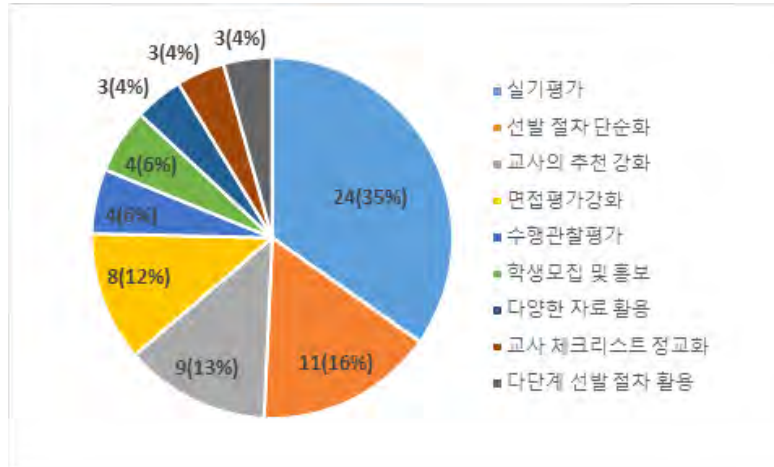
예술영재교육 경력은 1~3년 미만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18.3%로 나타났다. 15년 이상의 경력자는 7%로 5년 이상 예술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원은 41.5%에 해당되었다.

〈표 V-9〉 교원 영재교육 경력 정보

전체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82(%)	14(17.1)	22(26.8)	12(14.6)	15(18.3)	12(14.6)	7(8.5)

선발 과정 중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답한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은 69명으로 [그림 V-3]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35%(24명)의 교사는 실기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는데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1곡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교사가 많았다. 한 음악교사는 “몇 년 동안 연습한 실기곡 1곡만 가지고 각종 콩쿨을 다니며 입상하다가 그 곡으로 영재원 시험 쳐서 들어옵니다. 다른 곡은 연주도 못하고 다시 그 곡으로 졸업하는게 영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실기곡 1곡으로 영재 선발 반대합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정곡의 필요성과 실기평가의 구체화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선발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은 평가인력의 보강과 실기시험 심사비 증액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16%(11명)의 예술담당 교사는 선발 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업무 경감 차원에서 선발 절차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이는 예술영재의 경우 실기능력이 필수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로 실기 외 절차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림 V-3] 예술영재 선발 개선 사항(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69명)

교사추천과 관련해서는 어떤 교사의 경우 “교사 추천의 경우 의미가 없는 단계로 생각된다. 민원이나 학생의 불합격 등을 염려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 영재교육 영역에 맞는 평가 문항을 제공하여 영재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반면, 어떤 교사는 “교사의 추천이나 평가가 객관적이며 비교적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점수의 비중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비밀이 엄격히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으로 교과담당교사의 추천사항이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면접에 대한 의견으로는 “면접을 평가 항목에 넣는 것이 필요하며, 영재교육에 대한 학생의 열의를 알아볼 수 있고 선발이 되었을 시 담당 실기강사 배정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답하였다. 예술영재를 담당하는 많은 교사들은 영재성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학생, 학부모의 의견과 동일하게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각 영재원의 선정심사위원회에

선발관련 규정개정권한을 더욱 확대하여 교육기관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허용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교사 차원에서는 담임추천 업무 삭제, 업무 경감의 필요성에 대해 토로하였는데 예산과 인력 확보, GED 시스템의 복잡함에 따른 항목 축소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 및 선발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여건(거리, 시간 등)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지원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았다.

라. 시도교육청 담당 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의 의견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는 72명이 응답하였으며 남자 40.3%, 여자 59.7%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 중인 영재기관 유형은 대학 영재교육원 4.8%, 교육청 영재교육원 79.8%, 영재학급 13.1%로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관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재교육 경력은 47.2%가 3년 미만이고, 52.8%가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대표적으로 학생 모집과 지도교사를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선발 운영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전반에 대해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으로 선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선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 예술영재교육과 대상자 선발을 위한 발전과제

본고에서는 예술분야 관계자들의 시각에서 예술영재교육의 실제적인 방안 도출을 위하여 예술영재 선발에 초점을 두고 예술영재교육 수혜 학생과 학부모,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및 전문직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 제시하였다.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인식 결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은 영재교육대상자로서 선발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 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영

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절한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술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GED 선발시스템 및 각 예술영재교육기관에서는 예술영재 선발 절차 및 제공할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안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필요시 찾아가는 교사·학부모 설명회를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개최하고,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홍보 영상, 소개 브로셔,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하여 영재교육기관 알리미 서비스 및 GED 선발시스템의 모바일 간략서비스 등 홍보를 확대한다.

‘예술’은 다른 분야의 핵심역량 향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이미경, 2011), 예술 영재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음악, 미술, 연극, 문학창작 뿐만 아니라 국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뮤지컬, 미디어아트 등의 다양한 예술분야로의 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승진, 2020). 실제로도 점차적으로 예술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전체 영재교육대상자의 6%까지 증가되었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도 음악, 무용, 전통예술 외에 영상, 멀티미디어 등의 미디어아트 융합 영역으로 매년 40명씩 선발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b). 특히,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으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영재교육의 방향은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재능, 창의력, 끊임없는 노력 등으로 개성을 담아낼 수 있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개별화 맞춤형 교육 등 영재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여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예술영재교육 기회가 저조한 지역에서는 더 큰 관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술분야 영역 다양화를 통하여 시대적 흐름과 학생들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술영재 선발 분야와 관련하여 이전 미술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선발시 세부 전공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감상, 미디어 등으로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이미경, 강병직, 2010). 하지만, 예술분야는 발달 수준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능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실기평가 또는 실기평가의 일환인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의 비중을 높여 선발하고 있다(강주희,

2018). 따라서 영재교육관계자들이 제기한 수준 높은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이 제대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관유형별로 실력 수준과 목적을 분명히 공고하여 인원 조정 및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위수준의 고도영재 특성 및 발굴을 위한 노력(연구 수행, 고도영재 체제구성, 상담, 지원체제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반면에 물리적인 여건 및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예술영재교육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예술영재교육 기관의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년 현재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은 8개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세종, 경남, 광주지역캠퍼스 확대 운영은 지역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예술영재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잠재력이 평가되어야 함에도 동일 분야의 담당교사라 할지라도 세부 전공이 다양하여 관찰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실기평가가 당락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실기전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예술 분야별 특성 및 각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발모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06)이 제시한 예술영재의 발달적 차원에서 발달지향수준, 영역지향수준, 분야지향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선발하고 오디션 위주의 선발을 넘어 다층적인 과정을 활용해볼 수도 있겠다. GED 자기소개서의 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지원동기 중 일부 사례⁶⁾를 살펴보면 더라도 영재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사항이 학생마다 다름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미술수업이 조금 깊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기대 이하였습니다. 저의 재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예술 활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고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소묘나 입시에 맞춰진 분야가 아닌 다양한 것을 배우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배운 그림들보다 더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6) 교육부(2022). 영재교육의 이해와 운영의 실제 11차시. 예술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 중 일부 발췌

따라서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처럼 지원 서류 간소화 및 선발 절차 단순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되 개인성장스토리가 담긴 포트폴리오나 연주 영상 등 영재성 입증자료들이 공정성 있는 범위에서 참고가 되고, 실기 전형과 면접 등 다면적 방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선발 방법이 도출되어야 한다. 더불어 영재 학습자가 입학 후에 제공받을 영재교육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기관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함께 세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학생들이 영재교육기관에 지원시 재능 수준과 진학·진로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재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각 예술영재교육기관에서는 선발과 영재교육 체제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여 선발 절차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a). **2022 영재교육 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22b).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성과 현황자료 2022**. 한국교육개발원(CRM 2022-125).
- 박지은, 최수진, 전정희 (2022).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개선 방안: 교육청 영재 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CTR 2022-77).
- 이미경, 강병직, 조주현, 홍소영 (2006).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 ①**.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미경, 강병직 (2010).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CR 2010-18).
- 이미경 (2011). 미국의 예술통합교육과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 38(3), 33-52.
- 이승진 (2020). 예술융합영재교육에 관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인식 및 요구. **예술 영재교육**, 4, 31-55.
- 최나영, 이경진, 김성혜 (2019).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예술분야 실행 방안 탐색. **예술교육연구**, 17(4), 19-39
- 최수진, 박지은, 이미나, 임선빈, 문대진 (2023).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CRR 2023-13).

예술분야 소외영재 발굴 및 육성 방안

류 지 영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1. 시작하면서

수련 그림으로 유명한 프랑스 인상주의 대표적인 화가 모네는 18세가 되던 해 유일하게 자신의 그림 재능을 인정해 주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무섭기만 한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끊자, 르 아브르에서 풍자만화를 그리면서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유명 화가였던 외젠 부댕(Eugène Boudin)이 우연히 모네의 풍자화를 보게 된다. 그는 한눈에 모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제자로 삼았다. 훗날 모네는 이 순간을 “마치 내 눈앞의 커튼이 걷힌 것 같았다.”고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한 사람의 화가가 된 것은 모두 외젠 부댕 덕분”이라고 했다.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던 모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다른 화가들과 어울리도록 도와 준 부댕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네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럼 모네를 화가의 길로 이끈 멘토 부댕은 처음부터 화가의 길로 잘 들어섰을까? 부댕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문방구에서 조수로 일하면서 가게를 오가던 화가들을 보면서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20살이 된 부댕은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게 되는데, 이때 그의 그림을 본 두 화가가 부댕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림을 그려 보라고 권유하는데, 이들이 밀레와 쿠튀르였다. 2년 뒤 부댕은 장사를 접고 르 아브르에 있는 미술학교에 입학하는데, 쿠튀르는 가난한 부댕이 미술학교에서 매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밀레와 쿠튀르가 부댕에게 행운의 손을 내밀었듯이, 부댕은 모네에게 행운의 손을 내밀었다. 재능은 있으나 어려운 상황으로 꿈을 펼치지 못한 천재를 천재가 알아보고, 서로 손을 잡아준 것이다.

피아노 연습곡으로 유명한 체르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상류계층의 음악교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그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유명한 제자는 프란츠 리스트라 할 수 있다. 어느 날 리스트의 아버지는 리스트의 교육을 위해 체르니를 찾아온다. 당시 리스트 가족의 경제사정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체르니는 리스트의 재능을 눈여겨 보고, 교육비를 전혀 받지 않고 피아노를 가르쳐주었다. 리스트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후에 파리에서 공연을 할 때 체르니가 작곡한 곡들을 자주 연주하였고, 1852년에 출판한 그의 유명한 '12개의 초절기 교 연습곡'을 스승인 체르니에게 헌정하기도 하였다. 리스트가 연주와 작곡으로 유명해 지고 난 후에는 많은 동료, 후배 작곡가들의 스승이자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였고 각종 음악사업을 추진하는 데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헝가리의 수많은 대 작곡가를 배출한 헝가리 국립 음악학교(Hungarian National School of Music) 또한 리스트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체르니의 리스트에 대한 지원이 많은 음악가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영재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서, 우리들은 재능이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빛을 보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운이 좋게 주변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운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역사에 남아 그런 착각을 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재능이 있는 지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사라져 버린 천재들이 더 많다. 현실은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림을 인정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라진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다. 예술적 재능을 타고 났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제2의 부댕이 되고 체르니가 되어야 한다.

2. 예술분야 소외영재는 누구인가?

한국의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대부분 수학, 과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교육 영재교육 분야에서 예술분야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 비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2년 현재 공교육에

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에서 수학과 과학, 정보 분야의 영재교육은 전체의 거의 70%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음악 2.3%, 미술 2.2%로 두 분야를 합쳐도 전체의 5%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예술분야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학생이 처한 환경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예술 영재성의 계발은 달라질 수 있다. 예술에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지만 이곳에서의 학생 선발은 음악의 경우, 지정된 곡을 한 번의 실기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집중적 지원과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주류 계층에서 벗어나서 여러 교육과 환경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들은 예술적 재능을 계발할 기회를 갖기 힘들뿐만 아니라, 문화 소비자로서의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한다. 그들은 여러 조건으로 인해 학교 밖의 문화예술 경험의 다양한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체득하기 보다는 사교육과 사적 체험을 통한 문화 자본의 축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이호영, 서호석, 2011), 학교에서 문화 예술 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물질적, 정서적인 제약으로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문화예술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조차 없다면 재능계발은 요원한 일이 된다.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은 이들의 예술 영재성을 발굴하고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목적 외에도, 이들이 처한 환경적인 영향으로 갖게 되는 낮은 자존감, 낮은 학업 성취도, 반사회적 행동, 낮은 친사회적 행동 경향,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형태(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중 교육 프로그램의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음악 분야이다. 음악 분야는 악기를 연주하는 개별적 역량 향상 외에도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의 성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에 본 글에서의 예술영재교육은 주로 음악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 교육의 효과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음악 교육을 비롯한 예술적 활동에의 참여가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과거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음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이선화(1999)는 음악은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합창단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참여자의 75%가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으며, 49%는 정신적(spiritual)으로 더 성숙해졌다고 응답하였다(Cliff & Hancox, 2001). 음악 활동은 또한 감각적인 활동으로 이해력, 사고력, 집중력을 향상시키며(Hallam, 2010; 이선화, 1999; 정미라, 2006),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업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음악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추론(reasoning)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Bilhartz, Bruhn, & Olson, 1999), 시공간 추론 능력(Rauscher, Shaw, Levine, Wright, Dennis, & Newcomb, 1997), 언어적 기억 능력(Ho, Cheung, & Chan, 2003), 언어 발달, 읽기, 셈하기(Hallam, 2010) 등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습 동기, 학습 태도, 학습 행동, 학습 기술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 점수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여러 연구들을 보고하고 있다(심수민, 2008; 양종모, 2001, Fitzpatrick, 2006; Southgate & Roscigno, 2009). 또한 음악 참여를 통한 성취감은 긍정적인 자기만족, 자기 인식, 자기 효능감, 강한 동기 부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Hallam, 2010).

음악과 아동 발달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 연구를 정리한 Hallam(2010)에 의하면, 음악 집단 활동은 사회 기술을 습득하고 팀워크를 배우며 협동심을 발달시키는데 장점이 있다고 한다. 특히 연주회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의 목표를 위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생각이 비슷한 또래들 간에 관계 형성과, 사회 관계망, 소속감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히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선화, 1999)에 따르면, 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물질 자원의 부족,

도움 받는 것의 익숙함, 낮은 자존감,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타인을 돕고(helping), 자신의 것을 나누며(sharing), 타인을 위안하거나(comforting), 협동하기(cooperating)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은 편인데, 음악 집단 활동은 이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집단음악 활동은 팀원간 협동 및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고, 사회적 승인을 통한 성취감, 집단의 소속감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선화, 1999).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활동은 음악에 영재성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음악집단 활동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감,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향상 등을 위해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여러 사회복지현장에서 취약 계층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공동체 의식 향상 등을 위해 합창단, 현악 오케스트라, 관현악 오케스트라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예술분야 소외영재교육의 국내·외 현황

가. 음악분야 소외계층을 위한 국내 프로그램

음악영재들을 위한 교육의 경우, 국내에서는 예술 특성화 중고등학교, 특정 기관의 산하에서 운영되는 음악영재교육원 등의 교육방식 프로그램이 있고,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의 금호영재 콘서트와 같이 연주 관련 내용을 지원해 주는 지원방식의 프로그램이 있다. 금호영재콘서트는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영재발굴사업 중 하나로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예술, 학술 등의 발전을 위한 문화 관련 활동의 참여 및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음악영재지원 프로그램인 금호영재콘서트는 14세 미만의 음악영재를 선발하여 음악영재가 ‘무대경험’이라는 동기부여를 통해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주 및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 지원한다. 금호영재콘서트의 경우, 지원 자격을 저

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따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선발 과정이 1시간 가량의 독주 역량을 보기 때문에, 사교육 개입이 거의 필수적이다.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로 한때 유명했던 문지영 피아니스트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경우가 불가능한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이나 주변의 지원이 없이는 음악적 역량을 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주로 음악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음악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중 음악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두 종류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 첫째는 일정비율을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아에게 배정하여 일반 영재 선발에 포함시켜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과 영재 교육원으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영재학급을 편성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적 배려대상을 정원의 10~20%내에서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들만 지원받아 선발하는 방식(이선영, 2012)으로 지원자격은 교육(지원)청 산하 기관들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명시한 정의를 참고하지만, 많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을 우선적으로 최종선발 정원에 포함하거나 생활보호대상 아동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별전형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악 영재교육관련 기관과 마찬가지로 연주능력에 큰 비중을 두어 판별되고 선발하고 있다(이선영, 2012).

사회적 배려대상 음악영재들만을 위한 교육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건국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중증장애인)와 교육기회균등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회균등 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중증장애인 까지도 포함하여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방과후나 주말에 전공별 실기지도와 이론 그리고 기초예술성과 반성적 사고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수업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음악적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을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의 ‘꿈의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세종문화회관 지원의 ‘세종 꿈나무 하모니 오케스트라’, 서울시(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예술학교 (구.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의 ‘하모니네이션’, 함께 걷는 아이들의 ‘울키즈스트라’ 등 민·관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1)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El Sistema)를 벤치마킹하여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총 51개 기관에 3,000여명의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다. 지역문화재단과 국공립교향악단, 문예회관 등의 운영주체가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이나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차상위, 조손, 다문화, 한부모가정 아동, 장애아 및 기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초등학교생을 단원으로 하며, 파트별 책임강사,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음악적 성취보다는, 음악 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 고취와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활성화이고, 이 목표에 맞추어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및 특별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2) 세종문화회관 ‘세종 꿈나무 하모니 오케스트라’

세종문화회관의 청소년 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창단한 ‘세종 나눔 앙상블’에 이은 세종문화회관의 두 번째 한국형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며, 2010년 서울지역 8곳의 지역아동센터 소속 45명의 아이들로 시작하였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기관들을 이용하는 문화소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매 해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한다. 문화소의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음악을 배우며 함께 어울려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의 예술기량 함양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음악적 경험

을 통해 단원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연습시설을 활용하고 전문강사의 교육으로 연주회를 하고 있어 소속 학생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다.

3) 서울시(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예술학교(구.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2009년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공익교육 형태의 문화복지사업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특별시와 시범자치기구의 유기적 협업체제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2014년부터 ‘우리동네 예술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은 자치구에서 직접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관리 감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3~6학년 중 사회취약계층 아동이 주 대상이다. 8개 자치구에서 약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등록하여, 오케스트라, 뮤지컬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학생 교육은 사회취약계층 아동 60% 이상을 포함해 서울시내 초3-중2(신규 선발은 초3-초6까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교육, 뮤지컬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주 및 공연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주 2회, 회당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고 자체 발표회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음악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4)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하모니네이션’

‘하모니네이션’은 하모니(Harmony)로 이루어진 나라(Nation)란 뜻이다. 2008년에 시작한 ‘M4ONE 아카데미’의 뒤를 이어 2013년부터 진행된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이다. 하모니네이션은 OECD의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와 STEAM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 18개의 교육센터에서 주변 지역 거주자, 혹은 교육 장소까지 이동이 가능한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악기교육, 오케스트라 연주, 봉사활동 등 음악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시민으로써 사회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지적 성장의 기초단계를 위하여 ‘흥미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공연 예술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풍요로운 문화적 접근과 음악적 배움을 통하여 음악에의 동기유발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료교육(연회비, 월회비, 개별악기구매, 교재비 등)을 기본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반액 지원 혹은 정부사업 및 기업 후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월회비는 6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5) 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스트라’

‘모든(All) 아이들(kids)의 희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의 올키즈스트라(Allkidstra)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에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이다. 2009년 ‘지역 아동·청소년 관악단’(Community Youth Wind Orchestra)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이들 중 오디션을 통하여 정예단원을 선발, 상위관악단(Honor Band)를 창단하였다. 현재 올키즈스트라는 상위관악단과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나무반, 올키즈스트라를 통해 음악을 전공하고자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전공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개 지역관악단과 5개 미니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13개의 기관에 연주활동을 지원하는 음악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키즈스트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악기지원, 악기교육, 합주, 관악단 활동의 경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등의 통합적인 음악교육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악기를 통해 연주와 관악단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화로운 삶’과 ‘배려’를 학습하게 한다. 음악가로 성장하게 하는 목적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양보하고 협동하면서 전체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데 더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음악을 통한 정서순화와 전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나. 음악분야 소외계층을 위한 외국 사례

예술분야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중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엘 시스템아(El Sistema)이다. 1975년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였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베네수엘라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설립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스페인어로 시스템을 의미하는 엘 시스템아는 마약과 폭력 등의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아동과 사회를 함께 변화시켜 가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두다멜이 탄생했다. 엘 시스템아에 자극을 받은 여러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각 나라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라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

1) 영국 사례, ‘시스템아 스코틀랜드(Sistema Scotland)’

시스템아 스코틀랜드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엘 시스템아형 프로그램으로, 현재 회장인 리처드 홀로웨이(Richard Holloway)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를 롤모델 삼아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2008년 4월 당시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장이었던 홀로웨이는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래플록(Raploch)에 첫 파일럿 프로젝트로 현악앙상블 ‘더 빅 노이즈(The Big Noise)’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역 민간단체들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의 형태로 학교 공간에서 레슨, 합주가 이루어진다.

이 사업의 미션은 음악을 통하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변하며,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이루며,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누구나 함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미래의 오케스트라를 양성하는 것이다.

목표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의 팀워크, 규율, 집중도를 향상하고, 연주활동 기회와 무대경험을 통하여 아이들의 자존감, 자신감, 미래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키고,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오케스트라 센터를 확대설립하며,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족 응집력이 향상되며 더 나아가 지역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1,200여명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학기중 주3회, 총 7시간의 그룹레슨과 주 30분의 개인레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연 참관 및 무대 연주를 연간 최소 6회이상 실시하며 부모들을 성인오케스트라에 참여시켜 아이들이 받는 음악교육을 경험하게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강사들의 역량 개발 교육 진행, 연금, 휴가 등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 점이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 2022년 6월, 영국 정부는 ‘음악 교육을 위한 국가 계획: 삶을 변화시키는 음악의 힘’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30년까지 정부의 우선순위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에 두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현재 2024년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뮤직 허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 캐나다 사례, ‘시스템마 뉴브런스윅’

캐나다의 대표적 엘 시스템마 교육사업인 ‘시스템마 뉴브런스 워크’는 2009년에 시작하였다. 주정부와 지역 민간단체들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데, 뉴브런즈윅 주정부에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민간 지역의 여러 후원으로 운영 중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역사회 아이들이 ‘뉴클리오’라고 불리는 센터로 모여 레슨과 합주에 참여한다.

이 사업의 미션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의 삶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초등학교 1-4학년 아동 1,000여명이 참여하여, 방과 후에 무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주 5일, 하루 3시간 그룹레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센터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레슨한다. 성공요인으로서는 지역사회 파트너십(지방정부, 학군, 학교, 다문화단체 등)과 많은 레슨 횟수와 연습량을 교육시스템의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연주 기술뿐 아니라 자세, 습관, 상호존중, 협동심 프로그램의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3) 미국 사례, ‘YOLA (Youth Orchestra LA)’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기획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국 LA지역의 엘 시스템아 형 프로그램이다. LA 필하모닉의 기획으로 시작되었고, 시의 지역 내 커뮤니티 센터(주로 공간을 지원)와 음악교육의 콘텐츠가 있는 교육센터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주요 골자로 운영된다.

YOLA는 삶을 바꿉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한 아이의, 한 가정의, 한 지역 사회를 동시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문화소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악기 교육을 제공하며 자기 계발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오케스트라를 구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LA카운티의 소외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 및 지역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LA지역 2-17세의 62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 5일 방과후에, 평균 주 12시간 이상의 레슨과 합주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음악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튠 업 필라델피아(Tune Up Philly, 이하 튠업 필)는 2010년 필라델피아 청소년 오케스트라(Philadelphia Youth Orchestra, 이하 PYO)에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으로, 오케스트라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음악 기술을 기르기 위해 구성한 PYO의 6개의 양상블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의 미션은 아이들의 팀워크 향상, 자존감 향상에 최적의 도구인 음악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이다. 목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과 후 음악수업이라는 차별화된 음악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협동심, 팀워크, 학업 성취 및 자아 존중감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내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는데 목표가 있다. 필라델피아 지역사회 아동 약 2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 3회 회당 2시간의 방과후 레슨과 주1회 토요일 합주연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4) 콜롬비아 사례, ‘몸의 학교 무용단(el Colegio del Cuerpo)’

콜롬비아 ‘몸의 학교 무용단(el Colegio del Cuerpo)’은 무용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 및 공동체의식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이다. 몸의 학교는 1997년 콜롬비아의 항구 도시 까르파헤나 데 인디아스에서 개교한 콜롬비아 최초이자 유일의 예

술대안학교이다. 당시 콜롬비아는 오랜 내전과 불평등 및 빈곤, 차별에 시달리는 빈민 아동들을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교육으로 빈민가를 예술교육의 요람으로 변화시켜 왔다. 몸의 학교 교장은 무용수이자 안무가, 교육자인 마리 프랑스 드리유방(Marie France Delieuvin, 프랑스)과 알바로 레스트레포(Alvaro Restrepo, 콜롬비아)이다. 콜롬비아는 40년이 넘는 내전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중 하나로 중·고등학교 취학연령의 45%가 공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콜롬비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윤리적 위기가 인간 몸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이름을 몸의 학교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 학교의 교육철학은 통합신체교육을 통해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예술, 학문과 지식, 신체기술 등 인류가 쌓아온 다양한 유산을 통합하여 교육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예술적 시민 양성과정인 춤을 통한 교육, 예술가 시민 양성 과정인 춤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몸의 학교는 초기의 방과후 학교 성격에서 독자적인 교육기관으로 진화해 왔다.

춤을 추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과 존중을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전쟁과 가난 속에서 꿈을 찾고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준다. 다함께 춤을 추고 호흡을 맞추고 춤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전제로 하고, 앞뒤 간격을 조절하고 눈빛을 맞추면서 서로를 이해해 간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타인과 공감하고 함께 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예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 양성교육을 이루는 것이다.

5) 독일 사례, ‘문화는 힘이다’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교육

독일 국립교육보고서는 독일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약 3분의 1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저소득층, 부모의 실업 및 이민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문화는 힘이다(Kultur macht stark)’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독일 최대 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3-18세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문화 교육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해 주는 것으로, 단순히 아이들에게 문화를 접하는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창의력을 기르고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는 힘이다’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아이들에게 후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주말 활동 음악, 무용, 연극 등의 활동과, 댄스교실에 참여하거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박물관과 극장, 도서관을 방문해 다양한 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환경에 상관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 94%가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문화교육을 전혀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89%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90%는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5. 예술분야 소외영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영재성은 영역에 상관없이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발달한다. 한 영역에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잠재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어떠한 기회에 누군가에 의해 그 재능과 잠재력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발달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다. 학자들은 예술을 비롯한 여러 영역의 영재성은 타고난 능력뿐만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인 특성들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재능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음악과 과학 영역을 비교해 살펴보면, 영재를 육성하는 방식에 공통점이 많다.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NEC)의 러셀 셔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 스승인 에드워드 스토이어먼은 셜록 홈즈의 추리소설을 많이 읽으라고 권했다. 탐정이 사건의 단서를 찾듯이 세상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능력을 키우라는 이유에서이다. 연주자도 그런 태도로 끊임없이 음악, 미술, 문학, 자연을 관찰해야 한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 열정, 통찰, 창의력, 상상력, 끊임없는 노력,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개성을 담아내는 것을 강조하는 점은 음악과 과학은 물론이고, 미술, 문학 등 영역에 관계없이 영재들을 위한 모든 영역의 ‘교육’에서 강조되는 점이다. 이런 열정과 호기심이 길러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열정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접근과 기회의 포착이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재능을 계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예술의 경우 그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국가나 기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음악계에서 슈퍼 스타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전국 초등학교와 아파트 근처에 산재해 있는 음악 학원들과 수준높은 원장님들의 안목이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재단이나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예술을 알리고 그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음악이나 미술은 여전히 비용적 측면에서 기회를 잡기 어려운 분야인 것이 사실이다. 제2, 제3의 조성진, 임윤찬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공립학교 차원에서 재능 발굴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LA 필하모니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를 통해 재능을 개발한 것처럼 우리도 공립 초등학교에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 각 지자체나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예술교육보다 더 대중적이고 기초단계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술분야의 재능을 찾는 학생의 수도 늘어나고, 클래식 음악이나 미술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늘어나서 예술계가 더욱 풍성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예술단체들 중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의 특성을 잘 살펴서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사업의 성과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조사한 한 연구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업의 목적과 가치에 공감하고 애정과 열정을 쏟는 것’을 꼽았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사업의 목적을 단순히 음악적 역량 향상에만 두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아동 내적 성장에 두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취약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유스 오케스트라(Metropolitan

Youth Orchestra MYO)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연구(Clements, 2006)에서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높은 헌신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지도하는 강사들의 지도 방법이나 성품 및 태도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위해 조직내·외에서 선후배 강사들간의 동료장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사의 애정과 열정 못지않게 아이들의 출석률, 실력 향상, 연습, 흥미 및 재미와 같은 아동의 심리적 자세도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아이들의 꾸준한 참여 및 연습을 전제조건으로 연주 실력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즐거움, 성취감을 느낄 때 더욱 더 오케스트라 활동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이는 더 높은 차원의 아동의 태도 변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의 노력과 함께 주변 부모나 보호자의 관심과 지지가 함께 필요하다. 연구들은 소외계층 예술 교육에서 부모참여(parental involvement)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Clements, 2006), 아동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부모들이 아동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언하고 있다.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자아 표현 능력, 통합적 사고력, 다양성과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소통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민주 문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아동들의 집중력과 잠재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통합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예술은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지식을 삶과 연결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특히 사회,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결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은 우울과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내적인 측면과 대인관계 등의 외적인 측면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청소년기와 성년기, 생애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이에스더, 홍정은, 2012). 또 다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위축과 소외감을 느끼는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예술 교육은 이 분야에 대한 재능 개발과 함께 자아존중감 향상과 창의성,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양시켜 준다는 점에서 권장되어야 하는 활동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김현남, 2011).

이처럼 예술교육은 소외계층 영재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더 많은 예술영재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도록, 국가와 학교,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는 더 많은 예술영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잠재력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과 노력 및 관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현남 (2011). 무용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9(3), 69-83.
- 심수민 (2008). 초등학교의 관현악 합주 활동이 인지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음악융합연구**, 1, 87-105.
- 양종모 (2001). **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계연구(1): 한국 초중등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양적 접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선영 (201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판별모형 개발. **영재교육연구**, 22(1), 87-115.
- 이선화 (1999). 시설아동을 위한 음악활동 중심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교육**, 8(1), 131-142.
- 이에스더, 홍정은 (2012). 방과 후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설계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0(1), 65-92.
- 이호영, 서우석 (2011).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5(1), 91-118.
- 정미라 (2006). 음악교육에서의 반주매체가 유아의 음악적 흥미와 능력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413-433.
- 정여주, 정현주, 김나영 (2007).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 치유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미술교육논총**, 21(1), 265-288.
- Bilhartz, T. D., Bruhn, R. A., & Olson, J. E. (1999). The effect of early music training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615-636.

- Clements, G. L. (2006). String training programs for underrepresented youth in American orchestras: Success factors in a metropolitan youth orchestra community program.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62.
- Clift, S. M., & Hancox, G. (2001). The perceived benefits of singing: findings from preliminary surveys of a university college choral society. *Th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121(4), 248-256.
- Fitzpatrick, K. R. (2006). The effect of instrumental music particip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on Ohio fourth-, sixth-, and ninth-grade proficiency test performa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4(1), 73-84.
- Ho, Y. C., Cheung, M. C., & Chan, A. S. (2003). Music training improves verbal but not visual memory: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plorations in children. *Neuropsychology*, 17(3), 439.
- Hallam, S. (2010). The power of music: Its impact on the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8(3), 269-289.
- Rauscher, F., Shaw, G., Levine, L., Wright, E., Dennis, W., & Newcomb, R. (1997). Music training causes long-term enhancement of preschool children's spatial-temporal reasoning. *Neurological research*, 19(1), 2-8.
- Southgate, D. E., & Roscigno, V. J. (2009). The impact of music on childhood and adolescent achievement. *Social science quarterly*, 90(1), 4-21.

잠재적 예술영재 교육참여 기회 확대 방안

손 영 은(KIPA 창의발명연구실)

1. 들어가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이하 KIPA⁷⁾)는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창의발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발명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발명교육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현재는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舊 발명교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특허청과 KIPA는 발명영재교육의 주무 담당 기관으로서 개별 발명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던 발명영재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발명영재 양성을 위한 추진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 및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8~‘22)」 뿐만 아니라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3~‘27)」 수립 및 구체화를 위해 영재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 및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2012년에는 발명(영재)교육에 큰 전기(轉機)가 마련되었는데 특허청과 KIPA는 발명영재교육과 발명교육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명영재교육연구원(現창의발명교육연구실)이 설립되었다. 설립 배경으로는 먼저 지속적으로 발명교실·발명영재학급 수, 발명대회 참가자 수 증가 등 창의발명교육의 수요 증가가 있었고, 발명교육 및 발명영재교육의 체계적이고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 증가도 상당히 중요했다. 또한 과학, 예술 등 다른 영재 분야가 ‘영재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영재교육의 타당성 확보와 교육의 질적 향상

7)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도모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한 것도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였다. 발명영재교육연구원(現창의발명교육연구실)은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그 설립목적과 비전 및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설립목적)** 창의발명연구실은 효율적인 발명(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발명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반적인 발명교육의 진흥을 도모한다.
- **(비전)** 미래를 주도하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 인재 양성
- **(주요 기능 및 역할)**
 - 국가 수준에서의 발명(영재)교육 정책수립 방향 제시와 기초연구
 - 영재판별 및 영재교육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 발명교육지원시스템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교원연수 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 발명영재 교육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발명(영재)교육은 특허청과 KIPA가 주축이 되어 추진을 하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발명과 특허 등 분야의 특성상 산업계와의 연계도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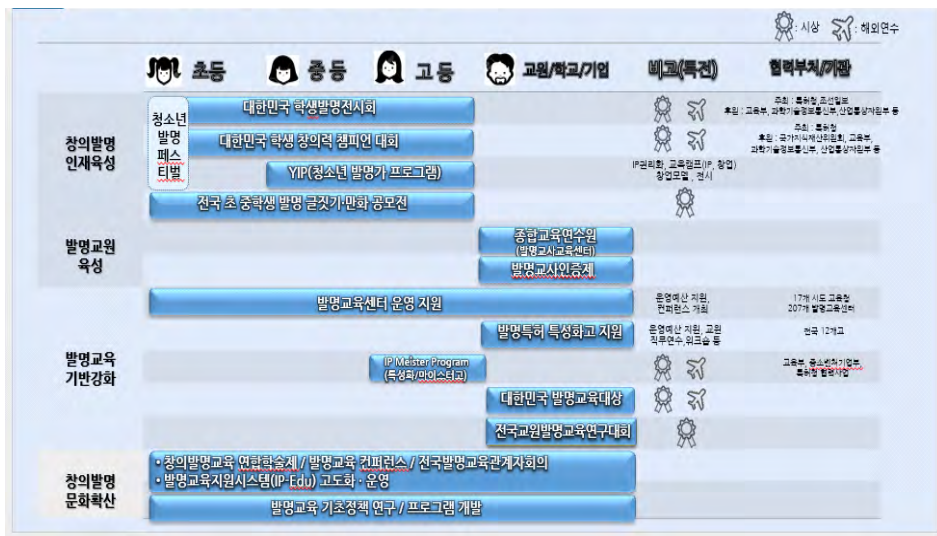
[그림 V-4] 발명(영재)교육 추진 체계

KIPA 창의발명연구실의 발명(영재)교육의 운영방향은 ‘미래를 주도하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①창의발명 인재육성, ②발명교육 기반 강화, ③발명교원 육성, ④발명교육 연구와 문화 확산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V-10〉 창의발명연구실 주요 업무 영역

영역	주요 추진 내용
창의발명 인재 육성	•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청소년의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시상하여 미래 핵심인재인 차세대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 팀 단위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발명인재를 발굴 및 시상하여 청소년 발명문화 확산 •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우수한 발명 역량을 가진 중·고 재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명·특허 심화교육, 지식재산·창업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미래 발명가로 양성 •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사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융합교육 등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세대의 창의적인 기업인으로 육성 • (발명체험교육관) 체험형·심화형 교육을 통한 광역단위의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차세대 혁신가로 육성
발명교육 기반 강화	•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지역의 균형 잡힌 발명교육 저변 구축 및 확대, 창의발명인재 조기 육성 및 발굴 • (발명·특허 특성화고 운영 지원) 특성화, 마이스터고 대상 발명·특허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의 직무발명능력과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산업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 •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아이디어 선발 및 지식재산 창출 프로그램 제공 통해 직무발명 역량 갖춘 예비 기술 전문가 양성 • (대한민국 발명교육 대상) 발명교육 및 발명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교원 발굴 및 시상함으로써 발명교원의 사기 진작 • (지식재산일반 확산 사업) 지식재산일반 확산 위해 선도학교 지정, 교수학습자료 개발, 홍보 등 사업 수행 • (전국 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발명교육 현장의 교수, 학습 등에 관한 연구 발굴 및 발명교육 지도교원의 연구능력 제고, 새로운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을 통한 발명교육 저변 확대

영역	주요 추진 내용
발명교원 육성	• (종합교육연수원) 전문지식을 갖춘 발명교사를 양성하여 발명교육의 저변확대 도모 • (발명교사교육센터) 전국의 교대, 사대 중 3개 대학을 권역별 발명교사육성 거점대학으로 선정, 발명교사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우수 발명교사육성 및 권역내 발명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발명교육 활동을 지원 • (발명교사인증제) 발명교육에 관심 있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발명교육 역량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여 우수 발명교사로 양성·활용하기 위한 발명교사용 인증제도
발명교육 연구 & 문화 확산	• (발명교육 기초·정책연구) 최신의 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발명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능정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핵심 역량을 제고하는 발명활동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확산 • (학술협력학회 발명교육 연구 지원) 학술교류 기회 마련을 통한 발명교육 인식 제고 및 학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발명교육의 학술 발전환경 조성 • (창의발명교육 연합학술제) 발명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학술 기반의 발명교육 축제’이며, 발명교육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장 - 학생 & 학부모, 교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그림 V -5] 발명(영재)교육 대상 사업별 추진 맵

본 고에서는 상단 <표 V-10>에 제시된 KIPA 창의발명연구실 주요 업무 중에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이하 KRIGA) 현황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고려해 볼 만한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소개하고 필자가 이 사업을 직접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KRIGA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의 균형 잡힌 발명교육 저변 구축·확대 및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재로 창의발명인재 조기 육성 및 발굴을 위해 전국적으로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해왔다. 원래 발명교육센터는 1995년 시범적으로 서울 봉천중학교(현 인현중학교)에 설치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설치되었다. 초기에는 전국 시·군·구 교육청별로 1개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2006년까지는 총 182개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발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였다. 2006년부터는 전년도 실적 평가를 통해 등급별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운영 활성화 예로 설치 초기에는 1회 2~3시간의 교육을 통해 발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초·중·고급 3단계 교육과정을 10~40시간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발명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그 지역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특허청 백서, 2021). 이런 노력의 결과로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발명교육센터를 추가 개소한 것까지 포함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총 207개의 발명교육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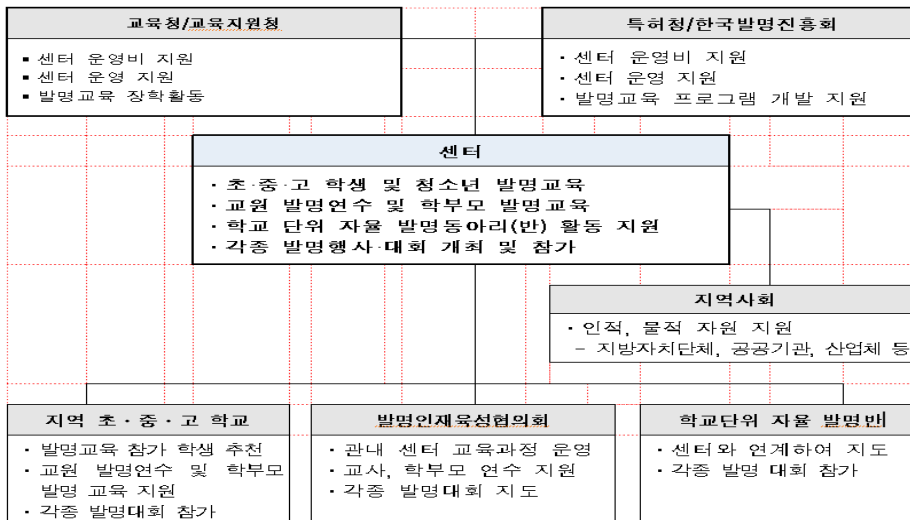
가. 발명교육센터 사업 추진 체계

발명교육센터는 초·중·고 학생 대상의 청소년 발명교육과 교원 발명연수 및

학부모 발명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되 교육청, 지역 초·중·고 학교, 발명인재 육성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기관별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V-11〉 발명교육센터 기관별 세부 업무

기관	세부 내용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센터 운영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센터 운영 예산 확보 및 편성, 교부(→ 한국발명진흥회) • 센터 운영실적 평가 등
한국발명 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 센터 운영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운영비 교부(→ 센터) 및 실적/정산 보고(→ 특허청) • 센터 현장점검, 시설개선 지원 등
교육청/교육지원청 (발명교육 담당 장학사)	• 센터 운영계획 수합 및 제출(→ 한국발명진흥회) • 센터 운영평가 및 통보, 운영비 지원 • 센터 운영결과 수합 및 제출(→ 한국발명진흥회) • 센터 현장 컨설팅 등
센터 (담당교원, 행정실)	• 센터 운영계획 작성 및 제출(→ 시도교육청) • 센터 운영 • 센터 실적/정산보고(→ 시도교육청/한국발명진흥회)



[그림 V-6] 발명교육센터 추진 체계

나. 발명교육센터 조직·인력·예산 현황

1) 조직 현황

발명교육센터는 전국에 총 207개의 센터를 설치·운영 중인데 총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76%에 달하는 174개 기초자치단체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수도권 29%(61개소), 비수도권 71%(146개소)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V-12〉 발명교육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22년)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센터수	21	9	8	11	5	8	7	1	29	8	12	14	16	13	21	19	5	207
자치 단체**	15 (25)	9 (16)	7 (8)	8 (10)	4 (5)	5 (5)	4 (5)	1 (1)	25 (31)	7 (18)	10 (11)	14 (15)	14 (14)	13 (22)	20 (23)	16 (18)	2 (2)	174 (207)
설치율 %	60	56	88	80	80	100	80	100	81	39	91	93	100	59	87	89	100	76

** 발명교육센터가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수 (총 기초자치단체수)

발명교육센터 설치 주체로는 특허청이 68%(141개소), 교육청 18%(38개소), 교육부 14%(28개소) 순으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총 177개 교육지원청 중 86%에 달하는 153개 교육지원청에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설치기관으로는 초등학교 내 설치가 56%(116개소), 기타(과학원 등 교육청 산하기관 및 교육지원청) 25%(51개소), 중학교 14%(30개소), 고등학교 5%(10개소)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2) 인력 현황

2022년 기준 전국 발명교육센터 207개소의 운영인력은 총 377명(담당교원 222명, 보조교사 155명)으로 센터 당 평균 1.8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센터 운영 인력은 담당교원(필수 1명, 교사 또는 연구사 등)과 보조교사(선택)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별로 담당교원 1인

을 배치·운영하는데 예외적으로 전북(15개소)은 교원 2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148개소(71%)에서 보조교사(행정직, 기능직 등) 155명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표 V-13〉 발명교육센터 지역별 인력 운영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센터 수 (보조교사배치센터수)	21 (20)	9 (7)	8 (8)	11 (11)	5 (5)	8 (8)	7 (7)	1 (1)	29 (3)	8 (6)	12 (12)	14 (4)	16 (0)	13 (13)	21 (20)	19 (18)	5 (5)	207 (148)
담당교원 수	21	9	8	11	5	8	7	1	29	8	12	14	31	13	21	19	5	222
보조교사 수	20	7	8	12	5	8	7	1	3	9	13	5	0	13	21	18	5	155

2022년 기준 전체 담당교원 중 전담교원의 비율은 58%로 122명이 센터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이는 2018년 52%에 비해 6%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표 V-14〉 센터 담당교원 전담교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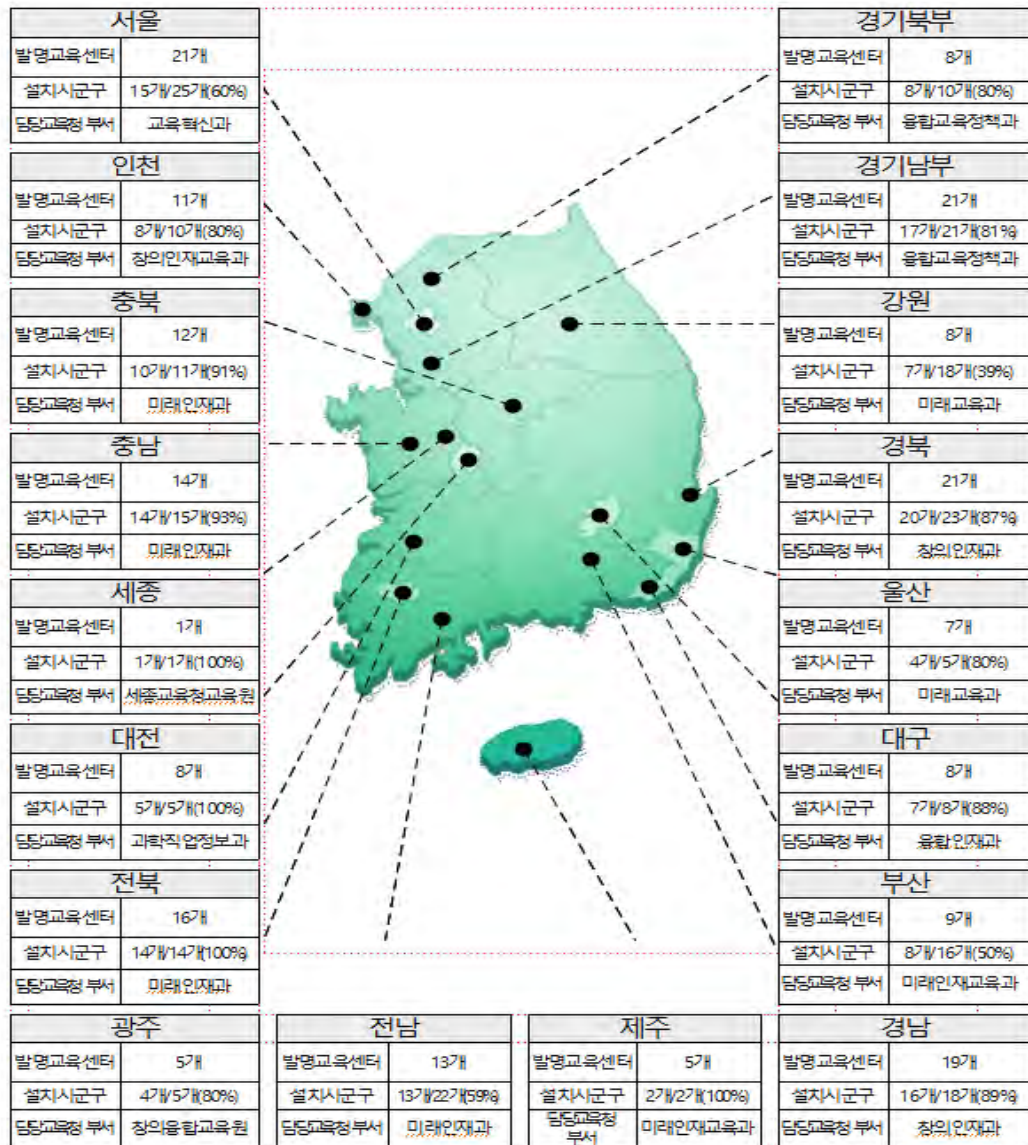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센터 수	21	9	8	11	5	8	7	1	29	8	12	14	16	13	21	19	5	207
전임	14	7	8	1	4	4	4	1	8	8	3	13	31	4	10	2	0	122
겸임	7	2	0	10	1	4	3	0	21	0	9	1	0	9	11	17	5	100
전담율 %	66	77	100	9	80	50	57	100	27	100	25	93	194	31	48	10	0	58

담당교원의 센터 평균 운영경력은 약 1년 6개월이며, 전체 담당교원 중 149명이 운영 경력 2년 미만으로 다소 짧아서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발명교사인증제 획득, 다양한 발명교육 관련 연수 참여 등을 독려하고 있다. 담당교사의 발명교육연수 이수시간은 평균 109시간이며, 전체 담당교원 중 33명이 발명교사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3) 예산 현황

2022년 센터 운영예산은 총 9,761백만원으로 특허청 2,766백만원(29%), 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6,193백만원(63%), 기타(지자체, 운영기관 등) 802백만원(8%)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 1개소 당 평균 운영비는 47백만원이다. 센터 1개소 당 평균 운영비는 2011년 26백만에 비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V-7] 발명교육센터 시·도 지역별 설치 현황

3. 프로그램 개발

가. 개요

프로그램 개발 관련하여 먼저 특허청과 KIPA가 추진하는 발명영재교육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영재교육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는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을(KAIST와 POSTECH에 위치)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교육원은 발명영재들 중 창의성과 도전 의식 등이 강한 전국 중·고등학생 발명영재 180여명을 선발하여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자체 교육원 내에서 설계·운영되고 있는데,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력·미래기술·기업가정신·지식재산전문성, 인문적 소양 등의 핵심역량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발명영재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창의발명교육연구실의 주된 역할은 17개 시·도교육청 내 설치된 전국 143개(‘21년) 발명영재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및 발명영재 선발도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특허청과 KIPA는 발명의 생활화를 진작하고자 2005년부터 각 학년급별로 다양한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를 보급하여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 및 보급에 매진해 왔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발명활동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능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창의력 개발, 문제해결력 증진 등 다양한 역량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 개발 현황

2005년부터 2021년까지 KIPA는 총 98개의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왔으며 세부 현황은 <표 V-15>와 같다.

〈표 V -15〉 교육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2005-2021)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수 (%)
유아	유아용 발명 워크북 (유치원과 친구&나와 가족)	8 (8.16)
	유아용 발명 워크북 (우리 동네 & 동식물과 자연)	
	유아용 발명 워크북 (건강과 안전 & 생활도구)	
	유아용 발명 워크북 (교통 기관 &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유아용 발명 워크북 (환경과 생활 & 계절)	
	발명왕 뽀로로	
	발명대회에 간 뽀로로	
	상표를 만든 뽀로로	
초등 학생	발명교실 표준교육프로그램 (이론)	53 (54.06)
	발명교실 표준교육프로그램 (기능)	
	발명교실 표준교육프로그램 (활동)	
	발명교실 표준교육프로그램 (응용)	
	[초등 실과용] 발명교과서 - 발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발명세계로의 초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초급)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초급(의자)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초급(가위)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초급(가방)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 - 중급(전화기)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 - 중급(쓰레기통)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 - 중급(냉장고)	
	창의와 발명(초등)	
	발명설계의 프로세스(초급)-발명설계와의 만남	
	주니어 발명 리더(초급): 나의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주니어 발명리더 핸드북	
	주니어 발명 마스터 과정(초급)	
	발명교육 내용표준 (초등학교용)	
	창의력 개발 심화과정-초급(창의적 발명 길라잡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수 (%)
	발명영재 교육프로그램(초급)	
	한국실과교육학회 체험중심 발명교육프로그램	
	한국영재교육학회 체험중심 발명교육프로그램	
	트리즈(TRIZ) 기법을 이용한 통통박사의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지식재산보호 테마여행(초등)	
	발명왕 뽀로로	
	발명대회에 간 뽀로로	
	상표를 만든 뽀로로	
	나의 발명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가는 발명노트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PET병은 나의 PET)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STEAM Invention Story)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Think Power Project)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골드버그 STEAM-T프로그램)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발명 UP 오감UP)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발명 아이디어스케치)	
	과학 + 발명	
	미래 세상과 발명 I(기본)	
	미래 세상과 발명 I(심화)	
	미래 세상과 발명 I(응용)	
	미래의 발명 CEO 탐색 (Ⅲ) - 환경문제 그것을 풀고 싶다?!	
	미래의 발명 CEO 탐색 (Ⅲ) - 10일 뒤에 내가 극한 상황에 처한다면?!	
	미래의 발명 CEO 탐색 (Ⅳ) - 빅데이터 이용하여 아이디어 창출하기	
	미래의 발명 CEO 탐색 (Ⅳ) -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하기	
	미래의 발명 CEO 탐색(V)- STEAMIE 프로그램으로 융합역량 키우기	
	키프리스 바다에서 문제해결 아이디어 찾기	
	초등 과학발명왕(5-1)	
	초등 과학발명왕(5-2)	
	초등 과학발명왕(6-1)	
	초등 과학발명왕(6-2)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수 (%)
	TDM 프로그램	
	발명놀이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창의와 발명 놀이터(본책)	
	스마트 스토어 구현하기	
	발명교실 표준교육프로그램 (이론)	
	발명교실 표준교육프로그램 (활동)	
	발명교실 표준교육프로그램 (응용)	
	인문사회 문제해결	
	수리과학 문제해결	
	차세대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 공통 프로그램 및 운영 가이드	
	발명세계로의 탐험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중급)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초급(의자)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 - 중급(전화기)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 - 중급(쓰레기통)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하기 - 중급(냉장고)	
중학생	창의와 발명(중등)	46
	발명설계의 프로세스(중급)-발명설계와의 탐구	(46.94)
	주니어 발명 리더(중급): 발명부터 특허까지	
	주니어 발명리더 핸드북	
	주니어 발명 마스터 과정(중급)	
	발명교육 내용표준 (중학교용)	
	창의력 개발 심화과정-중급(발명 문제해결 길라잡이)	
	발명영재 교육프로그램(중급)	
	지식재산보호 콘서트	
	한국영재학회 체험중심 발명교육프로그램	
	한국상담학회 발명영재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한국기술교육학회 체험중심 발명교육프로그램	
	트리즈(TRIZ) 기법을 이용한 통통박사의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수 (%)
	자유학기제 연계 창의발명교육 프로그램 (A형)	
	자유학기제 연계 창의발명교육 프로그램 (B형)	
	자유학기제 연계 창의발명교육 프로그램 (C형)	
	자유학기제 연계 창의발명교육 프로그램 (D형)	
	과학 + 발명	
	발명, 과학과 놀다.	
	미래 세상과 발명 II (기본)	
	미래 세상과 발명 II (심화응용)	
	미래 세상과 발명 II (실전)	
	미래의 발명 CEO 탐색 (Ⅲ) - 환경문제 그것을 풀고 싶다?!	
	미래의 발명 CEO 탐색 (Ⅲ) - 10일 뒤에 내가 극한 상황에 처한다면?!	
	미래의 발명 CEO 탐색 (Ⅳ) - 빅데이터 이용하여 아이디어 창출하기	
	미래의 발명 CEO 탐색 (Ⅳ) -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하기	
	미래의 발명 CEO 탐색(V)- STEAMIE 프로그램으로 융합역량 키우기	
	키프리스 바다에서 문제해결 아이디어 찾기	
	TDM 프로그램	
	발명놀이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창의와 발명 놀이터(본책)	
	스마트 스토어 구현하기	
	전남 창의융합교육관 교육 프로그램 (중 1-무한상상 아이디어 프로젝트 편)	
	전남 창의융합교육관 교육 프로그램 (중 2-지역기반 창업체험 편)	
고등 학생	인문사회 문제해결	
	수리과학 문제해결	
	차세대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 공통 프로그램 및 운영 가이드	
	발명세계로의 몰입	24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고급)	(24.49)
	창의와 발명(고등)	
	발명설계의 프로세스(고급)-발명설계의 확장	
	주니어 발명 리더(고급): 나도 발명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수 (%)
	주니어 발명리더 핸드북	
	발명교육 내용표준 (고등학교용)	
	창의력 개발 심화과정-고급(트리즈로 발명전문가 되기)	
	발명영재 교육프로그램(고급)	
	한국직업교육학회 체험중심 발명교육프로그램	
	한국상담학회 발명영재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트리즈(TRIZ) 기법을 이용한 통통박사의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미래 세상과 발명 III(응용)	
	과학 속 발명하기	
	미래의 발명 CEO 탐색 (III) - 환경문제 그것을 풀고 싶다?!	
	미래의 발명 CEO 탐색 (III) - 10일 뒤에 내가 극한 상황에 처한다면?!	
	미래의 발명 CEO 탐색 (IV) - 빅데이터 이용하여 아이디어 창출하기	
	미래의 발명 CEO 탐색 (IV) -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하기	
	키프리스 바다에서 문제해결 아이디어 찾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창의와 발명 놀이터(본책)	
	스마트 스토어 구현하기	
대학생	차세대 지식재산기반 영재기업인 공통 프로그램 및 운영 가이드	1 (1.02)
교사	교육 4.0 시대의 발명교사 역량업 프로젝트 (본책)	
	교육 4.0 시대의 발명교사 역량업 프로젝트(퍼실리테이터 핸드북)	3 (3.06)
	상상이 현실이 되는 창의와 발명 놀이터(핸드북)	
총계		98 (100)

출처: 이은지 외 (2021), pp.35~38.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한 프로그램(총 98개)을 교육 대상별로 분류한 결과 초등학생(53개, 54.08%), 중학생(46개, 46.94%), 고등학생(24개, 24.49%), 기타(12개, 12.24%)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은지, 2021). 또한 각 학년급별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기반 문제해결력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급한 프로그램의 형태는 인정 교과서, 프로젝트형 발명영재 혹은 발명교육센터용 프로그램, 정규교과 연계 프로

그럼, 정부 교육정책 연계 교재(예: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왔다.

전반적으로 최근 2022년에 가까울수록 다학문 융합, 정규 교과 연계, 미래 IP역량 제고, IoT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학문 융합역량, 특히 창출·활용 역량, 미래 진로시장과 연계된 미래요구 역량 등의 향상에 주력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개발해 온 교육 프로그램의 역량별 분석을 한 결과, “IP 관련 역량(예: “IP 창출 및 IP-CEO 역량”등)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은지, 2021).

4. KRIGA 발전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예술영재교육은 예술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고도 예술 영재 교육에 좀 더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그 대상과 저변을 확대하여 잠재적 예술 영재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예술이 활용되는 분야와 범위의 확대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필자는 창의발명교육연구실이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예술 영재의 대상과 저변 확대를 하려면 KRIGA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잠재적 예술영재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위한 구심점 역할 필요

잠재적 예술영재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예술영재교육의 거점센터와 배움터 구축이 필요한데 KRIGA에서 그 역할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앞서 소개한 전국 200여개 발명교육센터의 조직과 각 연계 조직의 체계, 역할 등을 참고하고 벤치마킹하여 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예술 배움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17개 시·도 등 광역지역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는 발명체험교육관 등도 참고하여

학생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든 역할의 중심점이자 허브가 KRIGA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 “예술 배움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 등의 구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축된 예술 배움터에 체계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역할도 예술영재교육의 쉼터인 KRIGA가 주축이 되어 시설 구축 뿐만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콘텐츠 개발·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단기, 중기, 장기 방안 수립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일반 학생들에게 예술의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할 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KRIGA는 정규 미술 수업, 창의재량활동, 방과후 교실 등 학교수업 혹은 방과후 시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융합 프로그램 개발·보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예술의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예술과 다른 분야의 다양한 융합·활용 사례를 접함으로써 예술이 융합됨으로써 무형의 가치가 더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향후 학생들이 예술 관련 다양한 진로 모색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 관련하여 기존의 발명분야에서 시도된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발명교육 분야에서는 미술분야와 연계된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해 왔다.

특히 2019년에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 발명(Invention),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융합한 STEAMIE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발명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발명품의 무형의 가치가 제고되는 것을 학습해 보도록 했다. 또한 2022년에는 정규 교과 연계 발명교육 실시 위해 미술 교과목과 발명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술 교과목 시간에 창의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했다. 이것은 아래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디자인의 정의, 성립요건 등에서도 보듯 발명과 미술교육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발명과 미술교육의 연계는 매우 시급하다.

- 디자인의 정의(디자인보호법제2조)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디자인보호법제2조) :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 디자인등록의 요건(디자인보호법제33조)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6>

2) 아래 가방의 손잡이를 관찰해 봅니다. 다음 디자인의 변화가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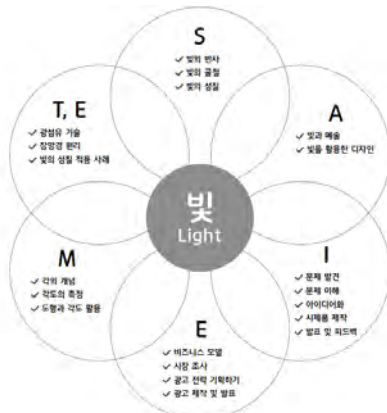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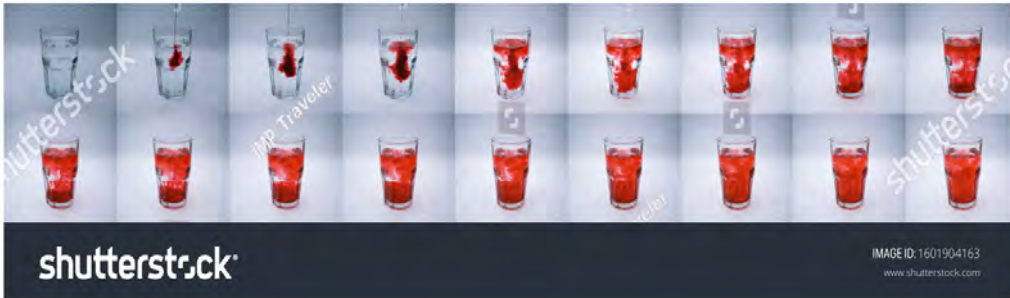
손잡이의 디자인을 변화시켜서 (되었다.)

[그림 V-8] 미술교과 활동과 발명활동 연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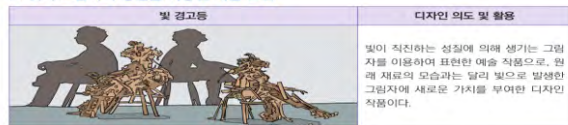


1)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이란?

스톱 모션은 어떤 물체를 1장면마다 조금씩 움직여 촬영한다. 이를 순서대로 빠르게 넘겨보면 사진이 연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람 눈의 잔상효과를 이용한 방법으로 연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영화 촬영 기법이다



(4) 빛과 그림자의 성질을 이용한 예술 표현



(5) 인터랙티브 아트에서 광섬유 기술 활용



[그림 V-9] 빛의 주제로 STEAMIE 지식과 발명활동 연계 사례

이런 발명과 미술교육이 연계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영국 특허청은 다양한 교과(언어, 과학, 컴퓨터, 음악, 디자인과 기술, 사회 등)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디어 창출에 예술교육이 중요한 역할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 Henry Ford재단에서는 혁신적인 발명품을 산출하기 위해 학습하는 모델로 'Model I'를 제시하는데 문제발견-문제정의-디자인-최적화-시행의 5단계 혁신 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디자인 과정을 '혁신 프로세스'의 중요한 하나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V -10] 미국 Henry Ford재단 Model I

다. 예술영재들 재능발달 지원의 허브 역할 담당 필요

재능발달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재능발달이 이루어질때 각 단계의 전이(transition)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KRIGA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들어 각 단계의 전이(transition)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적절한 멘토링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학년급별 심리 및 창의성 강화 프로그램 제공, competition 등에 참여할 기회 제공 등이 제언될 수 있는데 이 역할의 중추 허브로 KRIGA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예술 배움터”를 구축 하고자 할 때 예술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재능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멘토링 인적 네트워크 구축, 콩쿠르 등 대회 참여 제공, 학년급에 맞는 심리 및 창의성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KRIGA는“예술 배움터”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가지 예로 “예술 배움터”를 통해 학습된 예술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분야 관련 활동 혹은 대회 등에 참여할 기회 제공을 위해 응용 예술 분야 대회(예: 발명+예술 역량 발휘 대회인 창의력 챔피언 대회) 혹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KRIGA는 고도 예술영재들을 위한 체계적 영재교육 지원이라는 기존의 과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예술 배움터”구축이라는 작업에 최대한 빨리 착수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많은 새로운 미래 역량이 요구되나 그 중에서도 창의력은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 중의 하나로서, 예술 영역은 창의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학습활동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쉽게 그리고 폭넓게 예술(영재)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 배움터”구축 및 “예술 배움터”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의 청사진 수립에 적극적으로 착수하는 등 향후 KRIGA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모든 정책의 구심점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이은지, 윤문주, 이승원, 이한샘 (2022). **창의·융합형 IP인재상 도출에 따른 교육내용 체계화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 미국 Ford 재단 Model I (2023). Retrieved from <https://inhub.thehenryford.org/>
- 영국 특허청 프로그램 (2023). Retrieved from <https://www.tes.com/partners/cracking-ideas>
- 특허청 (2021). **2021년도 지식재산백서**. 특허청.

VI. 논의 및 제언

설립 15주년이 되던 2020년, KRIGA는 그 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재도약을 위한 연구원의 비전 체계를 다시 그렸다. 4개의 추진영역과 1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해당 과제별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2년 3년차 연구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는 과제 하나하나에 대한 추진성과를 확인하기 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차년도에는 중장기 과제인 예술영재교육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부과제 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SNS 채널을 통해 KRIGA의 주요 활동들을 홍보하고 예술영재교육 전문가, 정책관계자, 담당교원, 예술강사, 예술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나 홍보영상 등을 활용하여 예술영재교육이 특정 소수집단에만 혜택을 제공하려는 엘리트교육이 아니며,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따라 능력과 소질이라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있는 교육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공적인 예술영재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영재교육 전문인력들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들의 연수를 체계화하고 전문화할 뿐만 아니라 예술영재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직접 마주하는 강사의 질관리를 위한 연수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티칭/코칭 아티스트 양성 과정, 학부모 교육 등 KRIGA 중장기 비전을 위해 계획했던 ‘KRIGA 아카데미’ 구축에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 조성을 향후 중장기 과제의 가장 우선 순위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션, 비전, 목표, 추진전략, 핵심가치를 담은 2020년 KRIGA 비전체계는 2025년이 되면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최초로 그렸던 2020년과는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 바로 우리 KRIGA와 구성원들을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네 개의 핵심

가치이다. 2020년 당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가치는 앞으로 KRIGA와 구성원들이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에서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일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에 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KRIGA는 도전혁신, 상생협력, 지속성장, 소통신뢰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를 모든 연구와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도전·혁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성원의 도전적 태도와 끊임없는 혁신적 사고를 강조
- (상생·협력) KRIGA 구성원 또는 내·외부기관과 서로 협력하고 존중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
- (지속·성장)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보 및 반전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소통·신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구성원간 신뢰 및 국가연구기관으로서 대내외 공신력 제고

뿐만 아니라 이는 **KRIGA가 직면한 한정된 예산과 인력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상단에 기술된 바와 같이, KRIGA와 구성원들은 매년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무엇에 중점을 둘지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럴 때 마다 네 가지 핵심가치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국가 예술영재교육 실천의 HUB가 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KRIGA의 재도약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교육부 (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교육부 (2018).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김춘미 외 (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승진 (2018). 4차 산업혁명시대 예술융합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승진, 강병직 (2020).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_____ (2021).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시범적용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20). KRIGA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KRIGA 중장기 발전방안 밑그림 그리기.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부 록

[부록 1] KRIGA 비전 체계 및 세부과제

[부록 2] KRIGA 기관로고 브랜딩

[부록 1] KRIGA 비전 체계 및 세부과제



추진영역		중점과제
1	Think-Tank 기능 강화	1-1.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학술사업 다각화
		1-2. 미래지향적 연구과제 수행
		1-3. 예술영재교육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1-4.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2	예술영재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2-1.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체계화 및 전문화
		2-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멘토 양성 프로그램 도입
		2-3. 예술영재교육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2-4. 국가 차원의 예술영재교육 강사 양성 체계 구축
3	예술영재교육 협력 기반 구축	3-1.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
		3-2.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3-3. 부처 및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
		3-4. 예술영재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3-5. 문화예술정책 내 연계협력 강화
4	국가 예술영재교육 HUB 역할 강화	4-1.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보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4-2. 예술영재교육 현장과의 소통·지원 강화

영역 1 Think-Tank 기능 강화

1-1.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학술사업 다각화

□ 「예술영재교육」 학술지 사업 정착 및 활성화

- 학술지를 KRIGA의 예술영재교육연구 플랫폼으로 활용
 - 예술영재교육 관련 현장 밀착형 미래지향적 연구주제 발굴
 -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세미나·학술대회 등 활성화
- KCI 등재 학술지 자격 취득을 위한 체계 구축
 - ※ '19년 학술지 창간 → '22년 KCI 등재후보지 선정 → '24년 KCI 등재지 선정

□ 예술영재교육 학술사업의 다양화

- (정책포럼) 주요 정책 및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정책 포럼 개최
- (국제학술대회) 해외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추진 및 국내·외 예술영재교육 전문 인력 간 지식공유 등 상호 교류 확대
- (특강) 예술영재교육, 예술교육, 문화예술, 융합, 인문학 관련 특강 시리즈 기획 운영
- 한예종 소속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연료 교내 보상체계 보완 필요
- 한예종 내 부설기관(예술연구소, 융합센터 등), 관련 학회,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의 컨소시엄 방식의 학술사업 추진 활성화

1-2. 미래지향적 연구 과제 수행

□ KRIGA만 수행 가능한 전문분야 연구 과제 발굴

- 국가 예술영재교육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연구를 통한 정책연구 수행
- 한국예술영재교육 중단 연구 추진
 - 예술영재교육의 중장기적 영향과 성과를 장기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술영재교육의 방향 설정의 기준 마련
 - 예술영재교육을 통한 경험, 발달 및 성장,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성과에 관한 장기적·체계적 조사 및 데이터 구축

※ 수·과학 분야는 영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5년간(2017-2041) 한국영재교육
종단연구 추진

- 성공한 예술가 또는 예술영재의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성공한 예술가 또는 예술영재의 성장과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잠재성
발현 요인 도출
 - 예술영재 잠재성 발현을 위한 풍부한 교육환경 조성에 시사점
- 인지과학과 결합한 예술영재, 예술가들의 경험적 연구
 - 연주자들이 경험하는 무대공포증과 해소방안, 피아니스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해소방안 등
- 예술영재의 발굴-교육-재능발현까지 전생애주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지원 체계
관련 연구
- 예술영재성 발현 시기와 교육적 개입시기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
 - 학문 분야에 따라 영재성 발현 및 교육적 개입 시기에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실시
 -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예술, 체육 등 조기선발에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초등 저학년 영재에 대한 조기선발 확대 제안하였으나 활성화 못함
 - 영재성 발현 시기 및 교육적 개입시기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바
탕으로 유아부터 조기 판별 및 선발, 교육, 교사교육의 영역을 확장
- 기타 KRIGA만의 특화된 연구 과제의 지속적 발굴 추진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예술영재교육 연구 과제 수행

- 예술-예술, 예술-비예술 간 예술융합교육 관련 이론적·실천적 연구
- 인공지능시대 예술영재교육 정책방향 관련 연구
-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예술영재교육 실현 방안 연구
- 기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예술영재교육 연구과제의 지속적 발굴

1-3. 예술영재교육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예술영재교육 인지도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예술영재교육 웹진 정기 발간 및 배포
 - 예술영재교육 전문가, 정책관계자, 담당교원, 예술강사, 예술가, 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
 - 예술영재교육 관련 상시적·전문적 지식 정보 제공 온라인 정보 채널 역할
 - 웹진 발간 횟수의 순차적 확대
 - ※ '20년 년1회 → '21~22년 년2회 → '23~'24년 년4회 → '25년 이후 년12회
- (예술영재교육 바로알기 캠페인) 언론·방송사 협력, 사회적 이슈 연계 홍보
- 카드뉴스, SNS 채널을 통한 KRIGA 주요 연구 사업 정보 홍보

□ 정책관계자 대상 예술영재교육 인식 제고

- 정책 및 예산수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재교육 관련부처 정책관계자 초청 정책토론회, 학술·정책포럼 운영
- 예술영재교육 정책 담론 형성과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 정례화
- 예술영재교육 웹진 전문 필진으로 정책관계자 섭외

1-4.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 다양한 예술분야 연구인력 확보

- KRIGA 연구원 재직 현황(총 6명)
 - 원장1인(영상), 책임연구원 2인(음악, 교육), 일반연구원 2인(무용, 영화), 행정주무관 1인(영상)
- 전통음악, 미술, 영화, 연극, 융합 등 다양한 예술분야 연구인력 확보
 - 상시과제가 아닌 경우, 연구과제별 위촉연구원 방식의 채용 규정 신설 필요

□ 국가 예술영재교육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 연구조직과는 별개로 실태조사, 지표개발, 조사통계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 예술영재교육 관련 통계를 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기여

영역 2 예술영재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2-1.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체계화 및 전문화

□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계발 체계 마련
 - 중장기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경력별 역량 계발을 위한 경력 단계별 연수과정 운영
- 전문성 지속을 위한 정기적 보수교육 실시

〈표 1〉 경력 단계별 예술영재교육 연수과정(안)

구분	단계	주요 연수내용 예시
전문 과정 (120H)	예술영재교육 경력자 (3년 이상)	■ 주제별 영재교육 전문가 집중과정 - 국가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단위 프로그램 개발 - 교사관찰추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 예술영재교육 교수법 수업 시연 및 평가 컨설턴트 전문성 - 예술영재교육기관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
심화 과정 (120H)	초임 예술영재교원 (3년 이내)	■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역량 강화과정 - 예술영재교육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예술융합교육 교수법의 실제 - 학교급별, 재능별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구안·적용 - 예술영재학생 및 학부모 상담 컨설팅
기초 과정 (60H)	예비 예술영재교원 (1년 이내)	■ 예술영재교육의 개론과 실제 - 예술영재교육 정책 이해 및 최근 연구동향 - 예술영재의 정의 및 특성에 따른 선발방법의 이해 - 예술영재교육 분야별 프로그램 분석 - 예술영재교육대상자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 워크숍

출처 : 김주아 외(2017)에서 재구성

□ KRIGA 현장전문가 선도교원 위촉

- 기초·심화·전문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원은 예술영재교육 선도교원으로 위촉하여 KRIGA 현장전문가로 연구사업 인력으로 활용

2-2.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멘토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모형 구축 운영

- KRIGA에서는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모형을 개발함(이승진, 2019)
- 본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술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감능력, 소통능력, 갈등대체능력, 관계형성능력 등을 두루 갖춘 멘토풀 확보 필요



출처: 이승진, 2019

[그림 1]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 맞춤형 지원체제 모형

□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코칭 아티스트 아카데미 개설(안)

- (코칭 아티스트) 상담역량을 갖춘 예술가 즉, 예술가이자 상담가이며 교육자이기도 한 전문가
-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갖춘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감, 소통, 갈등대처, 관계형성 등 상담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양성
- 예술영재교육 기초 연수 프로그램은 필수로 운영
- 코칭 아티스트 아카데미를 이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술영재교육 멘토 교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멘토 풀을 관리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증이 만료되어 다시 재교육을 받도록 함

2-3. 예술영재교육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예술영재교육 원격연수 시스템 고도화 및 선진화

- KRIGA 연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2012년) LMS 시스템 구축
 - (2013~2014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원격연수 운영
 - (2015~2019년)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시스템 운영 중단,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시스템 노후화로 재사용 불가
 - (2020년) LMS 시스템 신규 구축 (한정된 예산으로 기본 기능만 구축)
- 대상별, 분야별 예술영재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시스템 고도화 및 선진화 필수
- 원격연수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국고 예산 확보 필요

□ 온·오프라인 연수를 활용한 KRIGA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 교육방법, 교육대상, 주제에 따른 KRIGA 아카데미 과정 체계(안) 마련
- 연수대상자 만족도 및 요구조사에 기반한 아카데미 운영방안 마련

〈표 2〉 KRIGA 아카데미 과정 리스트(안)

대분류	소분류	과정명/연수시간	대상
집합 연수	직무연수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기초연수(60H)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심화연수(120H)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연수(120H)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원 특별연수(10H 미만)	현직교원
	자율연수	예술영재교육 현장적용연수(10H 미만)	현직교원 예비교원 예술강사
원격 연수	직무연수	예술영재교육의 기초(16H)** - 예술영재성 개관(2H) 예술영재성 개념(5H) - 예술영재성 판별(4H) 예술영재교육과정(3H) - 예술영재교육의 쟁점(2H)	현직교원
원격 + 집합 연수	티칭 아티스트	예술영재교육의 기초(16H) 프래그머티즘 미학과 예술적 교사 예술과 교육의 만남 매개자/교육자로서의 예술가 예술영재 학부모 상담	현직교원 예비교원 예술강사 예술가
	코칭 아티스트	예술영재교육의 기초(16H) 예술영재를 위한 멘토링의 이해와 실제 예술영재를 위한 감정코칭 예술영재를 위한 진로코칭 예술 분야별 코칭 가이드	현직교원 예비교원 예술강사 예술가
원격 연수	열린강좌	놀이, 수업, 상상력 철학, 예술을 읽다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현직교원 예비교원 예술강사 예술가 학부모

** 플래시로 제작된 기 보유 콘텐츠 내용 구성

□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신규개발 및 도입

- 오프라인 교육과 연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도입
 - 아르떼 아카데미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콘텐츠 도입
 - 예술영재교육 관련 특화된 과정만 신규개발
- 기존 플래시 기반 콘텐츠 재사용 불가, HTML5 기반 콘텐츠로 신규 개발

2-4. 국가 차원의 예술영재교육 강사 양성 체계 구축

□ 예술영재교육 강사 질관리 제고 및 인력풀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예술영재교육 기초과정을 이수한 강사 명단 예술영재교육기관과 공유
- 예술영재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예술영재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예술영재교육 강사의 핵심역량 도출
- 역량 기반 심화연수 프로그램 개발

□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티칭 아티스트 아카데미 개설(안)

- (티칭 아티스트) 가르치는 예술가 즉, 예술가이자 교육자이며 예술을 가르치고 예술을 통해 가르치는 전문가
- 문화예술 분야와는 차별화된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티칭 아티스트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갖춘 예술가를 예술영재교육 강사로 양성

영역 3 예술영재교육 협력 기반 구축

3-1.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연구사업 발굴·운영

- 한예종 - KRIGA - 문체부의 상호협력관계 구축 체계 마련
- 국내 최고 예술대학으로서 한예종이 가진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문체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활용성이 높은 KRIGA만의 연구사업 발굴
- 예술영재교육을 경험한 한예종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과제 발굴·추진

□ 6개 원과 교내 부설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연구사업 추진

- 6개원과 교내 부설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예술영재교육 연구사업 추진
 - (6개원 및 협동과정)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협동과정
 - (부설기관)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융합예술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 공연전시센터, 미디어콘텐츠센터, 예술과젠더연구소
- 교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와 원활한 교류·협력을 위한 사례비 지급 기준 개정 추진
 - ※ 6개원과 각 부설기관을 독립기관으로 간주하고 타 기관 연구사업 참여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개정 필요, 현재는 한예중 소속 교직원인 경우 일체의 사례비 지급 불가
 - ※ (KAIST 사례) 과기부 산하 대학인 KASIT의 경우에도, 각 학과와 부설기관들을 독립기관으로 간주하고 타 학과나 기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기준 사례비를 지급함

□ KRIGA의 연구사업 성과가 한예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KRIGA의 연구사업 성과가 문체부와 한예중의 성과와 발전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교내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KRIGA 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6개원과 부설기관에 재직 중인 실무책임자로 구성
 -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KRIGA가 한예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협의

3-2.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예술영재교육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 예술영재교육이 타분야 영재교육에 비해 수혜율이 낮은 원인으로 전문인력과 물리적 인프라 환경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됨
- 교육청 및 대학 주도로 물리적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사회 해당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영재교육 기본 운영 환경 마련 해결
 - 대학교, 문화시설, 예술단체, 복지시설 등 활용

- 지역사회 예술가를 예술영재교육 기관의 전문가 활용 풀로 연결
- 지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 지도 작성 및 체계화

3-3. 부처 및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

□ 관계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에 예술영재교육 KRIGA 전담 인력 배치
 -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한예종 담당 주무관 1인 배치 운영
 - 예술영재교육은 문화예술교육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관련 연구사업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정기협의회 운영) 부처별 영재교육 방향성 및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 상호 협력 정책 수행을 위한 정기협의회 운영

□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협력 체계 강화

- 국가영재교육연구원 간 설립목적과 기능에 따른 역할 정립
 - (KEDI) 영재교육 국가정책수립 및 현장지원 연구 총괄
 - (KAIST, KOFAC) 수·과학분야 영재교육 현장지원 및 연구
 - (KIPA) 발명영재교육 현장지원 및 연구
 - (KRIGA) 예술영재교육 현장지원 및 연구
 - 국가영재교육연구기관 간 연구사업 협력 체계 구축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사업 과제 발굴 및 협력 수행(과학-예술 융합 등)
 - 연수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등 공동 기획 및 운영 활성화
 - 향후 국가영재교육연구원을 통합하여 ‘국립 영재교육연구원’ 신설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정책 수행을 위한 통합 추진
- ※ (기관통합사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이 통합하여 출범한 독립적인 국가정책 연구기관임

3-4. 예술영재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전국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전국 대학부설 영재교육 기관 실무담당자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정례화
- KRIGA에서 전국 대학부설 영재교육 기관에 공통으로 필요한 지원 요구사항 파악 후 KRIGA 주요 연구사업으로 추진
- 전국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대상 선도적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시범적용 추진 후 전국 예술영재교육 기관에 확대 보급
- 전국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소속 교원을 예술영재교육 선도교원으로 양성하여 KRIGA 연구사업의 전문가로 활용

□ 과학예술영재학교와의 협력 체계 구축

- 국내 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 현황 및 운영 사례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2015년 개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2016년 개교)

<인천예술영재학교 운영 사례>

(설립목표) 과학적 재능과 예술적 소양을 지닌 다중영재를 대상으로 융합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

(특징) 창의융합교과 중 예술기반융합 개설 교과목 : 아티언스, 창의적 디자인 음악과 테크놀로지, 미술과 테크놀로지, 예술사

(운영의 어려움) 예술기반융합 개설 교과목을 담당할 전문 인력 섭외 문제

-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예술기반융합 교과목을 담당할 전문가 풀 제공
- KRIGA와 과학예술영재학교 다양한 예술기반융합 교과목 개발 공동연수 수행

3-5. 문화예술정책 내 연계협력 강화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추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예술창의인재육성과 관련된 조항 신설 필요
- 예술창의인재육성과 관련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KRIGA의 협력 방안을 종합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예술영재교육과 일반예술교육의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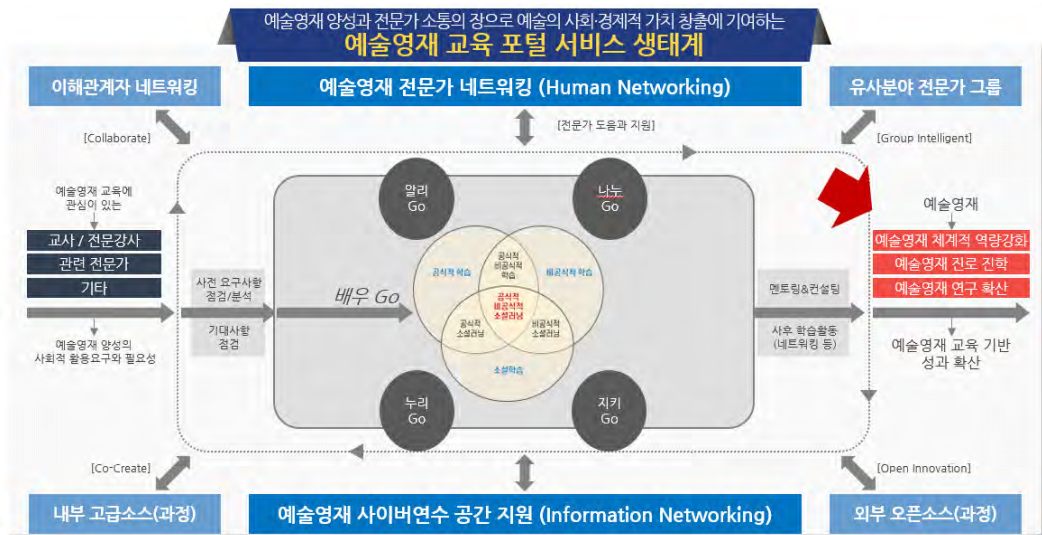
- (예술강사사업 연계) 8,500여개 학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 중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예술영재교육 기초연수 이수 후 예술영재교육 강사 풀로 활용, 예술영재교육 강사 수급 어려움 해소
- (문화예술 소외계층 사업 연계) 문화예술 소외계층 대상 운영 사업을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의 잠재적 재능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
- (통합·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KRIGA의 예술-예술, 예술-비예술 간 융합교육 관련 이론적·실천적 경험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도입) KRIGA는 수년간의 이론적·경험적 연구에 기반한 일반 학교교육에서 최적화된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함
 -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수업모형은 영재교육의 핵심 수업모형 중 하나임

영역4 국가 예술영재교육 HUB 역할 강화

4-1. 국가 예술영재교육 정보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국가 차원의 예술영재교육 종합 포털 시스템 구축·운영

- 예술영재교육의 총체적 정보제공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신규 구축 및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고 예산 확보 필요
- 국가 예술영재교육 종합 포털 구성(안)



[그림 2] 국가 예술영재교육 종합 포털 구성(안)

□ 예술영재교육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발굴 · 관리

- KRIGA가 국가 예술영재교육 HUB로서 예술영재 및 예술영재교육인력, 예술영재교육 정보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예술영재교육의 HUB가 된다는 것은 사람과 교육내용 및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예술영재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예술영재교육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발굴 및 관리가 KRIGA의 국가영재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와 발전을 위한 필수항목임

4-2. 예술영재교육 현장과의 소통 · 지원 강화

□ 예술영재교육 관련 수업 혁신 모형 개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 예술 분야별, 학년(수준) 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확산
- 예술교육의 특성 상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포함하여 보급 필요

- 기존 KRIGA가 수행한 프로그램 연구 및 연수결과물들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자료로 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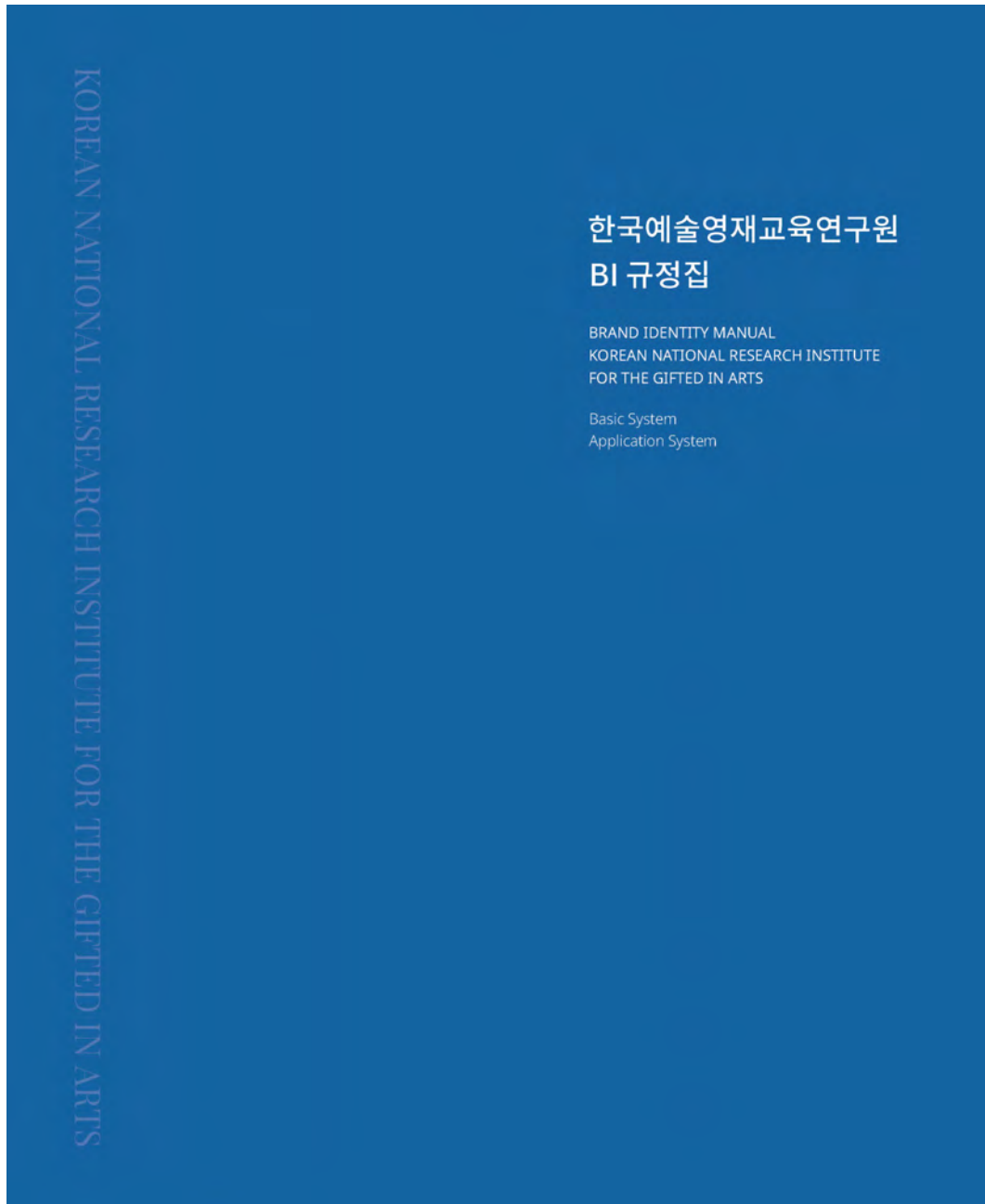
□ KRIGA - 예술영재교육 현장 교원 간 소통 사업 다각화

- (교사연구회) 전국 예술영재교육 교원 대상 KRIGA 교사연구회를 선정·지원하고 매년 그 성과를 공유하여 예술영재교육 발전 도모, 우수연구인 경우 「예술영재교육」 학술지에 게재
- (교수학습자료 경진대회) 예술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확보 및 현장에서의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도모
 - ※ (상금 및 상장 예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장려상10편(10만원)
- (예술영재교육 교·강사 한마당) 예술영재교육 성과 공유를 위한 축제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별 예술영재교육 우수 성과 사례 공유 및 발표
 - 우수·열정 교·강사 시상 및 격려
 - 전국 단위 예술영재교육 교·강사 네트워크 구축
 -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 협의회 구성

- 17개 시도교육청 영재교육담당 장학사 협의회 정례화(년 1회 이상)
 - 각 시도별 예술영재교육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공유
 - 국가영재교육기관인 KRIGA 차원의 지원 및 해결방안 모색

[부록 2] KRIGA 기관로고 브랜딩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BI 규정집

BRAND IDENTITY MANUAL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Basic System
Application System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전문적인 영재교육이론과 국내 현실을 접목한 예술영재교육의 기틀을 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창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이 국내외 예술영재연구 기관과 관련 학계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고한 국내 예술영재 교육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상징물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BI(Brand Identity) 프로그램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영문 약자인 'KRIGA'를 활용하여 기본 로고타입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활용하기 용이하고 의미함축적인 응용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다양한 매체에 적용되며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쓰일 것을 의도하였습니다.

'KRIGA' 기본 로고타입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중요 요소로서 연구원의 핵심 역할인 '예술영재교육의 기틀', '네트워크의 장'을 표현하기 위해 '기둥'과 '사람'을 모티프로 활용하여 예술영재교육 활성을 도모하는 KRIGA의 모습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은 예술창의융합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기관으로서의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Application System 1 서식류

- 01 명함
- 02 명함
- 03 소봉투
- 04 중봉투
- 05 대봉투

Introduction

Application System 2 서식류

- 01 장표케이스
- 02 표창장
- 03 위촉장, 임명장

Basic System

- 01 B
- 02 워드마크
- 03 B 활용형
- 04 워드마크 활용형
- 05 로고타입
- 06 시그니처
- 07 시그니처
- 08 시그니처
- 09 시그니처
- 10 엠블렘
- 11 전용색상
- 12 지침서체
- 13 지침서체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기본 로고타입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전문영인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의
약자 'KRIGA'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I'로 기둥과 사람을 형상화하여
연구원의 핵심 역할인 '예술영재교육의 기둥', '네트워크의 장'을 표현하였습니다.
기본 로고시스템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되어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통일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 위해 임의로 형태나 색상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마크 최소사용규정은 로고의 가독성과 재현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최소사이즈 이하의 사용은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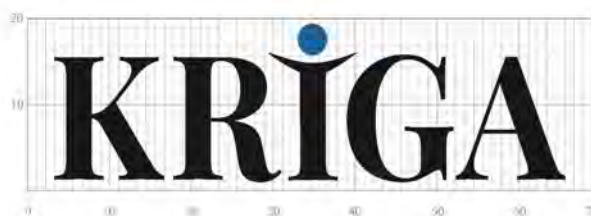
Basic System
01

KRIGA

최소 사용 규정



BI Grid



Word Mark 워드마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워드마크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사용하며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모든 매체에 활용되어 진다.
기본 로고타입과도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임의로 형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마크 최소사용규정은 로고의 가독성과 재현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최소사이즈 이하의 사용은 금합니다.

Basic System
02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최소 사용 규정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40mm

BI Grid





Word Mark Variation
워드마크 활용형

워드마크는 아래에 예시된 여러 활용형을
상황과 매체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Basic System
04

Black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KRIGA Green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특수색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Gray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Logotype
로고타입

로고타입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공식적인 명칭을 표시하므로 어떤 경우라도 변형할 수 없습니다.
로고타입은 전용색상인 Black이나 K 60%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로고타입과 함께 활용하거나 특수한 조각을 위하여 골드나 실버의 제한적 사용은 가능하나
기타 다른 색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Basic System
05

극대 로고타입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정문 로고타입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Signature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워드마크와 로고타임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좌중세 팔데트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역시 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Basic System

06

KRİGA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KRİGA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KRİGA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KRİGA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KRİGA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Signature

서그니처

「서그니처」는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작은 세 팔데로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역시 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Basic System

07

KRIGA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KRIGA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KRIGA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Signature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사용시 원대로 비례나 간격,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색상 역시 색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Basic System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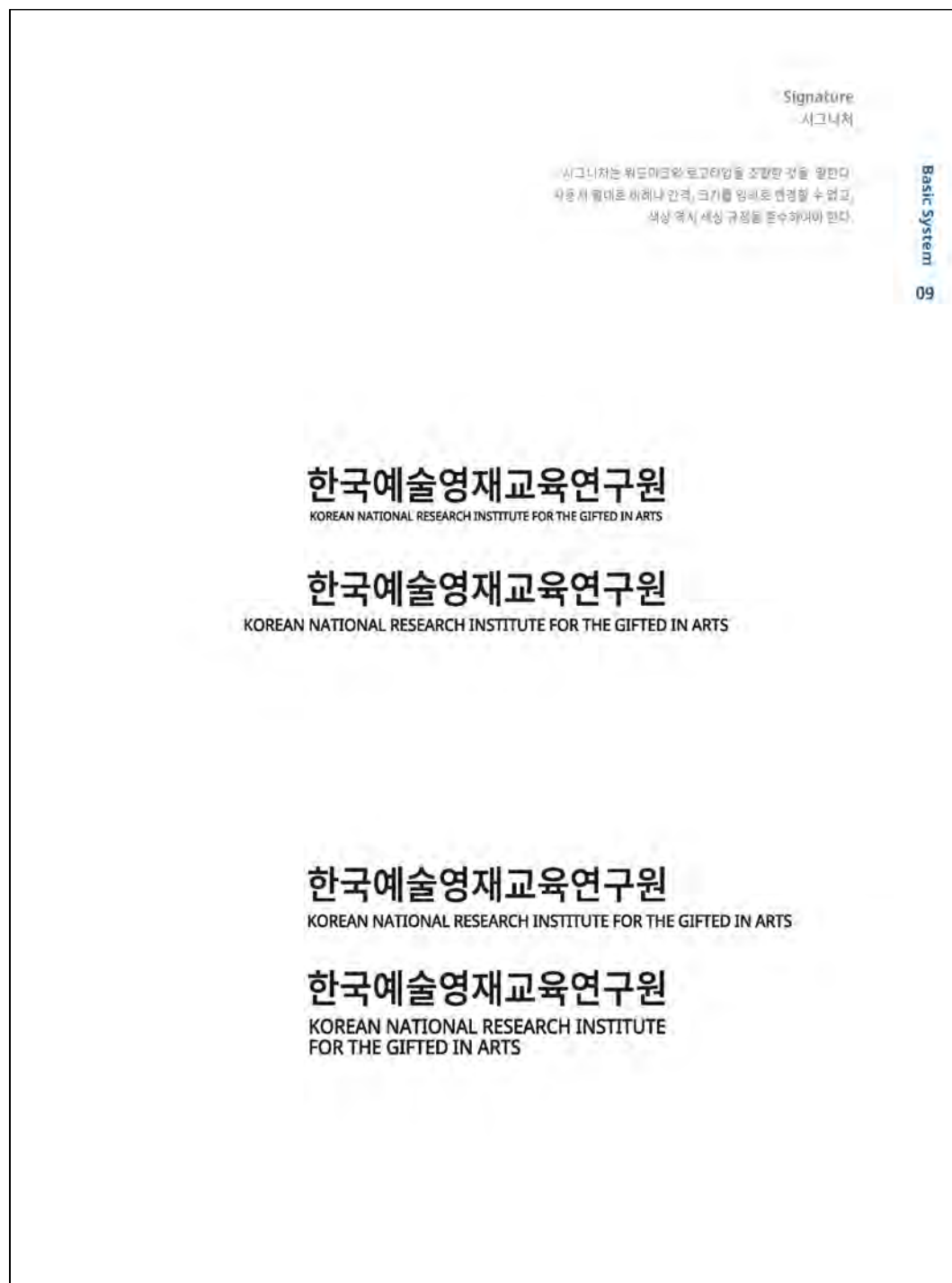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Emblem

엠블렘

본 엠블렘은 디자인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격과 비율을 정함



Emblem Grid



Color 전용 색상

전용색상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마크, 로고타입 등 각각의 요소에 적용되어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용되는 매체에 따라 명도, 채도 등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색상 재현시 적상의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시에 제시된 사항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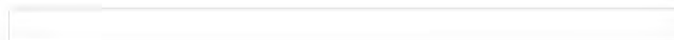
Basic System
11



PANTONE 2724C (Cyan 55% + Yellow 25%)



Black



White



PANTONE Cool Gray 10C (K 60%)

Typeface

지정서체

국문지정서체는 Noto Sans KR Famil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타이틀에는 Noto Sans KR Medium을 사용하고 본문과 측목 등에 주로 Noto Sans KR Bold를 사용한다.
 지정서체는 절대적인 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이나 서식류, 문서류, 사인 등의 제작물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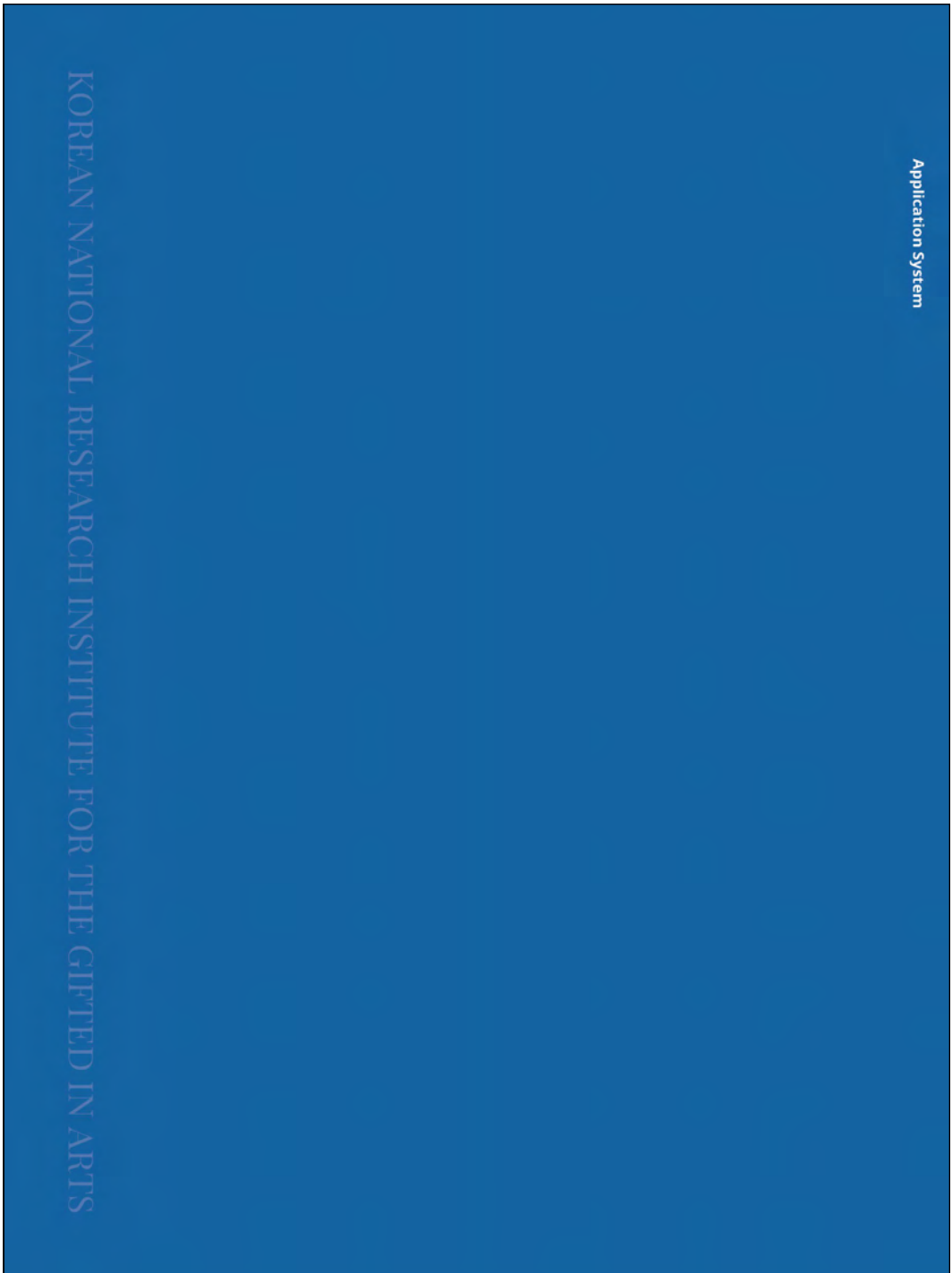
Noto Sans KR L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국내 현실을 접목한 예술영재교육의 기틀을 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창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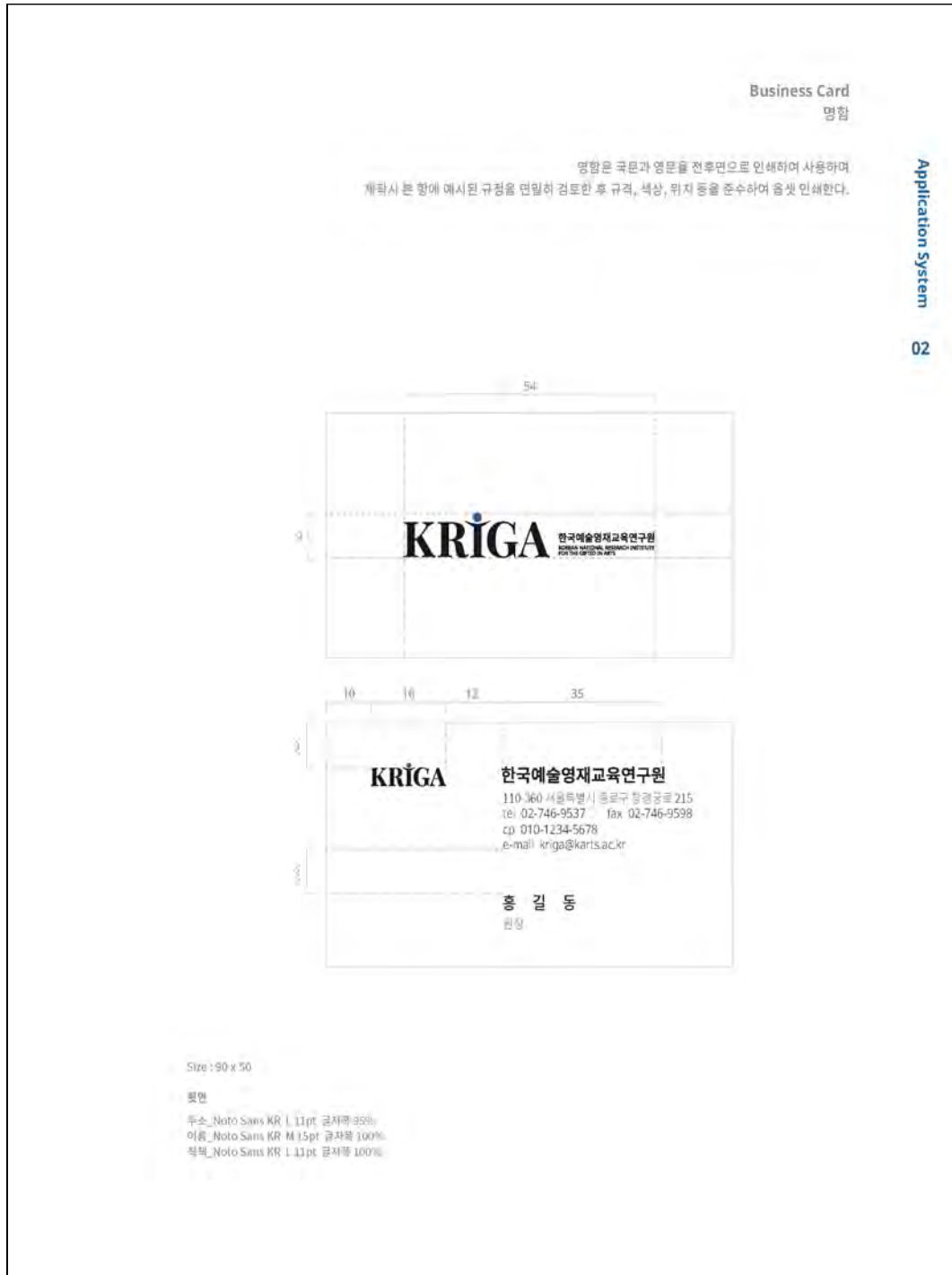
Noto Sans KR M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국내 현실을 접목한 예술영재교육의 기틀을 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창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Noto Sans KR B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국내 현실을 접목한 예술영재교육의 기틀을 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창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Noto Sans KR B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국내 현실을 접목한 예술영재교육의 기틀을 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창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Typeface 지정서체 영문지정서체는 Noto Sans Famil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타이틀에는 Noto Sans Bold, Medium을 사용하고 본문과 재목 등에 주로 Noto Sans Light, Regular를 사용한다. 지정서체는 절대적인 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이나 서식류, 문서류, 사인 등의 제작물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Noto Sans KR L	The Korea Institute of Arts and Gifted Education systematically fostered the talent neede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education of art and gifted students.
Noto Sans KR R	The Korea Institute of Arts and Gifted Education systematically fostered the talent neede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education of art and gifted students.
Noto Sans KR M	The Korea Institute of Arts and Gifted Education systematically fostered the talent neede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education of art and gifted students.
Noto Sans KR B	The Korea Institute of Arts and Gifted Education systematically fostered the talent neede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education of art and gifted students.





Business Card

명함

명함은 위와 같은 규격을 정확히 준수하여 인쇄하여 사용하며, 제작시 본 양에 제시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격, 색상, 위치 등을 변경할 수하여 음색 인쇄한다.



Size : 90 x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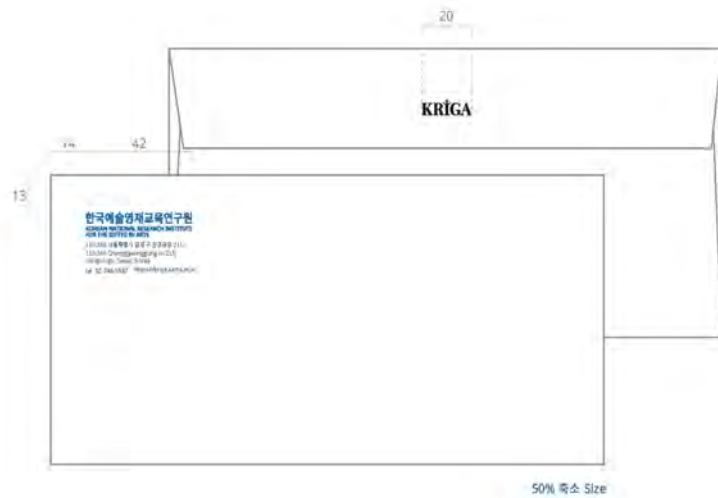
뒷면

주소_Noto Sans L 11pt 글자폭 95%
 이름_Noto Sans B 14pt 글자폭 100%
 직책_Noto Sans L 11pt 글자폭 95%

Envelopes
소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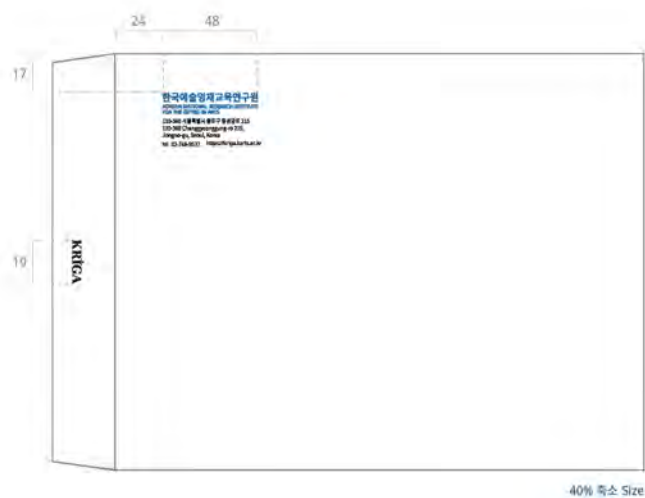
Application System

03



Size : 228x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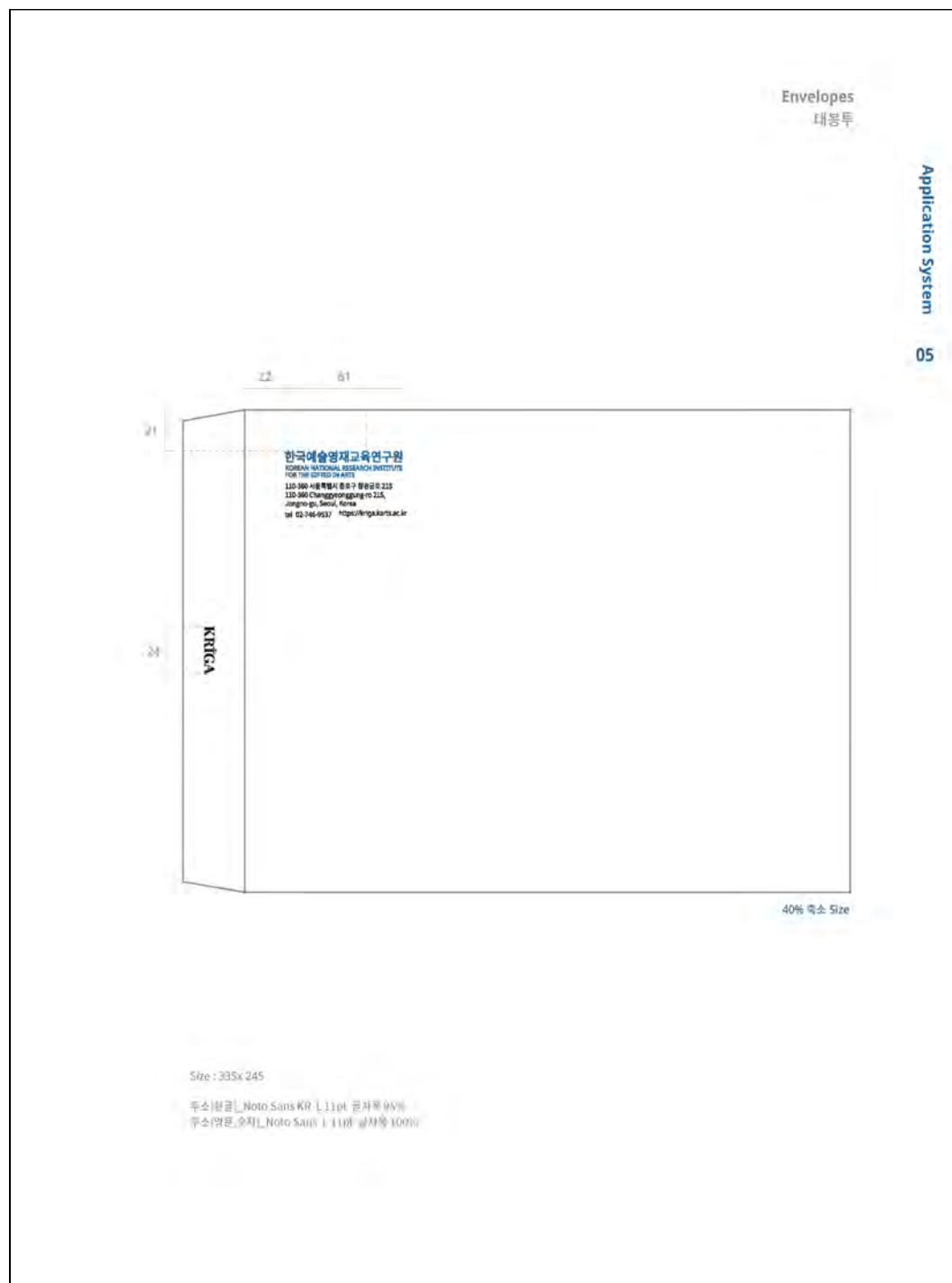
주소(한글)_Noto Sans KR L 7.5pt 글자폭 95%
주소(영문,우치)_Noto Sans L 7.5pt 글자폭 100%



Size : 200x100mm

주소)원글_Noto Sans KR L 9pt 글자폭 989%

부소(영문,숫자)_Noto Sans L 9pt 글자폭 100%



Cover Forms
장표 케이스

Award Forms
표창장

Application System 2
02

은막 84 28

제2007-089호

표 창 장

성명:홍길동

위 사람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부문의 모범이 됨은 물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 크므로
이에 표창함

2023년 1월 00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원 장 조 주 현

50% 축소 Size

Size : 210 x 297

Award Forms
위촉장, 임명장

Application System 2
03



Size: 210 x 297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2022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시범적용 연구

발행인	조 주 현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처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http://kriga.karts.ac.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 화	02-746-9537
인 쇄	(주) 계 문 사(02-725-5216)
I S B N	979-11-85119-94-6 94370
	979-11-85119-93-9 (세 트)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필자와 저작자에게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